

히브리서 이야기 더 좋은 것

조동호 지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A Story of the Epistle to the Hebrews
BETTER THINGS TO COME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18

20-10 Beonyeong 8-gil Umsamyun Gyeryongsi,

Choongnam, Korea 32815

Tel(042)841-9697

머리말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님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구약성서, 특히 모세오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히브리서 저자는 토라와 유대교의 성전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헬라철학의 이원론에 익숙하였으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실천, 곧 사도전통에 대해서도 잘 아는 인물이었다. 이 같은 인물에는 바울(동방교회 주장), 바나바(테르툴리아누스 주장), 누가(클레멘트 주장), 아굴라와 브리스길라(하르낙 주장), 아볼로(루터 주장) 등이 있다. 히브리서의 책명이 일반서신들과 달리 바울서신들처럼 수신자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울이 저자일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히브리서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암시나 언급이 없어서 주후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히브리서 저자는 당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new and living way)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새로운 살 길이란 유대교가 제시하는 길도 아니고, 헬라인들이 제시하는 길도 아닌 제3의 길을 의미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지적한대로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지혜를 찾던 헬라인들이 어리석게 생각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남녀노소빈부귀천 색깔이나 민족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새로운 길이고, 생명을 주는 길을 선포하고 있다. 민족마다, 종교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가 있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선포하고 가르치기를 힘쓴다. 문제는 그 힘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고, 사람들에게 유익한가라는 것이다.

4 / 히브리서 이야기: 더 좋은 것

2천 년 전 유대인들은 제2모세 곧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나 자신들을 가나안땅으로 인도하여 주기를 바랐다. 오랜 떠돌이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기를 바랐다. 빼앗긴 영토와 주권을 되찾고 추락된 명예가 회복된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안식하기를 바랐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고, 왜 그분이 메시아이신지, 왜 그분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 헬라인들은 그들이 유출되어 신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된 이유를 밝혀서 다시 그들을 신에게로 데려다 줄 참 지식을 얻고자 하였다. 그 지식이 그들을 그림자의 세계가 아닌, 모형의 세계가 아닌, 참 세계, 참 이데아의 세계에로 그들을 인도하여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진리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유일한 지식이라고 선포한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코 사람들을 참 진리에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류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10:20)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천사나 모세나 또는 아론의 제사장들보다 월등히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참 빛이신 예수님

히브리서가 기록된 일세기 후반기를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고나서도 유대교와 유대공동체와의 고리를 끊지 못한 자들이 많았고, 가족, 친족, 종족의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유대교에로 복귀하려는 자들이 있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우왕좌왕하는 자들에게 왜 그리스도께서 ‘제3의 길’인지, 바울의 표현처럼,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지, 왜 그리스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월한 존재인지, 그리고 왜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우월한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려고 하였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7:25)고 외쳤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10:22)고 외쳤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12:2)고 외쳤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인 만큼, 유대인들에게 익히 알려진 구약성서를 모형론으로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변증한다. 모형론이란 새것을 옛것에 비교하거나 천상의 것을 지상의 것에 비교하는 방법인데, 옛것이나 지상의 것은 새것과 천상의 것의 그림자이거나 모형일 뿐이고, 새것과 천상의 것이 참인 실체라는 설명이다. 이 설명대로라면, 구약이나 모세나 율법이나 성막예배와 같은 옛것들은 신약이나 예수님이나 복음이나 기독교예배의 그림자나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참인 실체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림자나 모형의 사명은 끝나므로 말 그대로 옛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참이요 실체인 새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흠 있고 문제 많은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새것을 거절한다면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이다.

플라톤이 소개한 동굴의 비유에서도 나타나듯이, 햇불을 본 사람이 햇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자를 더 이상 참으로 알지 않고, 동굴 밖에 펼쳐진 광활하고 태양빛 찬란한 세계를 본 사람이 동굴 속 세계를 더 이상 동경하지 않듯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빛의 세계에 거하는 사람이므로 더 이상 떠나온 세계인 유대교를 동경하여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신학자 최병헌(崔炳憲, 1858-1927) 목사님이 『성산유람기』(聖山遊覽記)에서 지적한 “여름 별레는 겨울의 얼음을 말할 수 없고,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하늘이 적다고 하듯이.... 거친 음식이나 풀죽과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이 다 음식이지만, 귀하고 천하며 아름답고 추한 차이가 있듯이,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이 없을 때에는 거친 음식과 풀죽을 먹지만,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보고도 의심하여 먹지 않는다면 이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신학월보 230쪽 이하)고 한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6 / 히브리서 이야기: 더 좋은 것

경험한 사람들은, 타락하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히 6:4-6)는 것이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욱되게 하는 것”(히 6:6)이어서, 마치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빨아 들여서,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히 6:7-8)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초보적 단계를 뛰어넘어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라고 말한다(히 6:1).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1장에서 천사들보다도 뛰어난 분이라고 하였고, 2장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마귀를 없이하시며, 백성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하시며,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며,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구세주라고 했다. 3-4장에서는 안식을 주시는 분, 5장에서는 아론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외쳤다.

6장에서는 초보적 단계를 뛰어넘어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라고 말하면서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은, 타락하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4-6절)고 하였다. 그렇지만, 오래 참고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약속을 받아 이루게 된다고 강조했다.

7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였다.

8-10장에서는 예수님을 옛 언약보다 뛰어난 새 언약의 중보자

로, 옛 언약시대의 성막보다 더 뛰어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막”과 더 나은 제사의 큰 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살길”이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외쳤다.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끝까지 견디자, 믿음으로 하자, 사랑으로 하자, 소망 중에 인내로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11장에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축복의 반열에 든 신앙선배들을 일일이 열거하여 증거로 제시하였다.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강조한 또 다른 내용은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다. 3장 1절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였고, 12장 2절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였다. 10장 29절에서는 배교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였고, 10장 32절에서는 이전에 큰 고난을 당하고도 잘 참고이긴 것을 생각하라고 하였으며, 13장 3절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라고 하였다.

히브리서 집필 배경과 동기

히브리서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와 히브리서의 집필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히브리서 공동체가 직면했던 문제는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는 배교의 위험이었다. 그들에게 불어 닥친 위험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물리적인 박해였다. 박해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12:12)이 될 만큼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히브리서 공동체가 아직 “피 흘리는 데까지는 대항하지”(12:4, 13:7) 않았으나 “고난의 큰 싸움”을 이미 겪었고, 더 큰 어려움도 예견하고 있었다(12:3-13, 13:3). 그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비방을 받고 있고, 환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으며, 투옥

8 / 히브리서 이야기: 더 좋은 것

되었고, 친인척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였으며, 고향을 등졌고, 나그네로 유리하였으며, 산업까지 빼앗기고, 재산을 몰수당하였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손은 풀리고 무릎은 떨게 되었으며, 크게 낙심하였다. 이런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그들을 배신과 배도와 배교로 몰고 있었다.

이런 정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필요했던 것은 인내였고, 굳건한 믿음이었다. 따라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듯이, 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고난과 시험을 받고 죽으셨지만, 다 이기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존귀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며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써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 영원한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면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4:7)고 하였다. 또 저자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사람들 앞에서 휘방과 능욕과 고문을 당하고, 감금되고, 배척당하여 방황하는 교우들을 맞아들이고, 감옥을 찾아가고, 이제는 손이 풀리고 무릎이 떨리는 위기를 당했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서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을 상속받고, 하늘의 안식을 얻는 큰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였다. 또 저자는 모이기를 꺼려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배도하는 이들은 나중에 후회해도 다시 약속을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하므로 신앙을 굳게 지키고 참 약속을 믿고 환난을 견디라고 권면하였다. 저자는 10장 32-36절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앎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

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전 것보다 더 뛰어난 나중 것



큰 대제사장

히브리서는 1-7장에서 그리스도교에는 어떤 인물이 계신가를 설명한다. 유대교가 자랑하는 인물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천사나 아

론보다 뛰어나신 구세주이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큰 대제사장이심을 설파한다.

히브리서는 8장 1절부터 10장 18절에서 그리스도교에는 유대교보다 더 뛰어난 제도들이 있음을 설명한다. 더 좋은 언약이 있고, 더 좋은 지성소가 있으며, 더 좋은 희생물이 있음을 설파한다.

히브리서는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에서 그리스도교에는 유대교보다 더 뛰어난 생명이 있음을 설파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전진하자고 말한다. 모범적으로 믿자고 말한다. 신실함으로 인내하자고 말한다. 사랑하자고 말한다.

이전 것들은 나중 것들의 예표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나중 것들은 이전 것들의 원형이요 실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전 것인 유대교와 인물들보다 나중 것인 그리스도교와 예수님이 보다 뛰어나다고 말한다.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8절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였고, 그리스도교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 자신이 신뢰했던 것들,

10 / 히브리서 이야기: 더 좋은 것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 율법의 행위들과 육체의 것들인 이전 것들을 나중 것들인 그리스도교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알고 난 후에는 다 해(害)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였다.

바울이 이렇게 이전에 자신이 신뢰했던 것들, 또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버린 것은 더 뛰어난 구원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이 그분 안에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바울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위대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위대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구원의 위대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늘 가나안땅 곧 참 안식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의 특징

히브리서는 선포(논문)와 권면(설교)을 네 차례 반복한 후에 편지로 끝맺음을 한 훌륭한 문체로 작성된 글이다.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첫 번째 선포(논문)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구주이심을 설파한다.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1:2-3). 그분은 구약시대의 그 어떤 선지자나(1:1) 천사나(1:5-14) 모세보다(3:1-6) 더 뛰어난 분이시다. 그러므로 저자는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던 때에 마음을 강박케 하여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다가 지상 안식 곧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점을 상기시킨 후 그리스도인들은 그 같은 불순종을 본받지 말고 하늘 안식 곧 가나안땅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한다고 권면한다.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두 번째 선포(논문)로써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설파한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5:6). 구약시대에 백성을 위해서 매년 속죄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보다 월등히 뛰어난 곧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큰 대제사장”이시다(4:14). 그러므로 저자는 5장 11절부터 6장 20절에서 이러한 대제사장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교에 관한 초보적 교리를 버리고, 성숙한 경지에까지 발전해가야 한다고 권면한다.

7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세 번째 선포(논문)로써 예수님이 다른 대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심을 설파한다.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 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분이시다(9:12). 그러므로 저자는 10장 19-39절에서 그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제치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으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권면한다.

11장은 네 번째 선포(논문)로써 예수님이 믿음의 선구자요 완성자이심을 설파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10:20)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들일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가 나타나 행할 표적을 바랐고, 헬라인들은 보이지 않는 이데아 세계로 인도하여 들일 지식을 찾아 헤매며 그 지식을 찾게 해줄 지혜를 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기로 간절히 바랐던 것은 영원한 안식처인 성소이며, 그곳에 인도해줄 새로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를 실상이요 증거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12-13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과 인내로 모든 환란을 이기고 저들을 위해 준비된 본향에 들어간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12 / 히브리서 이야기: 더 좋은 것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한다.

2018년 6월 10일
소광(素光) 조동호 목사

차례

머리말/3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님	3
참 빛이신 예수님	4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님	6
히브리서 집필 배경과 동기	7
이전 것보다 더 뛰어난 나중 것	9
히브리서의 특징	10

1.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메시아(사 2:2-4)/19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19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메시아	20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짓 메시아들	22

2. 하나님의 대언자들(히 1:1-3)/24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대언자들	24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특별한 대언자	25
특별한 대언자로서 예수님의 특성	27

3.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대언(계시)자(히 1:4-14)/29

대언(계시)자들의 등급	29
천사들의 등급	30
예수님과 천사들과의 차이	32

4. 하나님이 대언자들을 입증하심(히 2:1-4)/34

복음에 더욱 유념하자	34
-------------------	----

14 / 히브리서 이야기: 더 좋은 것

율법서와 예언서의 효력	35
복음서와 서신서의 효력	37
5. 장차 올 세상(히 2:5)/39	
‘하티크바’(Ha-Tikvah)	39
‘올람 하바’(Olam Ha-Ba)	40
‘모쉬아크’(Moshiach)	42
6. 장차 오실 존귀하신 자(1)(히 2:6-9)/44	
예배에서의 시편(1)	44
예배에서의 시편(2)	45
장차 오실 존귀하신 자	47
7. 장차 오실 존귀하신 자(2)(히 2:10-18)/49	
“독생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49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형제가 되는 이유	51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	52
8. 안식(가나안땅)에 들어가는 길(1)(히 3:1-6)/54	
아들과 종들의 계시등급의 차이	54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계시등급의 차이	55
신약교회로의 환원	56
9. 안식(가나안땅)에 들어가는 길(1)(히 3:7-11)/59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	59
이집트 탈출 1세대 히브리인들의 불순종	60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히브리인들의 가나안땅 진군	62
10. 안식(가나안땅)에 들어가는 길(2)(히 3:12-19)/64	
위기 때에 저술된 성경	64

위기 진단과 처방으로써의 성경	66
성경말씀대로	67
11. 안식(가나안땅)에 들어가는 길(3)(히 4:1-13)/69	
고대근동에서의 ‘안식’	69
성서에서의 ‘안식’	70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라	72
12.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1)(히 4:14-16)/74	
종교개혁운동	74
신앙부흥운동	75
예배갱신운동	77
13.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2)(히 5:1-14)/79	
히브리서 저자의 두 번째 선포내용	79
“큰 대제사장”(The Great High Priest)	80
영원한 큰 대제사장	82
14.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3)(히 6:1-20)/84	
성숙한 길로 나아가자.	84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85
신실한 믿음과 오래 참음	87
15. 더 좋은 언약의 보증(1)(히 7:1-10)/89	
역대기 이념적 메시아 예표로써의 멜기세덱(1)	89
역대기 이념적 메시아 예표로써의 멜기세덱(2)	90
히브리서 저자의 멜기세덱에 관한 이해	92
16. 더 좋은 언약의 보증(2)(히 7:11-28)/94	
시편 110편의 해석(1)	94

16 / 히브리서 이야기: 더 좋은 것

시편 110편의 해석(2)	95
시편 110편의 해석(3)	97

17. 더 좋은 언약의 보증(3)(히 8:1-13)/99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99
결함이 드러난 옛 언약	100
새 언약	102

18. 이동성막(미쉬칸)(1)(히 9:1-10)/104

하나님 보좌방의 모형	104
하나님 임재의 상징	105
집회와 속죄의 장소	107

19. 이동성막(미쉬칸)(2)(히 9:11-22)/109

이동성막(미쉬칸)의 성격	109
더 훌륭하고 완전한 장막	110
새 언약의 증보자	112

20. 이동성막(미쉬칸)(3)(히 9:23-28)/114

새 언약	114
야훼의 종	115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들(1)	117

21.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님(1)(히 10:1-18)/119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들(2)	119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들(3)	120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들(4)	122

22.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님(2)(히 10:19-25)/125

성소에 들어갈 담력	125
------------------	-----

새로운 살 길	126
하나님께 나아가자	128

23.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믿음(1)(히 10:26-39)/130

믿음과 인내	130
믿음의 종류	131
믿음의 연단	133

24.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믿음(2)(히 11:1-2)/135

히브리서의 구조주의 모형론	135
바라는 것들의 실상	136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138

25.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믿음(3)(히 11:3-32)/140

믿음 명예의 전당	140
믿음의 영웅들(1)	141
믿음의 영웅들(2)	143

26.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믿음(4)(히 11:33-40)/145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영성(1)	145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영성(2)	146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영성(3)	148

27.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히 12:1-13)/150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인내로써 완주하자	150
주님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151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바른 길을 달려가라 ·	

18 / 히브리서 이야기: 더 좋은 것

28.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히 12:14-29)/155

주님을 뵈는 길	155
하늘 시온산의 우월성	156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158

29. 영원히 한결같으신 예수님(히 13:1-14)/160

영원히 한결같으신 예수님	160
사람을 깨끗케 하시는 예수님	161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	163

30.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히 13:15-25)/165

찬송과 봉사의 제사(1)	165
찬송과 봉사의 제사(2)	167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	168

31.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히 10:26-39)/170

1.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메시아(사 2:2-4)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시몬 바르 코크바가 발행한 프루타(Prutah, AD 135) 전면에 메노라 형상의 종려나무를 새겼고, 그 밑에 'Simeon'이라고 새겼으며, 뒷면에 세 개의 포도송이와 가지를 새겼고, 그 둘레에 "예루살렘의 자유" (to the freedom of Jerusalem)라고 새겼다. 종려나무는 승리 또는 기쁨을, 포도나무는 부활 또는 회복을 상징한다. 시몬은 이 동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 기쁨을 홍보하였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1세기 로마시대에 살았고, 설교하였으며, 로마당국과 그들의 학정에 항거하다가 처형당한 보통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 사후에 나

사렛당으로 알려진 그분의 유대인 제자들이 구약성서에 예언된 메시아(mashiach or מָשִׁיחַ, anointed one)라고 주장하였고, 메시아에게 요청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다수 당대의 유대인들은 이 주장을 거부하였고, 유대교는 오늘날까지 견재하다고 믿는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나사렛당이란 작은 유대인 종교운동의 핵심인물이었으며, 신속하게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발전되었다고 믿는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구약성서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는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의 망토를 걸친 거짓 메시아로 간주하면서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메시아가 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메시아 시대(Messianic Age)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는 다음과

20 / 히브리서 이야기: 더 좋은 것

같다.

구약성서는 메시아가 도래하기 직전에 전쟁과 대환난이 있을 것을 말한다(겔 38:16). 이것이 끝나면 정치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구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사 11:11-12, 렘 23:8, 30:3, 호 3:4-5).

그때에 메시아는 이스라엘에 토라(Torah) 정부를 세울 것이고, 토라정부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를 위한 세계정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사 2:2-4, 11:10, 42:1). 그때에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예배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렘 33:18)고 믿는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의 종교법정제도가 되살아날 것이고 토라는 유일하고 최종적인 법이 될 것이다(렘 33:15)고 믿는다. 게다가 메시아시대는 중오, 편협, 전쟁이 없는 유대인이든 아니든 모든 백성의 평화로운 공존으로 특징지어질 것이다(사 2:4)고 믿는다. 모든 백성은 야훼(YHWH)를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토라를 유일하고 참된 삶의 길로 인정할 것이고, 질투, 살인과 강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메시아

유대교에 따르면, 참된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율법을



바른 코크바(Simon bar Kochba)가 발행한 세겔(AD 132-135) 전면 중앙 상단에 별을 그 밑에 성소 출입구를 출입구 중앙 안쪽에 지성소의 법궤를 좌우에 "Simeon"이라고 새겼다. 뒷면 중앙에 초막절 축제 때 사용하는 틀라브와 에트로그를 그 둘레에 "예루살렘의 자유"(to the freedom of Jerusalem)라고 새겼다.

준수하는 유대인이어야 한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혈통이 아닌 보통의 인간이어야 한다. 게다가 유대교에서 계시는 그리스도교에서처럼 개인차원의 것이

아니고, 국가차원의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님이 장차 오실 자 메시아였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인용한 토라의 구절들은 예외 없이 오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들 토라의 요구들을 이루지 못하였고 메시아시대도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결코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유대인들의 이런 주장과 그리스도교의 주장에 큰 차이가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성서는 자기나라의 출범과 자기나라의 흥망성쇠에 관한 글이라고 믿고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준수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성서는 전 인류의 흥망성쇠 곧 영적 구원과 영적 삶에 관한 글이라고 믿고, 인류구원이란 큰 틀에서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성서는 지상 가나안땅과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약속과 성취와 멸망과 회복에 관한 글이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안식’은 오랜 유배와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으로서 지상 가나안땅, 특히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에서 사는 것을 말한 것이고, 장차 오실 자 메시아가 해야 할 대업도 유대인들의 ‘그 희망’(Ha-Tikvah)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성서는 하늘 가나안땅과 영적 이스라엘 나라, 특히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약속과 성취에 관한 글이고, 인류의 멸망과 회복에 관한 글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안식’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부활과 영광의 몸으로 하늘 가나안땅 곧 하늘 시온과 하늘 예루살렘의 땅에서 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을 말한 것이고, 이천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삼일 만에 부활 승천하여 하늘 우편보좌에 앉으심으로써 인류의 ‘그 희망’(Ha-Tikvah)을 이미 영적으로 성취하셨고, 인류의 ‘그 희망’을 문자적으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희망’의 성취를 적은 글이 신약성서이다. 그러므로 신약성서, 특히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의 ‘그 희망’에 관한 구약성서를 인류의 ‘그 희망’과 ‘그 희망’이 ‘이미’ 성취된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

22 / 히브리서 이야기: 더 좋은 것

과 부활로 완성될 ‘아직’ 성취되지 못한 내용으로 새롭게 해석된 글이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짓 메시아들

유대인들은 서기력시대의 유대인 거짓 메시아로 예수님, 발 코크바(Simon bar Kochba), 샤베타이 제비(Shabbetai Tzvi)를 꼽는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정황으로 볼 때, 특히 로마의 학정과 탄압 하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평화와 자유의 시대가 오기를 학수고대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단지 그런 분위기에 편승한 거짓 메시아였다고 주장한다.

발 코크바는 주후 132년에 로마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인



샤베타이 제비(Shabbetai Tzvi, 1626-76)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여 전 세계의 유대인들을 흥분의 도가니에 몰아넣었으나 1666년 오스만 제국에 체포된 후 이슬람에 개종하여 항실금고를 받았으며, 이슬람에 속은 유대 교인으로 남아 그를 메시아로 추종하는 신비주의(kabbalist) 이슬람-유대교 종파 '돈메' (Dönme)의 시조가 되었다.

물로서 독립 국가를 세워 '나시'(Nasi, Prince)로서 통치하였으나 주후 135년 성지에서의 유대교가 거의 말살 당하게 한 인물이었다. 발 코크바는 메시아로 추앙을 받았고, 랍비 아퀴바로부터 기름부음도 받았지만, 그가 전쟁 중에 사망함으로써 유대인들은 그를 또 한 명의 거짓 메시아로 치부하였다. 참된 메시아는 혁명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 자라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샤베타이 제비, 신

비주의 메시아(1973)를 쓴 게르솜 솔렘(Gershom Gerhard Scholem, 1897-1982)과 같은 유대인들은 바울로 대표되는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돈메’(Donmeh)에 비교한다. ‘돈메’는 오토 만제국의 술탄의 강요로 공개적으로 이슬람에 개종하여 황실연금을 받으며 모슬렘으로 살았으나 비밀리에는 유대교 신앙을 유지한 샤베타이 제비(1626-76)를 메시아로 믿고 추종하는 신비주의 이슬람-유대교 종파를 말한다. 샤베타이는 소아시아 서머나 출신의 유대인 신비주의자(kabbalist)로서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함으로써 전 세계의 유대인들을 흥분의 도가니에 몰아넣었으나 1666년 초 콘스탄티노플에서 체포되었다. 지금까지도 ‘돈메’가 남아 있다.

솔렘은 ‘돈메’ 현상을 초기 유대교-기독교 현상에 비교하였다. 바울이 십자가의 수치라 불렀던 것과 이슬람에 개종한 배교자 샤베타이의 수치를 동일하게 보았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두 사건이 모든 면에서 쇼킹한 것이었으나 그들의 제자들은 옛 것을 대신한 유대교의 새로운 형태의 탄생을 선포하였고, 그들은 역설적인 교리를 신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샤베타이의 추종자들이 배교를 신비로 확신한 것을 십자가의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바울의 주장과 닮았고, 밀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 떨어져 썩는다는 것과 옛 토라는 죽고, 영의 새로운 법으로 대치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닮았다고 주장하였다.

2. 하나님의 대언자들(히 1:1-3)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대언자들



히브리서 1장 1-3절은 선언적일 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선포이다.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메시아는 그리스도교가 메시야로 믿는 예수님과 판이하게 다르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짓 메시야로 보았다는 점에서 매우 담대한 선언이다.

유대교의 경전은 성문서(Tenach)와 구전문서(Talmud)로 나뉘며, 성문서에는 Torah(가르침, 613개 계명), Neviim(선지자들) 및 Ketuvim(기록들)이 있다. 구전문서에는 Mishnah(6개의 주제로 나뉜 구전법)와 Gemara(미슈나를 해석한 아람어 주석)가 있다. 구전의 전달자들은 시기별로 모세, 여호수아, 장로들(1300-1200BC), 선지자들과 학자들(1200-200BC), 주교트(Zugot: 다섯 쌍 가운데 마지막 주교트가 힐렐과 샴마이, 200-0BC), 타나임(Tanna'im, 번자카이, 가말리엘을 포함한 주교트의 후손과 제자들, AD 0-200) 및 아모라이임(Amora'im, AD 200-500)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첫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 첫

기록 토라를 주셨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장로들을 통해서 구전 율법을 주셨다고 믿는다. 이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 출애굽 직후 처음 100년간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 및 장로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 주전 200년까지 약 1000년간은 선지자들과 학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며, 주전 200년부터 예수님 때까지 약 200년간은 학문과 견해에 있어서 쌍벽을 이뤘던 다섯 쌍(Zugot)의 가문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후 첫 200년간은 교사들(Tana'im)을 통해서, 그리고 주후 200-500년까지 약 300년간은 해석자들(Amora'im, 낭송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믿고 있다. 초기 그리스도교 직전 세대인 힐렐과 삼마이가 마지막 '주고트'이고,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전후의 '나시'(Nasi)들이었던 힐렐의 손자 가말리엘1세, 증손자 시메온 벤 가말리엘1세, 요한난 벤 자카이 그리고 시메온 벤 가말리엘2세(주후 132-135년 유대-로마 전쟁 때 갈릴리 우샤로 피신) 및 그의 아들 예후다(유다) 하나시(Yehudah Ha-Nasi, 주후 217년 사망)가 '타나임'에 속한다. 예후다는 갈릴리 우샤(Usha)에서 주후 200년경에 구전토라를 수집하여 편찬하였는데 이것이 '미슈나'(Mishnah)이다. 이후 주후 500년경까지 이 책 '미슈나'에 아랍어 주석(Gemara)이 달리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탈무드'(Talmud)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특별한 대언자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1절)는 선언은 그리스도교가 구약 성서(Tenach)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교는 토라(Torah)와 선지서(Neviim)와 성문서(Ketuvim)를 지금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유대교가 발전시켜온 구전 전승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대교에서처럼 토라를 선지서보다 더 우위에 두지도 않았다.

반면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2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교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



1793년판 바벨론 탈무드
2003년 이라크전쟁 발발시 폭격으로 인해 물탱크가 터져 물에
잠겼던 사담 후세인의 정보국 지하실에서 건져 올린 수많은 유대인
문서들 가운데 하나로써 미국으로 옮겨져 복원작업을 거쳤다.

신” 내용이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님에 관한 것이고, 그분 안에서 오롯이 성취되었으며, 유대교가 희망하는 메시아보다 월등히 뛰어난 분이심을 선포하였다. 그분의 우월성 또는 탁월성이 2-3절에 선언적으로 압축되

었다.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 시대를 “옛적에”에 대조되는 종말론적인 메시아시대로, 예수님을 “선지자들”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물의 상속자”로, 세계창조의 중재자 또는 참여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 “본체의 형상”으로, “또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유대교는 이 같은 그리스도교의 선언을 받아드리지 못한다. 이런 점 때문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전혀 다른 신념체계가

다. 유대교는 구약성서를 유대민족의 흥망성쇠가 담긴 경전으로 믿고 그 내용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민족종교인 반면, 그리스도교는 구약성서를 그리스도교의 신명체계 속에서 영적(구속사적)으로 해석한 신약성서를 경전으로 삼는 세계종교이다.

특별한 대언자로서 예수님의 특성

2-3절에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대언자들, 특히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메시아의 특성에 대조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특별한 대언자로서 예수님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첫째,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메시아가 율법을 준수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혹은 다윗의 후손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



탈무드(Talmud)의 구조

1. 미슈나(Mishnah), 2. 게마라(Gemara: 미슈나의 주석),
3. 라시(Rashi)의 주석(AD 1040-1105), 4. 라시 생도들의 주석,
5. 마이모니데스(Maimonides, AD 1135-1204)에의 상호 참조,
6. 람바삼 가온(Nissim Gaon)의 주석

28 / 히브리서 이야기: 더 좋은 것

서도 하나님과 동등 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신”(빌 2:6-7) 분이시다.

둘째,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메시아가 지상 가나안땅의 상속자, 곧 이스라엘에 토라(Torah) 정부를 세울 자라면, 예수님은 세상 만물의 상속자로서 하늘과 지상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시다.

셋째,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메시아가 빼앗긴 지상 가나안땅을 되찾을 자라면, 예수님은 세계창조의 중재자이시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를 만드셨다.

넷째,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메시아가 사람의 형상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요, 하나님 임재의 광채이시다.

다섯째,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메시아가 칼로써 지상 가나안땅을 회복시킬 자라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자이시다.

여섯째,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유대인들의 구세주라면,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로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일곱째,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메시아가 지상 이스라엘나라의 왕좌에 앉을 왕(Nasi, Prince)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평화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3.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대언(계시)자(히 1:4-14)

대언(계시)자들의 등급



미가엘 대천사(Michael, 14세기, 비잔티움)

히브리서 저자가 “선지자들,” “천사들,” “아들”을 언급한 것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들이었기 때문이다.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에서 보듯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요, 선지자들의 선지자는 모세였다. 모세가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계명들을 전달받아 백성을 가르친 율법을 세운 시조였다면, 선지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풀어 가르친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보다 월등히 더 뛰어난 선지자가 모세였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한 족장들과 모세와 선지자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율법을 모세에게 전달하셨다(히

30 / 히브리서 이야기: 더 좋은 것

2:2, 행 7:38, 53, 갈 3:19). 그러므로 모세보다 월등히 더 뛰어난 대언자가 천사들이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에서 보듯이 “아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한 대언자였다. 그러나 “아들”은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로부터 율법을 전달받은 모세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하늘의 천사들보다 월등히 더 뛰어난 대언자였다는 것이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4절에서 “그분이 천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되신” 이유를 “천사들보다 더 탁월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11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하였다. 여기서 “이러므로”는 천사들이 모세에게 전한 율법보다 월등히 더 뛰어난 십자가 복음을 전하신 분이시다는 뜻이고, 선지자들보다, 모세보다, 천사들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월등히 더 많이 아시고 깊이 아신다는 뜻이다.

천사들의 등급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한 천사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천사들이기보다는 당대의 유대인들이 믿었던 천사들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이 믿는 천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천사들은 하갈에게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바가 있다. 특히 모리아 산에서 이삭에게 칼을 꽂으려던 찰나에 천사가 나타났었고, 압브람 강가에서 야곱에게도 나타났었다. 이밖에도 구약성서에는 천사들이 자주 등장한다. 유대인들은 이들 천사들이 창조 이틀째나 다섯째 날에 만들어진 영적 존재들일 것으로 본다. 법궤 덮개와 성막에 수놓아진 그룹에서 보듯이 일부 천사들은 날개들을 갖고 있다.



케루빔과 천사들(시칠리아 체팔루 성당, 1200년경)

가브리엘과 미가엘 이외에 일부 천사들의 이름은, 예루살렘 탈무드에 따르면, 에스라시대 이후에 알려졌고, 더 많은 이름들이 탈무드와 신비의 카발라를 통해서 알려졌다

다고 한다. 중세시대의 유력한 세파르딕 랍비 마이모니데스(Maimonides)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영적 존재들을 천사들로 보고, 그들의 신분을 10등급으로 나눴다.

마이모니데스는 “네 생물”(하요트 하코데쉬 Chayot Ha-Kodesh, 겔 1:5,8)을 일등급 천사로 보았다. “네 생물”로 번역된 ‘하요트 하코데쉬’는 성령이란 뜻이다. “바퀴들 속에 있는 그룹 영들”(오파님 Ophanim, 겔 1:20-21, 10:17)을 2등급, “용사”(에렐림 Erelim, 사 33:7)를 3등급, “불속에서 번쩍이는 금붙이 같은 것”(하쉬말림 Chashmalim, 겔 1:4)을 4등급, “스랍들”(세라핌 Seraphim, 사 6장)을 5등급, “천사들”(말라킴 Malachim)을 6등급, “신(神)들”(엘로힘 Elohim)을 7등급, “신(神)들의 아들들”(베네 엘로힘 Bene Elohim, 창 6:2)을 8등급, “그룹들”(케루빔 Cherubim, 창 3:24)을 9등급, 그리고 “사람” 모습의 천사(이쉬 Ishim, 창 18:2, 단 10:5)를 10등급으로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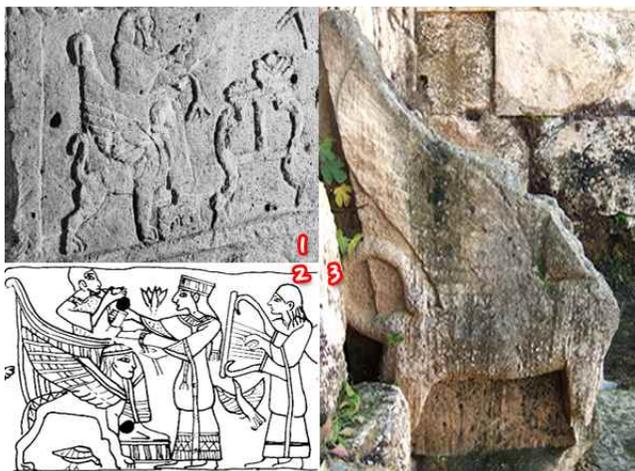
천사들의 서열등급은 랍비마다 조금씩 다르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볼 점은 그리스도교 성경에서 “하나(느)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을 천사들로 보았다는 점이고, 동일한 천사들에 대한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일 수 있는 “네 생물,” “스랍들,” “그룹들”을 각기 다른 천사들로 보고 서열을 매겼다는 점이다. 마이모니데스가 천사들의

32 / 히브리서 이야기: 더 좋은 것

등급을 정할 때 삼았던 기준은 하나님을 드러내보여주는 계시의 크기였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선지자들보다는 모세가, 모세보다는 천사들이, 천사들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자 또는 대언자 서열 최고위등급이심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과 천사들과의 차이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이신데 반해, 천사들은 비록 그들이 영적 존재들이지만



경호 생물 스프링크스를 부조한 의자들라 하나님의 보좌(법궤)
 1번은 페니키아 비블로스왕 아히롬(Ahirom)의 석관(c. 1000BC),
 2번은 이스라엘 모갓도에서 출토된 상아음각, 3번은 시몬의 에스문 신전에서 발견된 가나안의 여신 아스타롯의 석좌 및 법궤 덮개에 세운 케루빔 케루빔 안 공간이 하나님의 보좌요, 발판이며, 속죄소였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근본적 차이 때문에 예수님과 천사들 사이에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첫째, 신분 차이가 크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로써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인데 반해, 천사들은 하나님과 아들을 섬기고 복종하는 일군들이다 (4-5절, 벰전 3:22).

둘째, 존엄의 차이가 크다.

예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인데 반해, 천사들은 그분에게 경배와 찬양을 바치는 자들이다(6절, 계시록 5:11-14).

셋째, 품성의 차이가 크다. 예수님은 영원한 신성을 지니신 분인데 반해, 천사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불꽃으로 쓰임을 받는다(7절).

넷째, 직책의 차이가 크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시는(8절) 분인데 반해, 천사들은 그분을 돕는 자들이다(눅 22:43).

다섯째, 성취의 차이가 크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기름부음을 받으시고(9절)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신 분인데 반해, 천사들은 그 누구도 아들이란 칭호를 받거나 기름부음을 받지 못하였다.

여섯째, 근본의 차이가 크다. 예수님은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참여하셨던(2절) 분인데 반해, 천사들은 그분의 손에서 태어났다.

일곱째, 계시의 차이가 크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밝혀주셨고, 그분의 뜻을 가장 만족히 성취하셨으며, 지극히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자들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신다(빌 2:10). 반면에 수천수만에 이르는 천사들은 예수님의 비할 바 없는 계시, 이루신 사역, 무궁한 신성을 인정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계 5:12)고 큰 소리로 찬양한다.

4.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입증하심(히 2:1-4)

복음에 더욱 유념하자



수태를 고지하는 가브리엘 천사
(Simone Martini, 1284-1344)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한 때 유대교인이었던 이들에게 그리스도교 복음에 더욱 유념하여 옳음(정통)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권면이다.

여기서 “들은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실천을 말한 것으로써 3절의 언급처럼, “처음

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자들이”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확증해 준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확증해 준 것”은 신약성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바울도 히브리서 저자처럼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하였다.

첫째,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는 강조였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고 하였고, 갈라디아서 1장 11-12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고 하였다. 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에베소서 3장에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3절),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4절),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5절)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약성서 27권이 정경으로 확정지어질 당시 수집된 책들의 정경여부를 결정지은 잣대는 사도들의 전통 곧 사도들의 가르침과 실천이었다. 바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다”(엡 2:20)고 했다.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지칭한 것이고, “모퉁잇돌”이란 건물 네 모퉁이에 놓는 주춧돌과 같은 것으로써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뤄진 사실들이 교회의 근간이란 뜻이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예수님께 듣고 배운 자들이 전하고 실천한 내용들이 교회의 기초라는 뜻이다.

둘째, 자신이 전해준 전통대로 실천하라는 강조였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순종하라고 권하였고(롬 6:17), 고린도인들에게 “전하여 준대로 그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고전 11:2)하였으며,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살후 3:6)고 충고하였으며, 갈라디아인들에게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8-9)고 하였다.

율법서와 예언서의 효력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율법서와 선지서 곧 구약성서의 가르침을 말한 것이고, “효력이 있어서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불순종하여 당한 불행한 일들을 말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한 족장들과 모세



루트(Lute)를 연주하는 음악천사
(Melozzo da Fiori, 1438-94, 이탈리아)

와 선지자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다(히 2:2, 행 7:38, 53, 갈 3:19).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곧 모세의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예언서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출애굽기 39-40장이다.

성막건축에 관한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구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

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이다. 이 구절이 출애굽기 39장에만 10번 쓰였다. 특히 42-4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고 적고 있다. 출애굽기 40장에서도 성막건축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씀을 6번이나 반복하고 있고, 34-38절에서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든 일을 펼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40년을 광야에서 지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성막건축에 관한 핵심사상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란 점이다. 이것은, 유대교적 관점에서 볼 때, 613개의 계명들과 율타리법들(Gezeiroth), 곧 모든 율법과 규례가 반드시 문자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강조이

다. 이런 점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구약성서를 신약성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해하는 그리스도교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유대교인들에게 율법과 규례는 안식의 상징인 이 지상 가나안땅과 민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안식의 상징은 저 하늘 가나안땅이고, 인류의 영생이 걸린 문제는 보이는데 있거나 일시적인데 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영원한데 있다.

복음서와 서신서의 효력



부활의 천사
미국 온트리얼 장로교회, 디자인:
Frederick Wilson, 1904-05

3절,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에서 “이 큰 구원”은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에서 보듯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 곧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한다. 이 “아들”은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로부터 율법을 전달받은 모세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하늘의 천사들보다 월등히 더 뛰어난 대언자였다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1장에서 강조한 내용이었다.

3절,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이다.”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복음서와 서신서 곧 신약성서의 내용을 말한다. 그리고 4절,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로 함께 증언해 주셨고, 또한 성령께서도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눠 주신 것들로 증언해 주셨다”는 말씀은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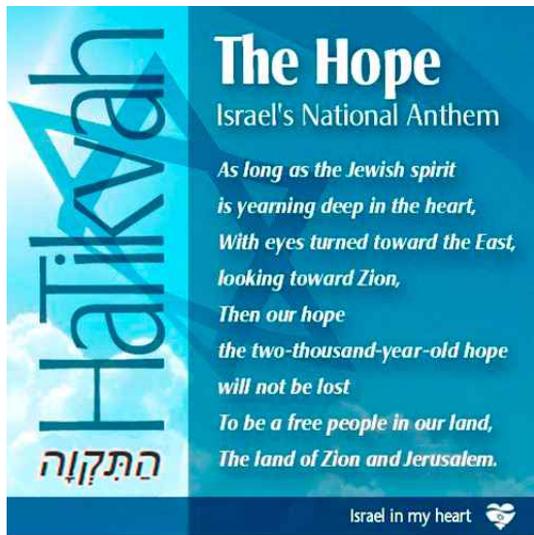
음의 능력 곧 신약성서의 강력한 효력을 강조한 말씀이다. 바울은 이 복음을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던 것”이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바울은 로마서 15장 18-19절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복음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증언하였다.

신약성서는 기적을 말할 때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란 단어를 사용한다(행 2:22, 고후 12:12, 살후 2:9, 히 2:4, 롬 15:18). 큰 권능(power)은 기적이 일어난 근원을 말하고, 기사(wonders)는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 예를 들면, 놀라거나 기이하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표적(signs)은 기적이 일어나는 목적을 말한다. 기적은 전도자들이 말과 행위로써 전파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고 확증하기 위한 것이다. 기적이 복음을 입증하고 확증할 때를 일컬어 표적이라고 부른다. 결과적으로 선포된 복음과 기록된 신약성서는 모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또는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권면한다.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3절)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더 굳게 간직하여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1절, 공동성경).

5. 장차 올 세상(히 2:5)

'하티크바'(Ha-Tikvah)



이스라엘의 애국가, “희망”(Ha-Tikvah)
 유대인의 정신이 마음속 깊이 갈망하고 있는 한,
 눈을 동쪽으로 향하여 시온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천년을 간직한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자신의 땅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에서!

희망해온 메시아시대를 말한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희망’을 ‘하티크바’(Ha-Tikvah)라 부른다. 그리고 ‘하티크바’는 이스라엘의 애국가로 자리를 잡았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유대인의 정신이 마음속 깊이 갈망하고 있는 한, 눈을 동쪽으로 향하여 시온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천년을 간직한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자신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에서 “장차 올 세상”은 히브리어로 ‘올람 하바’(Olam Ha-Ba)이고, ‘올람 하바’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희망해온 “장차 올 세상”이다. 비록 ‘올람 하바’가 히브리어성경에 쓰인 성서 용어는 아니지만, 바벨론 유배 이후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마음속 깊이

의 땅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에서!”

유대인들의 ‘그 희망’은 아브라함에게서 처음 시작되었다. 떠돌이와 노예였던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가나안땅과 나라에 대한 ‘그 희망’을 아브라함이 처음 품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처음 품었던 가나안땅과 나라에 대한 ‘그 희망’을 마음 속 깊이 갈망하는 자라야 유대인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대인들이 왜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떠받드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하늘 가나안땅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그 희망’을 마음 속 깊이 갈망하는 자라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셈이다. 계시록 17장 5절에서 “큰 바벨론” 곧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 묘사된 곳에서 한 동안 떠돌이와 노예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하늘 가나안땅과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상 가나안땅과 이스라엘에서 그 모형과 예표를 찾는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상 가나안땅과 이스라엘은 하늘 가나안땅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형과 예표에 불과하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삼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이 처음 ‘그 희망’을 품었던 가나안땅과 나라가 하늘 가나안땅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형과 예표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올람 하바’(Olam Ha-Ba)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에서 “장차 올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이다. 그러나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이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크게 다른 이해를 갖고 있다.

먼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빼앗긴 가나안땅과 문자적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과 명예를 오롯이 되찾아 주기 위한, 곧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믿고 있다. 왕관과 사자는 메시아의 상징이다. 화살표는 조상 아브라함과 히브리인들이 밟고 밟았던 땅의 크기로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약속의 땅, 곧 장차 올 세계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계신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이 땅에 영원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곧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고 믿는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

유대교인들이 생각하고 믿는 ‘올람 하바’(Olam Ha-Ba)는 장차 예루살렘 시온성에 세워질 신정국가를 말한다. 유대교인들은 이 때 흠여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본향에 돌아오게 되고, 토라(Torah)와 성전중심의 유대교예배가 재건되며,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안식을 얻게 된다고 믿는다. 반면에 히브리서는 유대교인들의 ‘그 희망’을 기독교의 독특한 희망으로 재해석한다. 히브리서 이해의 핵심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실체와 그림자,’ 혹은 ‘원형과 모형’으로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이다. 유대교인들이 바라는 ‘그 희망’의 내용들은 땅의 것이고, 유한한 것이며, 일시적인 것이고,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한 것이며, 기독교인들의 희망은 하늘의 것이고, 무한한 것이며, 영원한 것이고, 장차올 좋은 것들의 실체와 원형임을 밝힌다. 이 땅에는 우리가 찾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것을 밝힌다. 이 땅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쟁취해야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밝힌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것을 바라볼 것인가, 유한한 것을 추

42 / 히브리서 이야기: 더 좋은 것

구할 것인가, 아니면 무한한 것을 추구할 것인가, 일시적인 것에 착념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에 착념할 것인가, 그림자와 모형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실체와 원형을 쫓을 것인가를 바르게 생각하고 선택할 것을 힘줘서 권면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의 ‘그 희망’을 이룰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부르지 않고 ‘모쉬아크’(Moshiach)라 부른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유대교인들의 메시아관을 왜곡시켰다고 믿기 때문이다.

‘모쉬아크’(Moshiach)

일반적으로 모쉬아크는 세상이 죄로 넘쳐서 그를 가장 필요로 하는 때나 세상이 심히 좋아져서 가장 합당한 때로 여겨지는 시기에 오시게 될 것이라고 믿어진다. 모쉬아크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킴으로써 정치적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스라엘에 한 정부를 세울 것이고, 그것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전 세계 정부의 중심에 세울 것이며,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성전예배를 다시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종교 법정 체계를 회복시킬 것이고, 나라 법으로써 유대교법을 세울 것이라고 믿는다.

이때의 세계를 유대문학에서 ‘올람 하바’(Olam Ha-Ba), 곧 다가올 세계라 부른다. 올람 하바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별이 그려진 나라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는 세계이며
(사 2:4),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유배되었던 나라들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며
(사 11:11-12, 렘 23:8,

30:3, 호 3:4-5), 희년법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고, 전 세계가 유대인의 하나님을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유대교를 유일하고 참된 종교로 인정하게 될 세계라는 것이다(사 2:3; 11:10; 미가 4:2-3; 스 14:9). 이 세계에서는 살인, 약탈, 경쟁과 질투는 사라질 것이고, 죄도 없어질 것이다(습 3:13). 희생제물은 성전에서 계속 드려질 것이나 제물들은 감사예물에 국한될 것이라고 믿는다.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물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유대민족에게는 출애굽사건에서 시작해서 모쉬아크 사건에서 완성되는 이스라엘 국가의 설립과 완성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다르다.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은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성도들이)가 성령의 능력가운데서 영적으로 시작되는 구원으로 출발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육적으로 완성되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 성령의 능력가운데서 영적으로 시작되는 구원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뤄지는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써 약속과 인침과 보증과 선취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을 또한 ‘칭의’라 부른다. 약속과 인침과 보증과 선취란 그리스도의 재림 시(時)에 완성될 육적 구원, 곧 성도들의 육체부활과 우주의 회복인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종말에 이뤄질 축복들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약속받고, 인침(도장) 받고, 보증(선수금) 받고, 맛보고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이미’ 이뤄진 영혼구원과 ‘아직’ 이루지 못한 육체구원을 말한다. 그리고 영혼구원을 실현된 혹은 시작된 종말이라고 말하고, 육체구원을 주의 재림 때에 실현될 미래종말이라고 말한다.

6. 장차 오실 존귀하신 자(1)(히 2:6-9)

예배에서의 시편(1)



토라(Torah Scroll)

오늘날에 제작되는 두루마리는 유대인들 그룹에 따라 각 단(칼럼)이 42줄(48-56cm) 혹은 51줄(56-60cm)로 작성된다. 아슈케나지 토라는 42줄에 48-50cm, 세파르딕 토라는 42줄에 56cm, 예멘인들의 토라는 51줄에 56-60cm로 작성된다.

히브리서 2장 6-8절은 시편 8편 4-6절을 인용한 것이다. 저자가 이 시의 저자명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말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편은 히브리어 성서의 성문서(Ketuvim) 가운데 첫 번째에 배열된 다섯 권의 찬양시집이었다. 그러나 당대에는 책의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고, 띄어쓰기나 모음도 없었다. 따라서 저자는 이 시편의 출처를 정확히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 당대에는 책이 손으로 필사한 두루마리 형태였고, 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피가 크고 무겁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값이 비쌌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저자가 출처도 모르고 갖고 있지도 않은 책의 구절들을 어

떻게 알고 있었는가? 저자가 이들 성구를 암기하고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대인들은 성전예배와 회당기도회 때는 물론이고 일상에서 겪는 희로애락을 표현하고자 할 때 시편을 낭송해왔다. 그 흔적이 ‘시두르’(siddur, ‘순서’)라 불리는 기도서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 ‘시두르’에 매일 낭송해야하는 ‘쉐마,’ ‘쉐모네 에스레이’ 등의 베라코트(“복 받으시옵소서”로 시작되는 기도문들)가 실려 있는데, 시편 전체나 선별된 시편구절들도 담겨있다.

둘째, 시편은 성전예배 때에 불렀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미문 안쪽 성전영내의 여성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로 오르는 15계단을 오를 때 혹은 그 계단에 도열한 찬양대가 부른 노래)인 시편 120-134편이 대표적이다.

셋째, 아침기도회(Shacharit) 때 ‘페수케이 드지므라’(Pesukei d’Zimra, ‘노래 구절들’)란 이름으로 시편들과 시편에서 선별된 구절들이 낭송된다. 매일의 아침기도회 끝에는 ‘아쉬레이’(Ashrei, 시편 145편)가 낭송되며, 안식일과 축일 아침기도회 직후에 바치는 추가 의식인 ‘무사프’(Musaf) 끝에는 시편들과 찬양들이 낭송된다.

넷째, 금요일 저녁기도회(Kabbalat Shabbat)는 찬양(예: Lecha Dodi)과 시편과 베라코트로 시작되는데, 이때 시편 95-99, 29, 92-93편이 낭송된다.

예배에서의 시편(2)

다섯째, 안식일 기도회 때 토라읽기를 위해 법궤에서 토라두루마리를 꺼낸 후 회중석을 도는 행진이 있는데 이때 시편 34편과 99편의 구절들이 낭송되고, 토라읽기를 마친 후 토라를 법궤로 가져갈 때 시편 29편이 낭송된다.

여섯째, 안식일과 축일 때 식사 후 베라카(Birkat Hamazon, 음식의 축복)를 낭송하기 전에 시편 126편을 낭송하고, 평일에는 시편 137편을 낭송한다. 특히 축일 때는 할렐(Hallel)을 구성하는 시편 113-118(136)편이 낭송된다.



랍비 가말리엘에게 조언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일곱째, 탈무드는 시편이 주 단위로 나뉘어져 성전에서 읽혔다고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우크라이나 출신 유대인, 벤 엘리에제르(1700~1760)에 의해서 시작된 하시딤 유대인들은 시편을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통독한다.

여덟째, 유대인들은 고통당할 때, 병들었을 때, 위안과 영감을 받

는 원천으로써 시편을 낭송한다. 놀림과 궁핍을 당할 때 시편 12편이 낭송되고, 마음이 상하여 근심에 쌓일 때 시편 102편이 낭송된다. 반대로 창조세계에 대한 기쁨과 경이로움을 표현하고자 할 때 시편 8편과 19편이 낭송된다.

아홉째, 쌍둥이 서신으로 알려진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은 초기 그리스도교 예배 때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불렸음을 보여준다. 에베소서 5장 19절은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하였고,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다. 특히 에베소서 5장 19절에 담긴 “서로 화답하며”는 초기 그리스도교 예배 때 시편이 낭송되거나 교독되었음을 보여준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란 구절은 유대인들이 회당기도회 때 읽었던 성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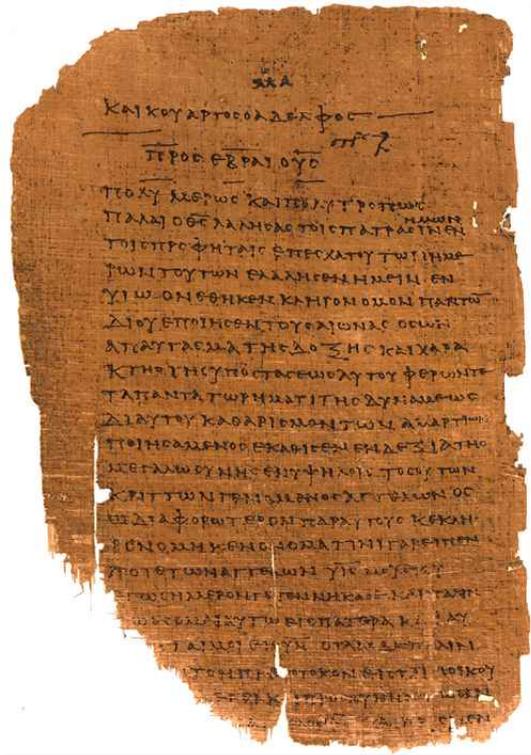
찬양했던 시편에 잇대어져 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54개로 쪼개 읽었던 ‘토라’(Torah)와 ‘하프타라’(Haftarah)를 말한다. ‘토라’는 모세오경을, ‘하프타라’에는 역대기서가 제외된 역사서들과 예언서들이 포함된다. 주 3회 곧 안식일, 월요일, 목요일 아침기도회 때 읽히는 토라는 54개로 쪼개져 일 년에 한 차례 완독되지만, 하프타라는 해당 주 요일에 읽히는 토라와 관련이 있는 선별된 구절들만 읽힌다.

장차 오실 존귀하신 자

예수님께서 토라와 하프타라와 함께 시편까지 언급하셨던 것은 유대인들이 성전예배와 회당기도회 때 시편을 낭송했기 때문이고, 유대인들은 구약성서 전체는 아니었더라도 적어도 매주 읽는 토라

와 하프타라 및 기도회와 축일 때 부른 시편들만큼은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누가복음에 시편까지 언급된 것은 초기 그리스도교 예배 때 시편이 불렀던 정황이 반영된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8편 4-6절에 언급된 “인자”(사람의 아들)를 예수 그리스도님과 동일시하였고, 그리스도님에 관한 예언으로 보았다. 히브리서 2장 6-7절에서 저자는 “주께서... 그를 잠시



헬라어 히브리서 첫 장 본문
파디투스 코덱스 p46, 주후 200년경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는 존귀하신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또 7절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굴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삼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표현한 것이다. 또 8절에서 “만물을 그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다. 보좌는 왕좌요, 왕좌는 통치의 상징이다. 여기서 “만물을 그 발아래에”라고 한 것은 일개 왕은 일국을 다스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세계 만물을 지으시고 만국을 통치하시는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서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는 세상이 여전히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이동하는 여정에 있기 때문이다. 음부의 권세와 빛의 권세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여전히 있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저자는 9절에서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면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고, 어둠의 세계가 사라지며, 빛의 권세가 통치하는 찬란한 빛의 세계가 펼쳐질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님께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 것과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이 “죽음을 맛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빛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것이다.

7. 장차 오실 존귀하신 자(2)(히 2:10-18)

“독생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모든 수고를 끝낸 헤라클레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그림
(Sebastiano conca, 1680-1764, 이탈리아인 화가)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뵈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236장)”
이 설명하였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런 배경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예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10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시고 소유하신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사람이 으뜸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다. 그들은 육신을 입고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법칙에 따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겪는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광으로” 곧 영광의 나라 하늘 가나안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곧 “많은 아들들”의 참 구주가 되시고, “많은 아들들”의 맏아들이 되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고, 사람처럼 육신을 입게 하셨으며,

사람이 겪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사이를 화목하게 할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서는 합당하고 옳은 방법이었다.

둘째, 11절, 완전한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되어 “많은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 곧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피로써 속죄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한 분” 하나님한테서 “나왔으므로 그분” 곧 예수님은 “그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in very nature of God/ in form of God, 빌 2:6)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는 삼위일체신앙으로 발전시켰고, 성자께서는 “하나님과 동등 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빌 2:6-8)라는 “독생하신 하나님” 수난설을 발전시켰다(요 1:18).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교는 이 삼위일체신앙을 기반으로 존귀하시고 존엄하신 유일신 하나님을 ‘아버지’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예수님의 ‘두 아들의 아버지의 비유’에서 성실하고 착한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혹은 유일신 사상과 선민사상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을 말한 것이고, 가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은 예수님과 교제했던 죄인과 세리들 혹은 이방인들을 말한 것이다. 죄인과 세리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은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산 자식이요, 잃었다가 다시 얻는 자식과 같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온 먼저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고 불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먼저 믿는 자들에게 이제 겨우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믿음의 동생들로 인해서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겠는가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 것이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형제가 되는 이유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 살자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의 아버지의 비유’였다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라고 선언하신 요한복음 20장 15-18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토록 사랑이 많고 좋으신 하나님, 죄인과 세리들의 회개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외아들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롬 8:15) 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마 6:9)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외아들’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과 히브리서 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아들’로, 요한일서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언급하고 있다. ‘외아들’과 ‘말아들’의 차이는 크다. ‘외아들’은 아들이 한 명뿐이란 뜻이고, ‘말아들’은 아들이 ‘여럿’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개 같은 인생’이란 표현을 썼는데, ‘개 같은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큰 은혜를 아무나 입는 것은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하나님이 죽을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은 탕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용과 사랑 때문인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일신사상과 선민사상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기를 바랐던 것이다.

셋째, 12절,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

끄러워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겠다”(시 22:22)고 하셨고, 13절, “내가 그분(하나님)을 의지하겠다”(사 8:17)고 하셨으며, “보아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사 8:18) 라고 하셨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22편 22절과 이사야 8장 17-18절을 인용하면서 이 글의 주어를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으로 취하였다. 이는 초기 그리스도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오실 자로 예언된 그리스도로 이해함에 있어서 구약성서를 유대인처럼 문자적으로 취하지 않고 영적으로 취하였다는 증거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입증하기 위해 사복음서에 소개된 구약성서의 구절들도 이 점에 있어서 마찬가지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 세계의 구약성서구절들을 그리스도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로 불러 자신과 동일시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써 제시하였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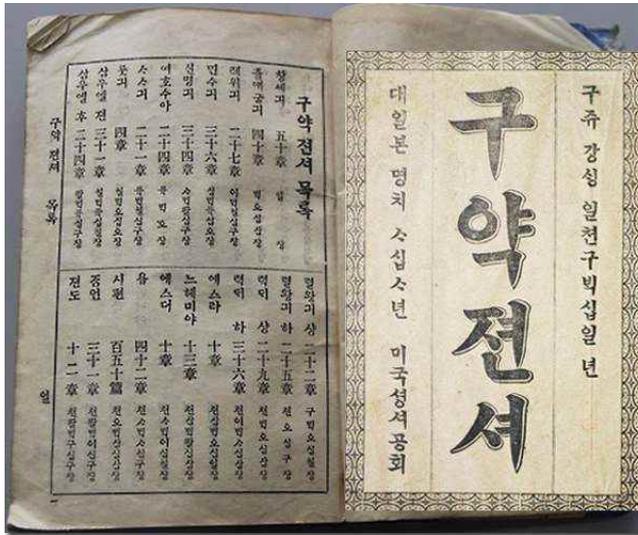
넷째, 14절,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람은 “혈과 육” 곧 피와 살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혈과 육 또는 피와 살은 자연법칙에 따라 쇠락한 후에 사망한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셨는가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죽을 운명을 타고난 사람을 대신할 그리스도가 죽음을 경험할 혈과 육 곧 피와 살에 속해야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죽을 운명을 타고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망시켜야했기 때문이다. 마귀는 비록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가졌지만,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수가 결코 되지 못한다. 그가 가진 권세는 하나님이 정한 스케줄 안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된 것에 불과하다. 그 시한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귀의 권세 아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7-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섯째, 15-16절,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문자적으로 유대인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하였다.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와 예표로 보았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의미적으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결론으로 17-18절에서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8. 안식(가나안땅)에 들어가는 길(히 3:1-6)

아들과 종들의 계시등급의 차이



최초의 한글 <구약전서>(1911년 발행)
일본 도쿄하마의 후쿠인(복음) 인쇄회사에서 인쇄되었으며,
대영성서공회와 미국성서공회가 각각 1만부씩 나눠 발행하였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어떤 선지자나 모세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것이고, 그들에게 율법(토라)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대언자(계시자)라고 말한다. 히

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과 구약시대의 인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아들과 종들의 관계로 말한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와 하나님과 종들의 관계가 크게 다르듯이 아들과 종들의 신분은 크게 다르다. 여기서 아들과 종들은 하나님의 대언자의 등급 또는 계시자의 등급과 관련되어 있다. 모세가 다른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것은 그 선지자들이 모세가 전한 율법(토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 율법의 해석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천사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것은 모세가 천사로부터 율법(토라)을 전달받았기 때문이다(히 2:2, 행 7:38, 53, 갈 3:19, 비교: 출 23:20, 32:2). 그러므로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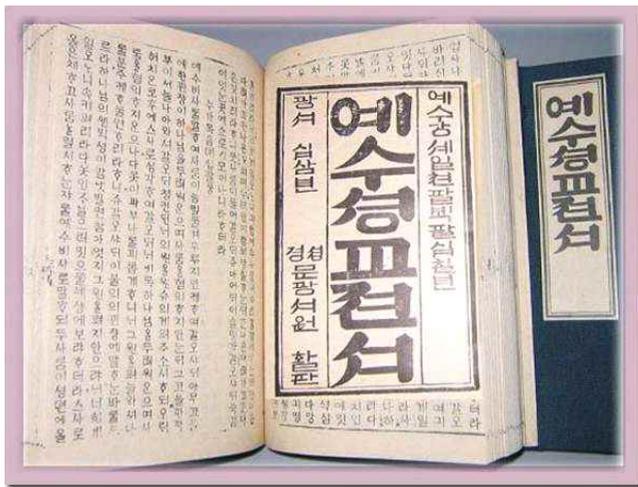
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대언자는 모세요, 모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대언자는 천사라는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된 율법이 모세오경에, 선지자들과 역사가들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염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 글들이 예언서들과 역사서들이다. 그리고 그밖에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글들이 성문서들이다. 여기까지가 구약성서이다. 그러므로 구약성서의 계시등급은 천사와 모세와 선지자의 등급에 머문다.

히브리서 저자는 “옛 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히 1:1-2)로 시작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와 하나님이 “옛 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계시등급의 차이를 강조한 것이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계시등급의 차이

하나님이 “옛 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은 구약성서에 담겨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은 신약성서에 담겨 있다. 구약성서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문서 곧 천사가 모세에게 전달한 율법과 그 율법을 성찰하고 해석한 예언서들과 역사서들 및 성문서들이 담겨있고, 신약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문서 곧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전한 문서들이 담겨 있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는 모두 하나님의 대언자들 또는 계시자들이 전달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대언의 등급 또는 계시의 등급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뿐 아니라, 신약성서 전반에서 아들과 종과의 관계가 언급된 이유이다.

단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주장을



로스역본(Ross version) <예수교전서>(1887년 발행)
 본서는 스코틀랜드인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와 존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그리고 한국인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서성룡, 이성하, 이익세 등이 번역에 참여하여 1887년에 만주 성경(현재의 심양)의 문광서원에서 발행한 최초의 한글신약전서이다.

당연히 허무맹랑한 거짓이라며 일축한다. 그러나 삼위일체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하나님은 물론이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설사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논리적이고 지나

치게 신비스런 주장처럼 여겨질는지 몰라도, 삼위일체설은 태양에 광선과 빛과 열이 있는 것에 비교된다. 야훼 하나님을 태양에 비교한다면, 성부는 광선이요, 성자는 빛이요, 성령은 열에 비교된다. 비록 광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장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다. 프리즘을 통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일곱 가지 색깔의 가시광선이 있는가하면, 여전히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우주선, 감마선, 엑스선, 자외선, 적외선, 초단파(마이크로파), 전파(라디오파)와 같은 불가시광선이 있다. 여기서 유일신 야훼 하나님은 태양에 비교되고, 삼위일체설에서 성부는 광선에, 성자는 반사 빛에, 성령은 굴절 열에 비교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깨달아 알도록 드러내 보여주는 계시는 반사 빛에 비교된다.

신약교회로의 환원

빛에도 태양빛이 있는가하면, 달빛이 있고, 별빛도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말



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에서 모인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신약교회로의 환원'이란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단상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분은 이신 목사(박사)이다.

씀이 담긴 신약성서는 태양 빛에,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와 모세 및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담긴 구약성서는 달빛에 비교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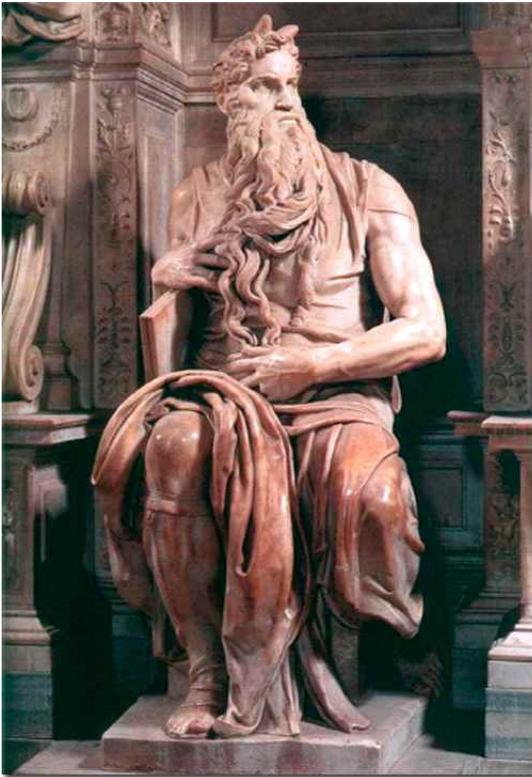
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하였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깊은 것”뿐 아니라, “사탄의 깊은 것”(계 2:24)까지도 통달하신 분이시다. 이처럼 아들과 종들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처럼 근원적인 차이가 있고, 신구약성경 66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약성서 저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신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계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참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참 진리,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참 구원에 있어서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등급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히브리서 3장 3절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시다”고 하였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3장 5-6절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고 하였다. 아들은 아버지

의 하는 일을 다 알지만,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섬긴 것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써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하고, 사도들이 교회에 남긴 신약성서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전하고, 모세가 유대교에 남긴 구약성서가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계시등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한국 최초의 신학자였던 최병헌(崔炳憲, 1858-1927)이 쓴 <성산유람기>(聖山遊覽記)라는 글에서 원각대사(圓覺大師)에게 이런 말을 한다. “거친 음식과 풀죽(蔬食菜粥)과 기름지고 맛난 음식(膏糧玉食)이 다 같이 음식이로되 귀천(貴賤)과 미악(美惡)이 있나니, 옥식(玉食)을 만나지 못하여서는 초식(草食)을 먹으려니와 옥식(玉食)을 보고도 의심하며 먹지 아니하면 실로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 없는 일이라”(〈신학월보〉 230쪽). 하나님의 백성이 옥식인 신약성서에 기초한 그리스도교를 만나지 못하여 초식인 구약성서에 기초한 유대교를 믿었지만, 옥식인 그리스도교를 보고도 의심하며 믿지 아니하면 실로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 없는 일이라는 것이 신약성서 저자들의 주장이다.

9. 안식(가나안땅)에 들어가는 길(2)(히 3:7-11)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



미켈란젤로의 모세상
(1513-1516년, 산 피에트로 인 빈콜리 성당, 로마)

3장 1절에서 “대제사장”은 2장 17절에 이어 두 번째 나온 말이다. 저자는 2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다. 또 3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에게 생각을 고정하라고 권면하였다. 이 권면은 특히 유대인들을 향한 것으로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첫 번째 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이었다. 저자는 이제 모세에게 향했던 그 같은 생각을 예수님으로 바꾸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예수님은, 마치 모세가 호렘산에서 자신을 불러 임무를 주신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던 것처럼, 자신을 불러 그리스도와 구세주

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스러웠기 때문이다(2절).

둘째, 예수님은 세상이란 집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다(3-4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비교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셋째, 예수님과 모세와의 차이는 마치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와 하나님의 집을 치리하는 아들의 차이와 같기 때문이다(5-6절).

넷째, 우리가 “희망”(Ha-Tikvah)에 대해 확신과 긍지를 굳게 지니고 있는 한 “우리는 그의 집(교회)이다.” 여기서 희망은 유대인들이 이 지상 가나안땅에 갖는 희망, 곧 다윗의 나라 또는 이스라엘나라의 회복과 영구성에 대한 역대기적 희망에 대조되는 하늘 가나안땅에 대한 희망, 곧 그리스도의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구성에 대한 희망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모세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는 출애굽기 7장 1절을 상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거짓 신 바로의 신성 참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지, 모세에게 신성을 부여하셨다는 뜻은 아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셨다(요 1:14, 18).

이집트 탈출 1세대 히브리인들의 불순종

모세오경은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의 떠돌이 역사를 말해준다. 창세기가 인류의 원역사(1-11장)와 떠돌이 족장들(12-36장)과 요셉 이야기(37-50장)라면, 출애굽기는 히브리 노예들의 이집트 탈출(1-18장)과 시내산 언약(19-24장) 및 성막건축(25-40장)에 관한 글이다. 레위기는 레위인 제사장들의 관심사인 제사(1-7장), 제사장(8-10장), 정결법(11-16장) 및 성결법전(17-27장)에 관한 글이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집트를 탈출한 1세대 히브리인들의 인구조



히브리인들이 가나안땅에 정착할 무렵의 바알 신상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알렙'(황소)과 '라메드'(지팡이)로
 이뤄졌고, '엘'은 바알의 아버지 신, 곧 'father-Bull'이다.

사와 행군으로 시작되며,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랑한 이유(1-25장)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로 이어

지는 글이다 (26-36장). 모

세오경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두 번째 밥'이란 뜻으로써 출애굽기 19-24장에 기록된 시내산 율법을 여러 방식으로 반복한다. 율법을 받은 지 40년이 되자 이집트에서 탈출한 1세대 히브리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두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히브리인들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평지에서 가나안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로부터 긴 설교를 듣는다. 신명기는 모세가 2세대 히브리인들에게 광야에서 죽은 아버지 세대처럼 불순종하지 말 것을 권면한 이 설교를 담고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교 복음에서 떠난 유대인들을 이집트 탈출 1세대에 비교한다. 이집트 탈출 1세대는 인구조사를 끝내고 가나안땅을 향한 야심찬 광야행진을 시작하지만, 점차 정치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대항한다(민 12,16,17장). 백성도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자주 재앙을 만나 죽는다(민 11,21장). 결정적으로는 가나안땅을 정탐한 열두 부족의 대표들 가운데 열 명의 부족장들이 막강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며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이 불신에 백성이 가담함으로써 1세대 히브리인들은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민 13-14장),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2세대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가나안땅에 들어간다. 또 모세와 아론은 신 광야 가데스 트리바(혹은 맛사)에 이

62 / 히브리서 이야기: 더 좋은 것

르러 반석에서 물을 내는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지 않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겠느냐?”라고 말하고,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두 번 쳐 물을 냈으로써, 심지어 아론은 물론 모세조차도,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민 20장). 행군 마지막 단계에서는 히브리인 이만 사천 명이 죽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민 25장). 이는 발람의 유혹에 빠진 히브리인들이 브올(Peol)산의 바알신전에서 모압 여자와 함께 바알에게 절하고 먹고 마시고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민 31:16). 여기까지가 이집트를 탈출한 1세대 히브리인들이 저지른 악행이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히브리인들의 가나안땅 진군

민수기 26-36장은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가나안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2세대 히브리인들의 이야기이다. 이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고(31장) 모압평지에서 가나안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다. 히브리서 저자는 박해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교 믿음을 지킨 유대인들을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곧 가나안땅에 들어갈 준비를 갖춘 히브리인들에 비교한다.

히브리서 3장 7-11절은 시편 95편 7-11절의 인용이다. 유대인



들은 금요일 저녁 기도회(Kabbalat Shabbat) 때 시편 95-99, 29, 92-93편을 낭송하는데 시편 95편은 그것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두 곳의 말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히브리인들이 예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행군 모습

은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므리바 물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신 광야 가데스 므리바(혹은 맛사)에서 히브리인들은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에워싸고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고 하였다. 민수기 20장 13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므리바 물이라 하니라”고 적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심지어 아론은 물론 모세조차도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모세와 아론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지 않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겠느냐?”라고 말하고,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두 번 쳐 물을 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이집트를 탈출한 1세대 히브리인들이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민수기 13-14장에 기록된 가나안땅을 정탐한 열두 부족의 대표들 가운데 열 명의 부족장들이 막강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며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이 불신에 백성이 가담한 사건 때문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오경의 핵심 강조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에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하지 아니한 것이 유대인들이 떠돌이와 노예로 살고 있는 이유이고, 반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만이 민족이 떠돌이와 노예의 처지에서 해방되어 안식(가나안땅)에 들어가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0. 안식(가나안땅)에 들어가는 길(3)(히 3:12-19)

위기 때에 저술된 성경



마르크 샤갈의 떠돌이 유대인(1923-1925년)
스위스 제네바의 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가나안땅에 대한 희망(Ha-Tikvah)을 품은 이후 대략 3천 8백년의 세월 가운데 4분의 3가량을 떠돌이와 노예처럼 살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명 부끄러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떠돌이와 노예였다”고 말한다. 인류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유대인 엘리트들은 그들의 경전에서 그 이유를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했는가? 그들의 진단과 처방은 그들의 삶의 치유에 과연 효능이 있었는

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성경의 대부분은 안팎에서 야기된 위기 때에 진단과 처방을 내린 권면의 글이다. 모세오경에 자주 쓰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나 사복음서에 쓰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대표적인 권면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이 역사가든 예언자들이든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한 믿음과 인내를 요구

한다.

비록 우리 자신은 문서설을 수용하지 않을지라도, 비평가들이 말하는 문서들(JEDP)이 만들어진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들 문서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위기와 그 위기극복에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야훼(J)문서는 통일 이스라엘의 정점과 왕국분열로 이어진 다윗과 솔로몬 시대(1100-930 BC)에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 및 왕국분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진다. 엘로힘(E)문서는 야훼신앙의 말살을 획책했던 아합과 이세벨 정권에 맞서 싸운 엘리야, 엘리사, 예후 시대(주전 800년대)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진다. 야훼신앙이 모세시대이후 이스라엘에서 때로는 한강처럼 당당히 때로는 지하수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것이 사실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단과 벧엘 성소들에 황금 송아지를 세운이후 주전 722년 멸망 때까지 200여 년간 황금 송아지를 야훼로 인식하고 숭배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훼신앙이 오늘날의 유대교에서처럼 항상 명확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엘’(하나님)이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송아지, 힘)과 라메드(지팡이, 권위)로 이뤄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 팔레스타인의 아버지 신(father-god) ‘엘’과 “나는 있는 나다”라고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시고 히브리노예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야훼와 자주 혼합되어 사용되었다. 그것은 마치 알렉산드로스 이후 헬라시대에 그리스의 제우스(번개)와 이집트의 아몬(산양) 신이 혼합되어 사용된 것과 같다. 신명기(D)문서는 요시아시대(640-609 BC)의 종교개혁과 제국 앗시리아의 쇠퇴와 이집트의 북진 및 신흥 바벨론의 등장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을 치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기에 유다왕국은 강풍 앞에 등불처럼 꺼지기 일보 직전이였다. 그리고 제사장(P)문서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430-397 BC) 곧 바벨론 유배이후 고토에 돌아온 사람들이 안팎의 위기와 싸우면서, 비록 페르시아의 속주에 불과했지만, 나라를 세워나가던 힘든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진다.

위기 진단과 처방으로써의 성경



이스라엘 라기스(Lachish) 성읍의 유대인들이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는 행렬을 새긴 부조. 니브에 남서궁전에 있었던 것으로서 대영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성읍으로서 주전 701년 히스기야왕 때 아수르의 왕 산헤립(센나케리브)에 의해 멸망되었다. 곱슬머리에 수염을 기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성서학자들은 모세오경과 구약 역사서들이 최종적으로는 바벨론유배기(예: 열왕기서)와 느헤미야와 에스라시대(예: 역대기서)에 완성되었다고 본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왜 모세

오경과 구약의 역사서들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구절이 많은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마치 초기 그리스도교 박해시대에 기록된 복음서들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구절이 왜 필요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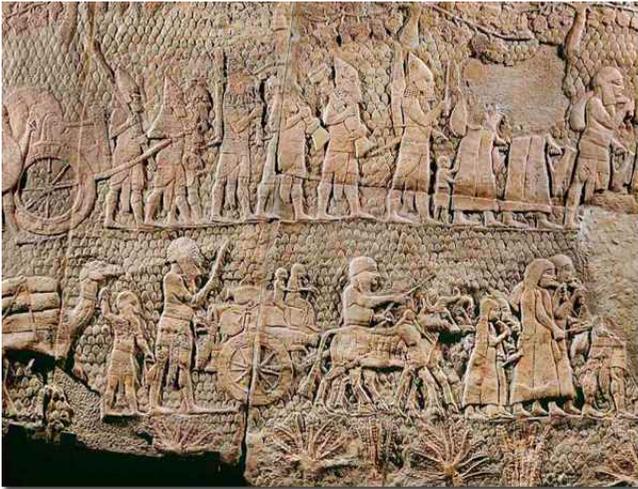
모세오경과 구약역사서들의 저술 또는 최종편집을 주도한 바벨론 유배기 또는 유배이후시대의 유대인 엘리트들이 이스라엘이 과거에 겪었거나 또는 현재에 겪고 있는 비극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렸는지를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성구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이다. 또 대표적인 표현에는 “여호와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혹은 “여호와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명령하신 것”, “여호와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 “여호와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가 있다. 이 어구는 번역서에 따라서는 최고 133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되었고, 창세기에 5

번, 출애굽기에 34번, 레위기에 16번, 민수기에 31번, 신명기에 20번, 여호수아서에 12번, 사사기에 1번, 사무엘상에 1번, 사무엘하에 3번, 열왕기상에 3번, 열왕기하에 3번, 역대기상에 4번 쓰였다. 물론 이 숫자는 히브리어원전에 쓰인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토라준수에 집착하는지, 그토록 오랜 기간, 그토록 엄청난 시련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지 않고, 주후 70년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영토가 사라진지, 무려 1878년 만인 1948년에 고토에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

그 같은 맥락에서 모세오경과 구약역사서들의 저술 또는 최종편집을 주도한 바벨론 유배기 또는 유배이후시대의 유대인 엘리트들이 불치병과 같았던 자기 민족사에 내린 종교적 진단과 처방이, 적어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민족의 불치병을 치유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오경과 구약역사서들의 저술 또는 최종편집을 주도한 바벨론 유배기 또는 유배이후시대의 유대인 엘리트들이 불치병과 같았던 자기 민족사에 내린 종교적 진단과 처방이 율법이 아닌 복음적 관점에서 또는 구약의 관점이 아닌 신약의 관점에서조차,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앓고 있는 불치병과 같은 병폐들을 치유하는데 효능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성경말씀대로

히브리서 3장 12-19절은 모세의 신명기 설교에서 그 모형을 찾을 수 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요단강 건너편 모압평지에서 출애굽이후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이 가나안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였다. 설교내용은 민수기에 기록된 대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바로의 학정에서 벗어났으나 불순종함으로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라기스(Lachish) 성읍의 유대인들이 유배 당하는 행렬을 새긴 너스웨 궁전의 벽 복조. 라기스는 주전 701년 히스기야왕 때 앗수르의 왕 산헤립(Sennacherib)의 침략으로 멸망 당하였다.

죽은 아버지세
대처럼 불순종
하지 말 것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실한 믿
음과 인내로써
말씀에 복종할
것을 당부하였
다. 동일한 맥
락에서 그리스
도인들은 음부
를 탈출하여
그 권세에서

벗어남으로써, 한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림자였던 유대교와 율법의 실체인 그리스도교와 복음으로 개종함으로써, 교회라는 광야를 거쳐 하늘 가나안땅에 들어가 안식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14절) 곧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장차 올 세계 곧 하늘 가나안땅을 약속받고 인침 받고 선취(先取)한 바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14절),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세대 히브리인들이 끝내 가나안땅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하늘 가나안땅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성경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혹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지 않으면, 이집트를 탈출하여 바로의 학정에서 벗어났으나 불순종함으로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집트세대 히브리인들처럼 하늘 가나안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을 경고한 말씀이다.

II. 안식(가나안땅)에 들어가는 길(4)(히 4:1-13)

고대근동에서의 ‘안식’

BABYLONIA CREATION TABLETS



Called the “**Enuma Elish**” tablets which means “**When above**”

‘안식’이란 단어 ‘카타파우시스’(katapausis)가 히브리서 3-4장에 집중적으로 나온다. 우리에게 ‘안식’은 ‘쉼’을 뜻하지만, 고대근동에서는 그 의미가 사뭇 달랐다.

바벨론의 창조신화가 담긴 <에누마 엘리쉬> 토판(주전 18세기경) 고대근동에서의 안식은 신들과 신성을 주장하는 왕들에게 국한되었다. 1849년 오스틴 헨리 레야드 경(Sir Austen Henry Layard)이 발견한 주전 18세기경의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 토판은 창조신 마르두크(Marduk)가 사람을 만든 목적을 “신들의 노역을 감당시키고, 신들로 하여금 안식을 취하게” 하려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고고학자 호르무즈 라쌌(Hormuzd Rassam)이 1882년 바그다드 남서쪽 30킬로미터 지점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발견한 주전 6세기 신 바빌로니아시대의 토판은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신들이 기쁜 마음으로 기거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토판들이 말하는 신들은 누구인가? 신의 환생, 신의 현현, 신의 아들이라며 신성을 주장한 왕들이었을 것이다.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이들 신들과 왕들을 위한 존재로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고대근동에서의 안식은 신들과 왕들의 것이었고, 백성들은 그들의 노예였을 것이다.

고대근동 신화들에 따르면, 태초에 혼돈 속에 있던 담수를 다스리는 ‘아프수’(Apsu=Qingu)와 바다의 잔물을 다스리는 ‘티아마트’(Tiamat) 사이에서 ‘라흐무’(Lahmu), ‘라하무’(Lahamu), ‘안샤르’(Anshar) 등의 신들이 탄생하고, 이 신들이 다시 자신들을 낳은 자식들을 낳는 과정에서 훗날 신들의 왕이 된 ‘마르두크’(Marduk)가 태어난다. 마르두크는 태양신이자 폭풍신이며 바벨론의 수호신이다. 이후 자신의 뱃속을 폭풍으로 어지럽게 하는 마르두크를 멸망시키려고 바다용 곧 혼돈(흑암)과 바닷물의 여신 티아마트가 폭풍신인 마르두크와 한판 크게 붙는다. 이 싸움에서 이긴 마르두크는 티아마트의 시체를 둘로 쪼개어 하늘과 땅을 만들고, 티아마트의 자식이자 배우자였던 키클(Qingu=Apsu)의 피를 흠에 섞어 인간들을 빚어서 신들이 담당했던 노역을 인간들이 대신하게 함으로써 신들에게 안식을 주었다고 한다. 또 마르두크는 인간들로 하여금 신들의 거처로 바빌론을 건설하게 하였다. 바빌론 왕은 태양신인 마르두크의 현신(계시)으로서 마르두크 신앙의 수호자였다. 이로써 인간은 왕의 노동자로서 안식을 취할 수 없고, 악신의 피로 선신이 만든, 선과 악을 함께 물려받은 존재라는 것이 바빌론 신화에 담긴 세계관이자 인간관이다.

성서에서의 ‘안식’

유대교의 중심 주제는 안식이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의 장소는 가나안땅이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에 걸쳐 떠돌이와 노예로 살았던 민족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땅은 기나긴 떠돌이와 노예의 삶을 끝내고 취할 안식의 땅이었다. 유대인들이 매우 엄격히 지키는 제칠 안식일도 안식의 땅을 다시 빼앗기지 않거나 복구시키려는 그들의 강력한 의지와 관련되어 있고, 하루 세 번하는 기도회들도 그 같은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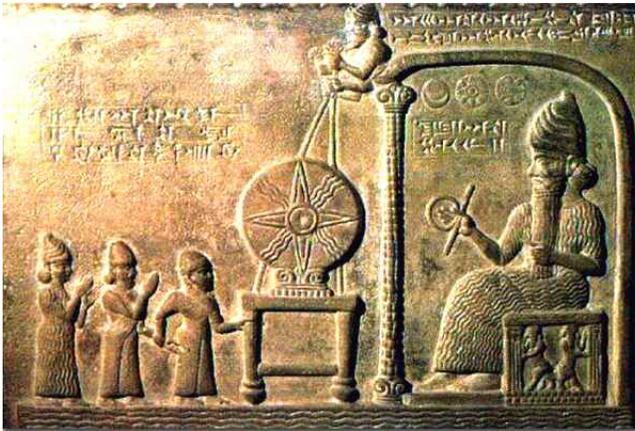


태양신이자 신들의 왕이며 바람(폭풍)의 신이자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두크(Marduk)가 혼돈(흑암)과 바다의 여신이자 바다의 용인 티아마트(Tiamat)를 버락으로 공격하는 바벨론의 부조(대영 박물관 소장). 마르두크는 티아마트를 죽인 후 반으로 잘게어 하늘과 땅을 만들고, 티아마트의 자식이자 배우자였던 킨구(Kingu)의 피를 흘려 섞어 인간을 빚어 신들이 담당했던 노역을 인간들이 대신하게 함으로써 신들에게 안식을 주었다. 바벨론 왕은 빛의 신인 마르두크의 현현(계시)으로서 마르두크 신앙의 수호자였다. 이로써 인간은 빛의 왕의 노동자로서 안식이 없고, 악신의 피로 선신이 만든, 선과 악을 함께 물려 받은 존재라는 것이 바벨론 신화에 담긴 세계관과 인간관이다.

개념은 지나치게 민족적이고, 배타적이며, 땅 중심적이다. 또 그것은 지나치게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다. 유대인들의 민족적이고, 배타적이며, 영토 중심적인 이 안식개념을 우주적이고 탈민족적인 포용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이 그리스도교이다. 유대인들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안식개념을 내세적이고 영적인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은 지상 가나안땅에서의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땅에서 누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쉼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교는 육체노동을 마치고 잠시 쉬는 일시적인 유대교적 안식개념을 버리고, 무덤(흑암, 혼돈, 죽음)의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는 부활정신, 부활신앙, 부활의 삶을 안식의 개념으로 취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노동으로부터의 쉼을 강조하는 제칠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지키고 있다. 제칠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일요일 안식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진정한 쉼을 주는 참 안식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안식은 ‘일하지 않는다.’는 육체의 쉼보다는 ‘참 평안을 누린다.’ ‘해방을 만끽한다.’ ‘자유를 누린다.’와 같은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쉼을 의미한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신전 보좌에 앉은 태양신 사마쉬(Shamash) 앞에 바벨론의 왕 나부압라이다나(Nabu-apla-iddina, 888-855 BC)가 신성의 상징인 홀과 링을 수여받으려고 서 있는(중앙) 모습이 복조된 석판(시파르, 대영박물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인간이 신들을 쉬게 할 목적으로 노동에 종사하는 존재로 설명되고 있어서 성서의 가르침과 크게 대조를 이룬다.

히브리서 4장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교훈이다. 1-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는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까지 건넌으나 광야 행군 때에 야훼께 대한 믿음을 배반하고 불순종을 일삼다가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집트 세대 히브리인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다. 이집트는 세상을, 홍해도하는 침례를, 광야생활은 교회생활을, 안식은 하늘 가나안땅의 그림자와 모형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의 아들로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여 침례를 받고 하늘 가나안땅의 시민권을 약속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이집트 세대 히브리인들처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배반하거나 불순종을 일삼는다면, 하늘 가나안땅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가 되니, 하늘 가나안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신실한 믿음과 인내로써 행군하라는 충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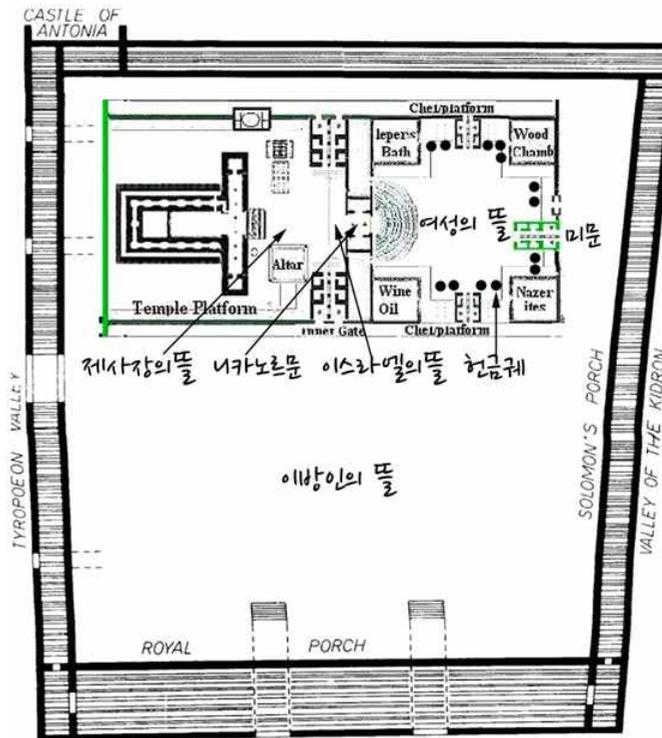
3절 앞부분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데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 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는 끝까지 신실한 믿음과 인내로써 행군한 그리스도인들은 약속받은 대로 “저 안식” 곧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시되지만, 야훼께 대한 믿음을 배반하고 불순종을 일삼다가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 집트 세대 히브리인들에서 보듯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배반하거나 불순종을 일삼는 자들은, 약속하신 이를 믿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하늘 가나안땅을 이미 창조 때 예비하셨으나 그곳에 들어갈 자격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는 신실한 믿음과 인내로써 행군을 마치느냐,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이다.

4-11절은 창세 이후 안식처가 마련되어 있지만, 탈락자들이 많아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으로써 로마서 11장 25-32절에 연결된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탈락함으로써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써 민족성별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자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지속된다는 뜻이다. 그곳은 세상수고를 마치고 안식하기에 최상이지만, 신실한 믿음과 인내로써 믿음의 여정을 끝낸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도 있으니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한다.”(10-11절)고 말씀한다.

그리고 12-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인과응보와 관련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른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예리하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실” 뿐 아니라, 그 누구한테도 농락당하지 않으시며,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한다.

12.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1)(히 4:14-16)

종교개혁운동



중세유럽에서 개인들은 그리스도님의 대리자임을 주장하는 사제들로 인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 그것은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한 곳에만 두고, 사제들이 장악한 채 민족

과 성별과 신분과 계급의 담, 곧 이방인의 뜰과 성전영내,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의 뜰, 이스라엘의 뜰과 제사장의 뜰을 담으로 분리, 또 성소와 지성소(법궤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대제사장만의 공간)를 휘장으로 분리함으로써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것과 같다.

그리고 14-16세기의 문예부흥운동과 16세기 종교개혁운동은 사제들로 인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던 개인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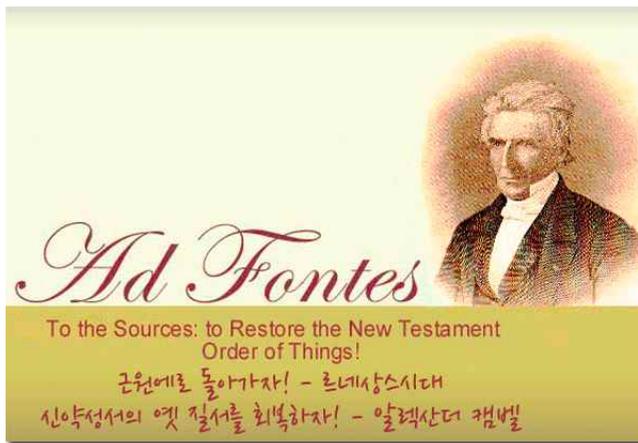
혹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대신한 교황과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개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운동이었다. 그것은 마치 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은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제들에게 눌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개인들에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히 10:19) 하였고, “공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히 4:16) 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히 10:22) “새로운 살 길”을(히 10:20) 열어 주었던 것과 같다.

문예부흥운동과 종교개혁운동은, 지동설을 주장하여 자연과학의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한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1473-1543)에서 보듯이, 사제로 대표되던 종교에서 인권(기본권)과 이성과 과학이 강조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야기했다. 그로 인한 부작용도 낳았다. 18세기에 이르러 초자연적인 기적들, 곧 계시, 기적, 예언, 동정녀 탄생, 부활, 승천 등을 부정하는 계몽주의와 자연신론이 나왔고, 19세기에는 무신론과 진화론이 대두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크게 도전을 받게 되었다.

신앙부흥운동

18-19세기는 계몽주의 사상가이자 자유주의 이론가였던 존 로크(1632-1704), 공리주의를 표방한 제러미 벤담(1748-1832), 이에 반기를 든 임마누엘 칸트(1724-1804), 신의 죽음을 선포한 프리드리히 니체(1844-1900), 이에 반기를 든 <죄와 벌(1866)>과 <카라마조프가(家)의 형제들(1880)>을 발표한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1821-1881), <자유론>을 쓴 자유지상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1806-1873) 등이 활동하였던 시대였다. 신의 죽음과 인간의 자유를 입에 올리던 무신론의 시대였다.

이 배도를 부분적으로 반전시킨 신앙부흥운동이 18-19세기에 북미에서 조지 휘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 등이 주도한 대각성운동이었다. 이 무렵 미국에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신대륙의 개척과



맞물려 ‘자유’ (정교분리)와 ‘유용(실용)성’을 화두로 한 천년왕국시대(후천년설)를 기대하고 있었다. 당시 유럽이 전통에 매어 있었다면, 신대륙에는 모

든 분야에서 자유가 물결치고 있었다. 동시대에 스톤-캠벨운동을 펼쳤던 선각자들은 기독교 본래의 순수성과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천년왕국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이 운동을 전령(Christian Messenger)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이 확신 속에서 천년왕국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를 자임하면서 개혁운동, 곧 신약성서교회회복운동 또는 사도전통회복운동을 펼쳤다.

신앙운동은 대개가 신조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 합리주의 등으로 분열한다. 큰 틀에서 보면, 그리스도교는 예수님 사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작된 ‘예슈아 메시아 운동’이었으나 유대교인들이 이들을 나사렛당(노쯔림, Notzrim)이라 폄하하고 배척함으로써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 오늘의 그리스도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로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거듭하였고,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신조를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로 인해서 325년 니케아신조를 시작으로 각종 신조들이 생산되었고, 지역교회들의 목양자와 감독들이었던 장로들이 사제로 둔갑되어 계급화되었다(부제=집사, 사제=장로, 주교=담임사제, 대주교=교구장, 추기경, 교황 혹은 보제, 사제, 주교, 대주교, 총대주교). 또 313년 박해시대가 끝나고 392년 국가종교시대를 맞이한

그리스도교는 금욕과 고행을 통한 개인 경건과 신비주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예배갱신운동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마찬가지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들은 연합보다는 진리와 순수성에 경도되어 교파별로 신조(교리)들을 쏟아내면서 자기 율타리를

견고히 하였다. 그리고 그 반작용으로 17세기에 이르러 신비주의 운동과 경건주의운동이 나타났다. 이와 거의 동시에 이성과 과학에 편향된 합리주의가 나타나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교단들에서 성서관을 중심으로 근본주의(축자영감설), 복음주의(개념영감설), 진보주의(신앙고백설)로 분열하였다. 더불어서 개신교 예배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과 정교회의 전통적인 예배순서의 틀에서 서서히 벗어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주의 만찬이 빠진 기도회 성격의 예배로 전락하였다.

예루살렘성전 멸망이후 고착된 유대교기도회에 주의 만찬을 첨가하여 성전예배의 의미를 살린 것이 초기 그리스도교 예배였다. 그리고 주의 만찬에 신비(성체신학, 화체설)를 추가한 것이 가톨릭 미사이고, 주의 만찬에서 그 신비를 빼버린 것이 개신교예배인데, 츠빙글리와 같은 개혁가들이 주의 만찬에서 신비(미신)만 뺀 것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예배내용 그 자체였던 주의 만찬을 연 2-4회로 줄임으로써 개신교예배를 기도회, 경건회, 사경회, 부흥회로 추락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 이후 많은 예배학자

들이 잘못된 이 개신교전통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하여 왔고, 여러 교단들에서 또는 개개의 교회들에서 매주일 또는 매월 1회씩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시도하고 있다.

기독교 본래의 순수성과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천년왕국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스톤-캠벨운동 곧 신약성서에 실린 옛 질서를 회복하려는 환원운동을 전령(Christian Messenger)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또 이 확신 속에서 자신들이 천년왕국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를 자임하면서 개혁운동 곧 신약성서교회회복운동 또는 사도전통회복운동을 펼쳤던 환원운동가들은 이미 19세기 초부터 매주일 말씀의 예배와 함께 간소화된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다.

환원운동가들은 교회가 지난 과거에 추가했거나 변개한 전통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신약성서의 가르침과 전통을 본래대로(ad fontes) 실천하기로 작정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1311년에 시작된 약식세례를 침수세례로 되돌렸고, 신조를 신약성서말씀에 국한시켰으며, 교회의 구성원을 ‘그리스도인’ 혹은 ‘제자’로, 이름을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 또는 ‘그리스도인의 교회’(Christian Church)로 정하였다.

13.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2)(히 5:1-14)

히브리서 저자의 두 번째 선포내용



히브리서는 선포(케뤼그마)와 교훈(디다케)을 반복하는 설교 형태의 논문이다.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첫 번째 선포인데, 저자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선포하였다. 특히 저자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였는데, 그분을 만유의 후사, 만

스핑크스 날개를 부조한 왕좌(므깃도)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 덮개 위에 두들겨 쳐서 만든 케루빔과 비교된다(골 25:18-22) 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는 분,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그 어떤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심을 선포하였다. 이어서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에서 기나긴 노예생활 끝에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 광야

로 탈출하는데 성공했던 이집트 세대 히브리인들이 무슨 잘못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희망했던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씩이나 광야를 떠돌다가 죽어 끝내 안식을 얻지 못하고 황무한 땅에 묻히게 되었는가를 상기시켰다. 이집트 세대 히브리인들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구세주 야훼 용사께 대한 믿음의 배신과 불순종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저자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조상 이집트 세대 히브리인들의 어리석은 불순종의 전철을 밟지 말고 영원한 하늘 가나안땅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믿음의 행군을 멈추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히브리서의 두 번째 선포(논문)인데, 저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선포는 첫 번째 선포만큼이나 유대인들이 받아드리기 어려운 파격적인 것이었다. 첫 번째 선포가 예수(예슈아)의 신성을 믿으라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 선포에서는 그가 “큰 대제사장”이신 것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저자는 예수님이 아론서열을 따라 지상 예루살렘성전을 섬긴 레위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서열을 따라 영원한 하늘 예루살렘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이다(5:6)고 선포하였다. 4장 14-16절은 이 선포의 전반부로서 구약시대에 백성을 위해서 매년 속죄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곧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큰 대제사장”이다(4:14)고 선포하였다.

“큰 대제사장”(The Great High Priest)

히브리서는 최우선적이고 일차적인 독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레위출신도 아니고, 성전을 섬긴 일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슈아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고 대제사장이 된단 말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이 점에 대해서 저자는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불완전한 것과 완전한 것에 대해서 당대에 유행한 모형론을 통해서 설명하였다.

기 아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5:8) 온전케 함으로써 구원의 창시자 곧 구원의 근원(5:9)인 그리스도로 삼으셨고, 하늘로 올리시어 당신의 보좌우편에 앉히셨으며, 만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 들어가게 하신다(2:10).

다섯째,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곧 하늘 예루살렘성전을 맡은 큰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3:6).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활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이 예수님이 하늘 예루살렘성전의 큰 대제사장으로 계시니, 처음 믿을 때 그분께 고백한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자(4:14)고 외친다.

영원한 큰 대제사장

히브리서는 본래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위한 글이었다.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은 가족과 친지와 유대교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고, 목숨까지 위협을 당했다. 점차 그들 마음속에 적잖은 회의와 자신들의 개종이 과연 그 같은 핍박을 감내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는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그들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았다. 그것은 마치 이집트 세대의 히브리인들이 가나안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약속만 믿고 이 끝없는 광야행군을 지속할 가치가 과연 있느냐는 의문에 빠졌던 것과 같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독특한 약속들이 있었다. 예루살렘성전 예배중심의 신정국가회복,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세계통합과 통치와 같은 희망(Ha-Tikvah)이 있었다. 저자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언급한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의 이런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같은 희망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야’가 그리스도요 하늘 예루살렘성전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그리스도교의 영적 가르침에 반기를 들었다.

대제사장(Kohen Gadol)의 예복(출 28장)



- 관(39절)
- 금패(36-38절)
- 건대(7-14절)
- 흉패(15-29절)
우림과 돌림
(30절)
- 띠(8절)
- 속옷(39절)
- 에봇(6-8절)
- 겹옷
(에봇반치)
(31-34절)
- 석류와 금방울
(33-35절)

여기에는 가치문제가 있다. 영적 가치가 세속적 가치보다 과연 큰가? 세속적 가치를 포기해도 좋을 만큼 영적 가치가 과연 대단한가? 이 물음에 대한 저자의 가치관은 분명했다. 땅의 것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다. 하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하고 완전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궁극적인 약속들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땅의 것들일 수 없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늘의 것들이었다. 따라서 저자는 유대인

들의 희망과 참 안식은 필연적으로 일시적이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 성전예배중심의 신정국가나 지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세계통합과 통치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아 영원하고 흔들림 없는 견고한 하늘 가나안땅에 들어가 참 안식을 얻는데 있다고 설파한다. 또 저자는 이 같은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교에 개종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유대인들에게, 배움의 시간으로 보면 그 같은 동족을 말려야할 자들인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할 자들이 되었고, 갓난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들이 되었다며 탄식한다. 이 탄식이 어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겠는가?

14.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3)(히 6:1-20)

성숙한 길로 나아가자.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까지는 두 번째 교훈으로써 “큰 대제사장”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초교리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께 나아가는 성숙한 길로 나아가자고 권면한다.

여기서 기초교리란 그리스도교 신앙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들을 말한다. 저자는 1-2절에서 그 같은 것들이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침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한다. 기초교리는 초기 교회들에서 교리문답방식으로 교육되었다. 저자는 이 같은 기초교리학습을 또다시 받아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이르는 성숙한 길로 나아가자고 말한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출발지점 주변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을 생각인가라고 묻는다. 또 저자는 4-6절에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강경한 어조로 경고한다. 그 이유는 타락

한 자들은,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반기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능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힘입어 부정과 불가능의 동굴 속 어둠의 세계를 탈출하여 긍정과 가능의 밝고 환한 동굴바깥 세계를 맞보았던 사람들이 동굴 속의 삶을 동경하여 부정과 불가능의 동굴 속 어둠의 세계로 되돌아간다면, 그것은 마치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이 그들을 노예로 붙잡아 인권과 자유를 박탈했던 바로의 노예로 되돌아가고자한 어리석은 행위와 같기 때문이다. 이집트 세대 히브리인들은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다. 골인지점을 향해서 힘껏 질주해야 할 마라톤 선수가 경주를 위해서 훈련도 쌓지 않고,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해 버린다면, 그리고 뒤만 돌아본다면,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떠난 소돔에 미련을 갖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우리는 떠난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떠난 세계, 떠난 놀이와 문화, 떠난 습관들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좇는 일이다. 부정과 불가능의 동굴 속 어둠의 세계를 탈출한 빛의 사람이라는 긍지, 긍정과 가능의 밝고 환한 동굴바깥 세계를 맞본 사람이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7-20절에는 소망, 믿음, 오래 참음, 약속, 기업, 보증, 맹세, 피난처, 안위, 영혼의 닻, 휘장 안과 같은 단어들이 나온다. 이들 가운데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단어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이다.

13-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운명을 갖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실 뿐 아니라, 실수와 실패가 없으



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

아디아 가도에 위치한 성 세바스찬 카타콤의 아티메투스(Atimetus)의 비명 이 비명에 2세기경의 기독교의 상징인 닷과 물고기가 새겨진 것을 볼 수 있다. 분히 나타 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실수와 오류투성이인 인간들의 행위처럼, 문자 그대로 맹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한 맹세와 같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맹세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보증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단어는 11, 18절에 언급된 소망이다. 아브라함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맹세한 약속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근거도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19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고 했다. 닷은 배가 바다에 떠있을 때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는 육중한 쇠갈고리이다.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18절)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앞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뒤따라 우리가 “휘장 안” 곧 지성소 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소망의 성취 곧 영원한 하늘 피난처에 정착시켜줄 “영혼의 닷”이라고 했다 (19-20절).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 피난처 또는 안식처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 또는 안식처는

하늘 예루살렘성전의 지성소 안 하나님의 보좌 앞이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안식처에 머물며 영원한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영혼의 닻”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한다.

신실한 믿음과 오래 참음

이런 이유 때문에 성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실한 믿음과 오래 참음을 요구한다(10-12절).

성서의 핵심메시지는 판소리 춘향전에 비교된다. 춘향전 이야기는 성서 이야기를 그대로 베껴놓은 것과 같다. 성춘향은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난 이도령을 기다린다. 이도령이 한양으로 떠난 사이에 성춘향은 고난을 겪는다. 사또에게 몸을 바쳐 시중을



들라는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곤장을 맞은 후 목에 칼을 뒤집어쓰고 옥에 갇힌 성춘향은 돌아오지 않는 이도령을 원망은 할망정 그에 대한 신의는 저버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성춘향이 반드시

3세기의 그리스도인 문지석

상단의 'DM'(Diis Manibus)은 '신령들을 위해'란 뜻이다. 그 밑에 헬라어 'Ikhthus zonton'(생명의 물고기)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뜻한다. 그 밑에 물고기들 사이에 희망의 상징인 닻을 새겼다. 그리고 라틴어로 'LICINIAE AMIATI BE NEMERENTI VIXIT' 곧 'Licinia Amias는 보상받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새겼다.

돌아오겠다고 한 약속을 이도령이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도령에 대한 희망이 실망과 고통으로 바뀐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춘향이 사또의 고문과 학대를 무릅쓰고 정절을 지킨 것은, 오히려, 이도령에게 마음을 줬던 자기 자신의 신의 때문이었다. 철학자 칸트의 말을 빌리자면, 성춘향의 도의적 정절은 이도령의 약속 때문에 지킨 신의보다도 훨씬 자율적이고 도덕적이다.

하나님께 받았던 가나안땅에 대한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기까지 걸린 반천 년의 기간을 생각해볼 때, 또 주전 586년 바벨론 유배 이후로 유대인들이 마음에 품었던 메시아 도래에 대한 약속, 그 메시아가 회복시킬 다윗왕국과 예루살렘성전예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성취에 대한 희망의 끈을 수천 년이 넘도록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의 끈질긴 믿음을 고려해볼 때, 그들의 희망은 아브라함이후 오늘날까지 집단무의식이 되고, 토라율법이라는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그 희망”(Ha-Tikvah)을 노래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희망은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를 잡아야하고 정언명령이라는 규칙이 되어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때 성취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성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실한 믿음과 오래 참음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15. 더 좋은 언약의 보증(1)(히 7:1-10)

역대기 이념적 메시아 예표로서의 멜기세덱(1)

‘멜기세덱’이란 이름이 구약에 최초로 언급된 곳은 창세기 14장 18절이다. 이후 ‘다윗의 시’란 표제가 붙은 시편 110편 4절에 다시 나온다. 창세기는 멜기세덱을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로 살렘의 왕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하였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을 훔친 이스라엘의 경계인 단까지 쫓아가 쳐부수고 사로잡힌 자들과 빼앗긴 재물을 되찾아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 일행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한 인물이었다. 게다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었고, 이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이 같은 사실이 후대에 각광을 받게 된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야훼의 제사장이었다는 것과 예루살렘의 옛 지명인 살렘의 왕이었다는 점에 있다. 멜기세덱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희망(Ha-Tikvah)했던 가나안땅에 나라세우는 일을 꿈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의 제사장이 되었는지, 유대인들의 성지인 살렘의 왕이 되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지만, 그가 왕권과 신권을 모두 가지고 예루살렘 시온에서 통치하는 역대기 이념적 메시아의 표상에 가장 적합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시편 110편의 저자가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왕들을 쳐서 깨뜨리고... 못 나라를 심판하며...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릴” 것이라고 노래한 것에서 증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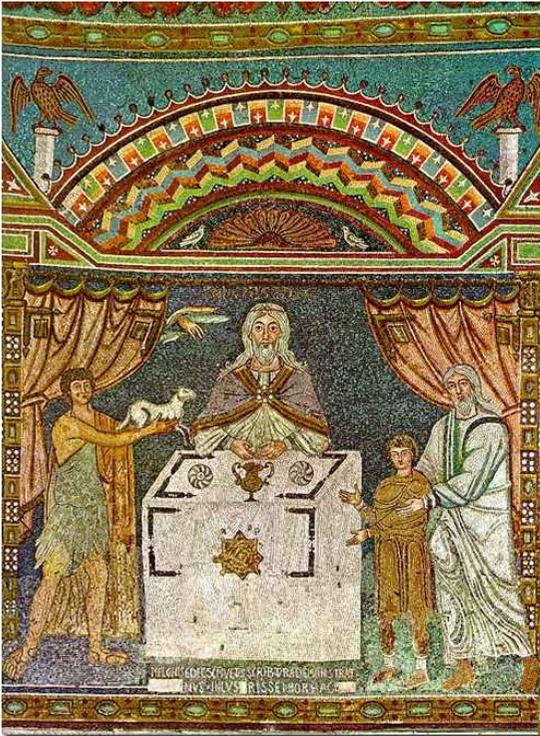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역대기적 이상(理想)이 충만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님의 예표였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늘 예루살렘성전의 지성소 곧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신 분이라고 확신하였다(6:20).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인류의 속죄를 담당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10번이나 언급하였다.

창세기 4장 26절은 셋의 아들 에노스와 동시대 사람들이 ‘야훼’라는 이름을 처음 불렀다고 적고 있다. 이후 아브라함이 야훼의 이름을 불렀고, 야훼를 위하여 제단도 쌓았다(창 13:4, 21:33). 이 무렵 아브라함은 가나안땅에 나라를 세우겠다는 희망을 품었고, 하나님은 그의 꿈을 이뤄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다. 가나안땅에 나라를 세우겠다는 아브라함의 희망을 성취시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고난 직후인 14장에 아브라함이 이끈 군사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메시아적 승리 기사(記事)와 미래의 이스라엘의 이상적 수도인 살렘의 왕이자 야훼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영접하여 함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기사가 실렸다. 고대 근동세계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행위는 쌍방이 체결한 조약을 공고히 하는 의식이었다. 이로써 창세기 13-14장과 시편 110편은 아브라함, 멜기세덱, 다윗을 통해서 역대기 이념적 메시아를 그려주었다.

역대기 이념적 메시아 예표로써의 멜기세덱(2)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을 야훼신앙의 뿌리인 아담, 에노스, 노아, 셈의 후손으로 본다. 그러나 멜기세덱이 언제부터 역대기 이념적 메시아상으로 유대인들의 뇌리에 새겨졌는지는 알 수 없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창세기에 소개된 이유는 이미 앞에서 추정하였고, 그 내용이 역대기적인 것은 다윗 왕국이 영원하기를 염원한 시편 110편의 내용이 증명한다. 시편의 저자는 왕권과 신권을 가진 왕이, 마치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에게 했던 것처럼, “왕들을 쳐서 깨뜨리고... 뭇 나라를 심판하며...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릴” 것이



아벨(좌), 멜기세덱(중), 아브라함과 이삭(우)
(모자이크, 클라세의 산타돌리나레 성당, 라벤나)

라고 노래한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란 표제가 붙어 있다.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었다고 해서 반드시 다윗이 썼다는 뜻은 아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지만, '다윗의 시'로 번역된 '레-다비드'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다윗의 시'라는 표제는 '레-다비드'를 '다윗에 의한'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다비드'는 '다윗에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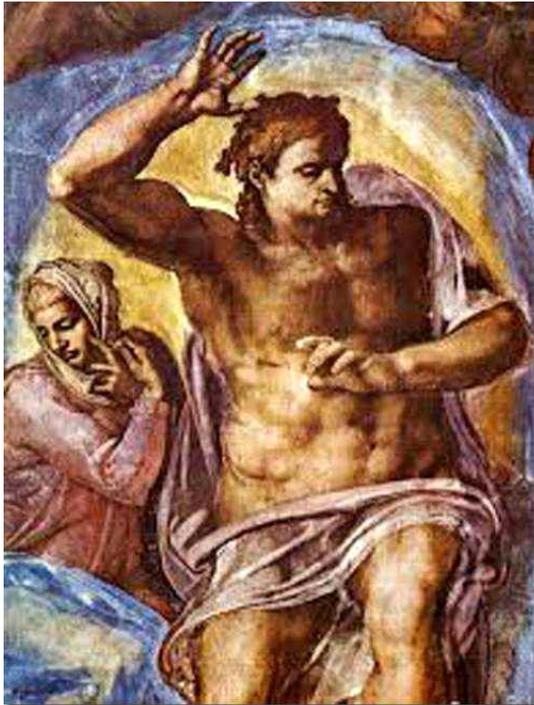
해서'라는 뜻도 갖고 있다(예: 시 3, 7, 18, 34, 51-52, 54, 56-57, 59-60, 63, 142). 만일 시편 110편이 "다윗의 시"가 아닌 '다윗에 관한 시'라면, 이스라엘이 절정기를 구가한 다윗왕국이 회복되어 영원하기를 바라고, 왕권과 신권을 한 몸이 지닌 멜기세덱 같은 인물이 왕위에 오르기를 바라는 희망을 노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희망 곧 멜기세덱처럼 왕권과 신권을 겸비한 이상적인 메시아, 곧 다윗 왕권의 실패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레위 사제권을 뛰어넘는 장차 올 영원한 메시아가 희망되기 시작한 것은 바벨론 유배기 또는 고토에 돌아온 이후였을 가능성이 크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유배로 인해서 또 다시 떠돌이와 노예가 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 중심의 다윗왕국과 예루살렘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회복되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역대기적

희망(Ha-Tikvah)을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걸었다. 그 표상으로 멜기세덱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등장한 이유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겠다는 희망을 최초로 마음에 품었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왕권만으로는 왕국을 영속시킬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역사를 통해 배웠다. 그러므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에다 모세의 신권까지 지닌 자라야 한다는 생각이 발전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상적 인물이 멜기세덱이었다.

히브리서 저자의 멜기세덱에 관한 이해

그러나 신약성서 저자들, 특히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왕권과 신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왕권과 신권의 예표였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역대기 이념적 희망이 100퍼센트



유대교의 모슈아크상과 겹치는 십판주 메시아
초후 십판 (미켈란젤로, 1536, 바티칸 시스티나 경당)

성취되었다고 믿었다.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이 역사적 인물인 동시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7:3)는 말로써 멜기세덱의 존재에 신비성을 덧입혔다.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 7장에서 멜기세덱의 신분과 이름을 풀이하였다. 저자는 멜기세덱

의 신분을 창세기 14장을 근거로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밝혔다. 또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란 뜻이고, 살렘의 왕은 “평강의 왕”이란 뜻이라고 풀어주었다.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십일조를 받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므로 멜기세덱의 신분이 아브라함과 레위 사제들보다 높다고 하였다. 레위 사제들이 멜기세덱보다 신분이 낮은 이유는 그들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치고 그로부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핏줄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이 장차 올 메시아를 희망한 노래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서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4절)는 것을 근거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의 결점을 지적하였다.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시편 110편 5-7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못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실 것이다”에 근거하여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셨다가 다시 강림하시면 철장으로 항아리를 깨뜨리듯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반면에 유대교인들은 아직 한 번도 나타난바가 없는 장차 올 모쉬아크가 최후 심판으로써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쳐부수실 것이라고 이해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르고, 복음이 율법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와 예수님이 레위혈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를 시편 110편 4절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16. 더 좋은 언약의 보증(2)(히 7:11-28)

시편 110편의 해석(1)

히브리서 저자는 7장 11-28절을 시편 110편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시편 110편의 내용은 이렇다.

야훼께서 내 주군(to my master)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주군의 권능의 흠을 시온에서부터 뻗쳐 주실 것이니, 주군께서는 원수들 가운데에서 다스리십시오. 주군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주군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주군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고 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군의 오른쪽에 계신 야훼께서 그 분노의 날에 왕들을 치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셔서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며 넓은 땅의 우두머리를 치실 것입니다. 야훼께서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치켜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41-44절에서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말씀하셨다. 신약성서 저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입증하기 위해 인용한 구약성서의 성구들을 유대교인들이 이해한 문자적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영적 예표적 모형적으로 이해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교 랍비들은 신약성서 저자들이 구약성서의 구절들을 왜곡했거나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들이었던 신약성서 저자들이 구약성서의 문자적 의미를 몰랐거나 오해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영적, 예표적, 모형적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이 의도적 해석에서 비롯되었다.

유대교 랍비들이 신약성서의 잘못된 구약성서 인용으로 끔찍한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10편이다. 유대교 랍비들이 신약성서 저자들이 구약성서를 잘못 인용했거나 오해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구약성서를 문자적으로만 읽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기 때문이며, 성령의 인성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구약성서는 유대민족사에 관련된 문자적 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영적 예표적 모형적 의미로 읽어야 할 이유가 없고, 성삼위일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으며, 오히려 삼위일체 신앙을 신성모독과 우상숭배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신약성서 저자들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구약성서는 문자적 의미 그 이상의 깊은 영적 예표적 모형적 의미가 담겼다고 믿고 해석함으로써 유대교라는 소수 민족종교를 그리스도교라는 전 인류를 위한 종교로 발전시켰다.

시편 110편의 표제는 ‘미츠모르 레-다비드’(Mizmor l’David)이다. ‘미츠모르’(Mizmor)는 ‘노래’(a song)란 뜻이고, ‘레-다비드’(l’David)는 ‘다윗의,’ ‘다윗에 의한,’ ‘다윗에 관한’이란 뜻이다. 따라서 ‘다윗의 시’란 표제는 ‘다윗의 노래’ 또는 ‘다윗에 관한 노래’란 뜻이 된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저술했으므로 ‘다윗의 노래’이고, 그 노래를 성전예배 때 레위인 성가대가 불렀으면 ‘다윗에 관한 노래’가 된다.

시편 110편의 해석(2)

그러므로 시편 110편 1절, “야훼께서 내 주군(to my master)께 말씀하시기를”에서 “내 주군”은 유대교 랍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차적으로 다윗 자신을 지칭한 것일 수 있다. 특히 레위인 성가대가 불렀을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을 받은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지칭했을 수 있다. 이후자를 장차 올 메시아라고 이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만일 시편 110편이 다윗이 아닌 바벨론에 유배된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페르시아제국 초기나 그 이후에 고토에 돌아와 재건에 힘썼던 누군가



아벨의 양과 멜기세덱의 빵과 포도주(모자이크, 주후 520년경) 성 비탈레 성당(Basilica of San Vitale, 라벤나 이탈리아) 제단 위쪽에 하나님의 손과 제단보에 수놓은 멜기세덱의 인감을 볼 수 있다. 인감(seal)은 팔각 별 중앙에 둥근 별을 담은 형상이다.

에 의해서 쓰인 '다윗에 관한 시'라면, 다윗은 모세와 함께 장차 올 메시아의 선구자였으므로 "내 주군"은 장차 올 메시아(그리스도)를 희망한 노래였을 수 있다.

시편 110편 전체 내용이 역대기 이념적 메시아사상을 담고 있어서 더욱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 4절,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고 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 것입니다."를 근거로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다. 또 12절에서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고 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 것입니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멜기세덱 계열은 아론 계열이 아니고, 성전봉사를 해본 일도 없으며, 심지어 야곱의 후손도 아니다. 그런데도 야훼께서는 멜기세덱 계열의 사제직을 인정하셨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하고, 성전봉사를 해본 일이 없지만, 이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고 설명한다.

게다가 히브리서 저자는 16절에서 아론 계열의 법을 "육신에 속

한 한 계명의 법”이라고 폄훼하였고, 멜기세덱 계열의 법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치켜세웠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이유를 18-19절에서 “이전의 계명은 언약하고 무익하므로 폐지되었는데, 이는 율법이 아무 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또 저자는 “그 대신에 더 좋은 희망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가간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저자는 20절 이하에서 그 더 좋은 희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시편 110편의 해석(3)

히브리서 저자는 7장 21절에서 시편 110편의 “내 주군”(to my master)을 명백히 오실 자 메시아를 지칭한 것이고, 그 주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예수님은 야훼께서 맹세로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22절에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선언한다.



멜기세덱의 인장(seal)과 하나님의 어린양(Agnus Dei)
 성 바돌로매 영국성공회 교회(더비셔)
 네 모서리에 라틴어로 INRI(라틴어: IESVS·NAZARENVS·REX·
 IVD ORVM, 유대왕 나사렛 예수)를 수놓았고, 바깥 원에 라틴어로
 Agnus Dei(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수놓았으며, 멜기세덱의 인장인
 팔각 별 중앙에 십자가 깃대와 어린양을 수놓았다.

히브리서 저자는 7장 2-3절에서 멜기세덱을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였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로 있다”고 하였다. 이는 멜기세덱이 장차 올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예표란 뜻이다. 멜기세덱이 장차 올 자로 예언된 그리스도의 예표이므로, 그분의 대제사장 직책은 영원하여 퇴직이 없다고 하였다. 반면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난 피조물이므로 그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늘 새로운 사람이 그 사제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23절에서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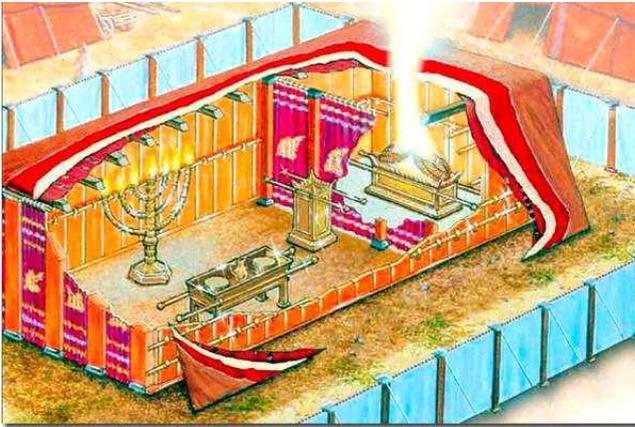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25-28절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적합하니, 그분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떠나계시고 하늘보다 높아지신 분이시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실 필요가 없으니, 그분께서 자신을 드려 이 일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이다. 율법은 연약함을 지닌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 주어진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7:22)이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8:6)이시며, 더 좋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3:1)고 권면한다.

17. 더 좋은 언약의 보증(3)(히 8:1-13)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성소와 지성성소의 모습

메노라가 성소의 왼쪽, 진설병 상이 오른쪽에, 휘장 앞에 분향단이 놓였고, 지성소 서쪽 끝에 하나님의 보좌인 법궤가 놓였다. 방 “보좌 우편에 앉으시라,” 광야시대의 이동성막과 지상 예루살렘성전의 원형이요 실체이며, 하나님께서 하늘 예루살렘 시온에 세우신 참되고 영원한 성막 또는 성전에서 섬기시는 큰 대제사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히브리서 저자는 3-5절에서 지상 예루살렘성전 지성소는 하늘 예루살렘성전 지성소의 그림자요 모형일 뿐 참이 아니며, 지상 예루살렘성전에서 섬겼던 대제사장들은 소수 유대민족을 위해서 섬겼고,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하늘 예루살렘성전을 영원히 섬기고 계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모형과 그림자였을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세오경(토라)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구절은 개역개정판 출애굽기에서만 26번이

히브리서 저자는 1-2절에서 시편 110편에 근거하여 멜기세덱의 원형이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지성소 곧 보좌

방 “보좌 우편

나 반복된다. 여호수아와 갈렘을 제외한 이집트탈출 1세대 히브리인들이, 아론과 모세조차도,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는 율법(토라)대로 하지 않은데 있다는 것이 민수기의 설명이다. 이 설명은 유대민족이 떠돌이와 노예로 살게 된 또는 살고 있는 근원적 이유를 설명한 것이고, 이 불행과 위기에서 벗어나 가나안땅을 되찾고 안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한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강조구의 또 다른 차원을 출애굽기에 자세히 실린 이동성막 건축과 관련해서 알려준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양식대로 이동성막을 지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본 양식이 다름 아닌 하늘 예루살렘 성전이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은 하늘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것이다.

유대교 랍비들도 광야시대의 이동성막 또는 지상 예루살렘 성전을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계시록 4-5장에서 보듯이, 우주의 중심에 하늘 지성소 곧 하나님의 보좌방이 있고, 거기로부터 네 생물과 어린양과 24장로와 천사들과 인류와 우주가 펼쳐지며, 그들이 하늘 지성소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끝없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때문이다.

결함이 드러난 옛 언약

히브리서 저자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도 큰 대제사장으로서 무엇인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이 지상의 제사장이 아닐 뿐 아니라, 또 실제로 지상에 계셨을 때에도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6절에서 예수님께서 받아서 일해오신 대제사장 직무는 아론 계열을 따라 이동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한 대제사장들의 직무보다 더 뛰어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예수님이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법궤를 운반하는 장면(동판, 프랑스 오슈 생트마리성당)
(cathedral of Sainte-Marie, Auch France)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7절과 13절에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자가 요구된 이유를 이집트 탈출 세대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결함이 있어왔고, 하나님은 옛 언약이 안고 있는 결함 때문에 새 계약을 세우셨으므로, 옛 언약은 낡은 것이 되고 말았고, 결국 낡아 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

진다고 설명한다. 그 근거로, 히브리서 저자는 8-12절에서, 예레미야서 31장 31-34절을 제시한다. 제시된 말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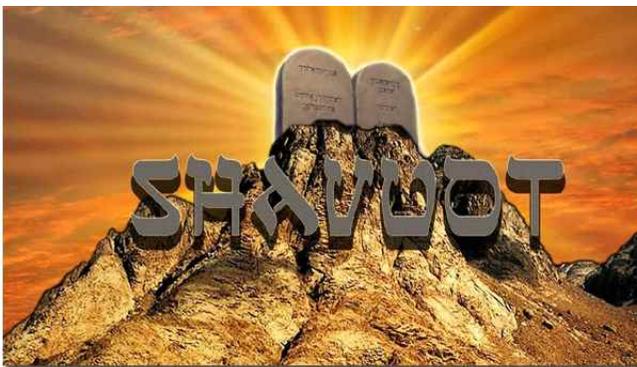
[3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34]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성서에서 ‘약속’과 ‘언약’은 가나안땅에 관련되어져 있다. 먼저 ‘약속’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땅을 주시겠다고 한 언

질을 말한다. 아브라함은 가나안땅에 나라를 세우겠다는 희망을 최초로 품은 유대인들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직접적인 조상이 된 이유는 모든 유대인들이 가나안땅에 나라를 세운다는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헬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이스라엘을 가나안땅에 세운다는 집단무의식의 공유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이 공유한 이 집단무의식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믿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이다.

새 언약

그 다음 ‘언약’이란 짧게는 430년 전에 길게는 645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이집트탈출 세대 히브리인들과 시내산기슭에 마주서서 쌍방서약으로 재확인한 것을 말한다.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된 이 언약을 그리스도교에서는 ‘시내산 언약’ 또는 ‘옛 언약’이라고 부른다. 이때 맺은 언약법은 십계명에 불과했지만, 큰 틀에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613개의 계명(mitzvot)과 수많은 율타리법(gezeiroth)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결함이 있었다. 이 옛 언약의 결함을 보완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영원하고 무흠한 새 언약이다.



유대교인들은 이집트 시대 조상들이 첫 유월절 다음날 고센 땅을 출발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포법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오순절(Shavuot) 명절을 지킨다.

새 언약에서는 가나안땅의 소재지가 다르고, 언약의 내용도 다르며, 언약을 체결하는 자들도 다르다. 새 언약에서는 아브라함이 희망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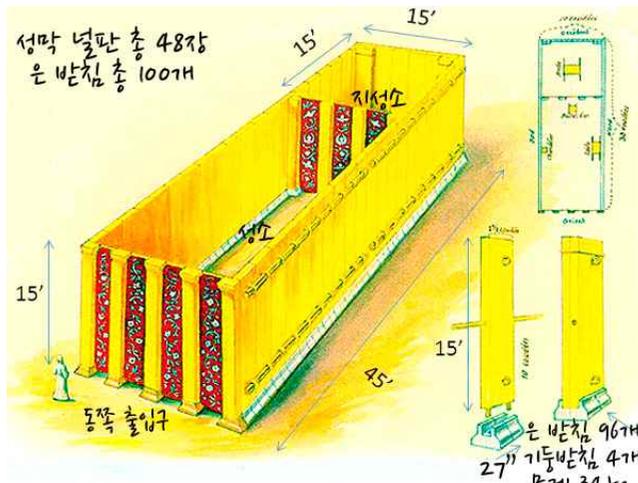
가나안땅은 떠돌이의 삶을 끝내고 영원히 안식할 하늘 가나안땅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릴 하늘 가나안땅이며,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민족색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여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언약의 내용도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복음으로 바꿨다.

옛 언약에 매인 유대인들의 목표는 지상 가나안땅 예루살렘 ‘시온으로 오름’(ascension to Zion)이지만, 새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하늘 가나안 땅, 하늘 예루살렘 시온으로 오름이다. 지상에서는, 비록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라도, 인간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약성서 저자들은 예레미야서 31장 31-34절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쏟으신 물과 피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유월절 예식 때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다. 이때 선포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3-25절에 자세히 실려 있다. 예수님은 빵에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감사의 잔을 들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짐승의 피로 맺은 옛 언약의 결함을 보완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영원하고 무흠한 새 언약이라고 말한다.

18. 이동성막(미쉬칸)(히 9:1-10)

하나님 보좌방의 모형



널판크기: 넓이 1규빗 반(67.5cm), 두께 반규빗(22.5cm), 높이 10규빗(4.5m), 성막크기: 너비 30규빗(13.5m) x 널판 20장, 외부 둘 10규빗(4.5m), 내부 둘 9규빗(4.05m) x 널판 8장. 성막 공간: 바깥쪽 18-19평, 안쪽 16-17평 정도.

히브리서 9 장 1-10절은 옛 언약에 따른 성막에 관한 말씀이다. 저자는 1절에서 옛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었고, 하늘 하나님의 성전의 예표이자 모형과 그림자인 이동성막이 있었다고 전한

다. 2-7절은 이 지상 이동성막의 구조와 기물 및 예법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8-10절은 그 같은 성막과 성막구조와 기물 및 예법이 새 언약에 따른 새 질서 전까지만 잠정적으로 유효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든 것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과 성전이였다. 율법(토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체결한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다. 이 언약의 내용, 곧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므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 특권을 유지해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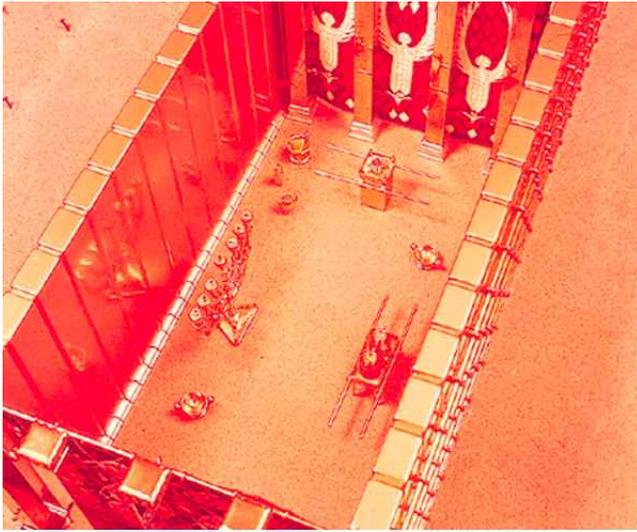
성막(미쉬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회중이 주둔한 중앙지역에 설

치한 성소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치유를 상징하는 곳이었다. 이 성막제조에 필요한 재료들과 지성소에 안치될 언약궤와 속죄소, 또 성소에 안치될 떡(진설병) 상과 등대(메노라) 제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말씀들은 출애굽기에 실려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성막은 하늘보좌방의 모형이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담긴 증거궤라 불리는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는 아훼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상징하였다. 언약궤 상단의 덮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속죄소(혹은 시은소, mercy seat)였다. 이 속죄소 양 끝에는 각각의 그룹천사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출 25:20)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출 25:22)고 하셨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였다. 이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 차례 초막절(추석, 티쉬레이 15일) 축제 5일전인 대속죄일(Yom Kippur, 티쉬레이 10일)에 들어가 자기 자신과 백성의 속죄를 위해 염소피를 뿌렸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다. 성막은 광야시대에 조립과 분리와 운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이동식 미쉬칸 곧 하나님의 집이었다. 가나안 주거시대에는 솔로몬이 최초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고, 바벨론에 망한 후에는 스룹바벨이 재건하였으며,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성전증축에 힘쓰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하루 세 번 오전 정오 오후에 바치던 성전제사가 중단 되었고, 주전 586년 이후 바벨론 유배기 때 시작된 회당기도회가 성전제사를 대신하게 되었다. 바벨론 유배이후 유대교인들은 하루 세 번 오전 오후 저녁에 회당에



성막의 성소 내부. 채루빔이 수놓아진 휘장 뒷쪽이 지성소이다. 성소 출입구 왼쪽 편에 금등대, 오른쪽 편에 금판으로 싣진 설병상, 휘장 앞쪽에 금판으로 싣진 분향단과 기타 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모여 ‘쉐모네 에스레이’라 불리는 18개의 기도를 바쳤고, 주후 70년 이후부터는 19개의 기도를 바친다. 주목할 것은 성전이 예루살렘 시온에 단 하나만 허용되는 반면에 회당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

(행 1:12)마다에 성인 가장 열 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든지 세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초창기 예배의식과 예배당구조에 있어서 회당기도회 및 회당구조와 유사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유대민족 종교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계종교로 발전되었다. 그리스도교예배가 회당기도회와 크게 다른 점은 삼위일체 신앙고백과 주의 만찬의식이다. 유대교인들은 회당기도회 때 성전제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나라의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을 기원하는 19개의 기도문들을 낭송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제사를 대신해서 주의 만찬의식을 거행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흠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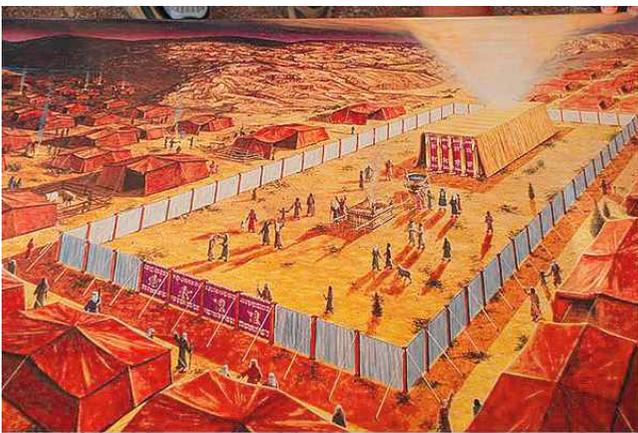
성막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막에 계신다는 표인 ‘쉐키나’(구름기둥과 불기둥)가 성막위에 있었다. 쉐키나가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상의 일을 중지하고 자기의 짐을 꾸린 후 쉐키나를 따라 나섰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려고 길을 떠나시기 때문이다. 쉐키나가 길을 떠나면 언약궤가 쉐

키나의 뒤를 따랐고, 그 뒤를 백성이 따랐다. 쉼키나는 항상 사흘 길을 앞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다. 그러다가 쉼키나가 어느 한곳에 자리를 잡으면 그곳에 성막을 세우고, 성막 주위 사방에 각 지파 별로 진을 쳤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대와 같이 성막을 호위하며 그곳에서 쉼키나가 떠오를 때까지 진을 치고 거주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집회와 속죄의 장소

성막은 ‘회막’(meeting tent)이라고 불렸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란 뜻이다. 따라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뤄지는 곳이요, 만남의 장소였으며, 제사를 바치는 장소였다. 성막과 성전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상단 덮개에는 하나님의 쉼키나의 영광이 임하여계신 속죄소가 있었다. 따라서 성막과 성전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었다. 예물을 들고 성막과 성전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기 위함이었다.

성막과 성전은 속죄와 치유가 이뤄지는 백성을 위한 장소였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죄값을 대신할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백성의 죽음을 대신하게 했던 장소이다. 따라서 성막과 성전은 백성을 위한 신성한 장소요, 백성의 속죄와 치유를 위한 거룩한 장소였다. 죄와 제물을 함께 가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제물에 예배자의



성막과 그 주변 동서남북으로 히브리인들이 천막을 친 모습

죄를 전가시켜 희생시킴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삶을 치유 받게 하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8-10 절에서 “성령

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찢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고 하였다(비교: 4:16, 10: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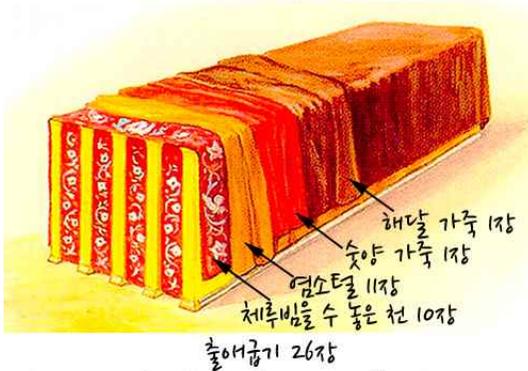
개혁(새 언약)에 따른 새 질서 곧 그리스도교에서는 성막과 성전을 대신하는 곳이 예배당이다. 유대교 회당이 여전히 성막과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상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가톨릭과 같은 전통교회들이 여전히 성막과 성전의 개념을 유지하고 있지만, 개신교 예배당은 신성한 성막과 성전의 개념보다는 평범한 집회소의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건물에 두지 아니하고,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두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속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신성한 곳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교는 장소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더 큰 무게를 둔다. 하나님의 언약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없다면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보통의 장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언약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그곳이 아무리 비좁고 누추한 마구간과 같은 곳일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신성한 장소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속죄와 치유가 이뤄지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신성한 성소가 된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못되는 것, 하나님의 쉼키나의 인도하심이 있고 없고는 예배당의 크고 작음이나 장엄하고 누추한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이는 구성원들의 태도와 예배의 내용과 신실함에 달려 있다.

19. 이동성막(미쉬칸)(2)(히 9:11-22)

이동성막(미쉬칸)의 성격

성막 덮개 총 23장



-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베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물을 정교하게 수 놓은 얼룩의 휘장을 만들라.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라.
 14절: 붉은 돌 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히브리서 9장 1-10절은 옛 언약에 따른 성막에 관한 말씀이다. 저자는 1절에서 옛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었고, 하늘 하나님의 성전의 예표이자 모형과 그림자인 이동성막이 있었다고 전한다. 2-7절은 이 지상 이동성막의 구조와 기물 및 예법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8-10절은 그 같은 성막과 구

조와 기물 및 예법이 새 언약에 따른 새 질서 전까지만 잠정적으로 유효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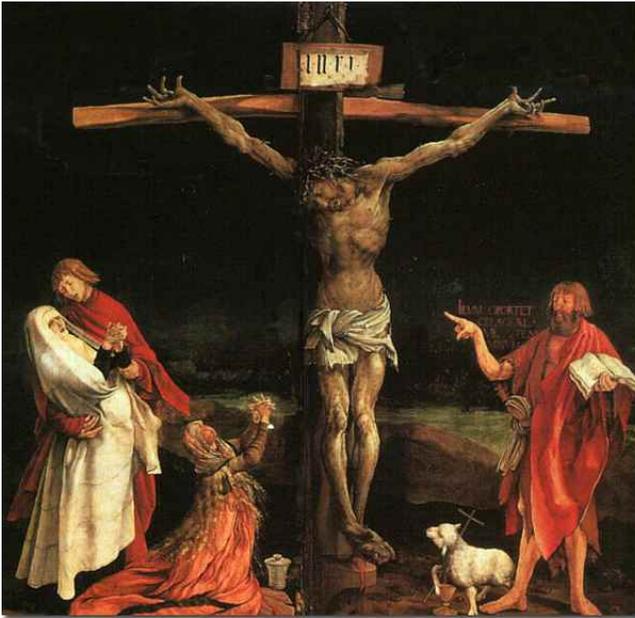
히브리서 저자는 2-5절에서 성막은 가운데 휘장을 중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었는데, 성소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고 하였고, 지성소 서편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면서 성막의 내실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금향로의 위치는 지성소가 아닌 성소의 휘장 앞에 있었다. 만일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었다면, 당번 제사장들이 향을 피울 수가 없었을 것이다. 6절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듯이, 제비뽑기에 당첨된 당번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 등대의 일곱 등잔들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끄거나 켜는 일, 떡상에 놓인 진설병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바꿔놓는 일, 향로에 향을 피우는 일 등을 했지만, 7절의 설명에서 보듯이, 대제사장이 외에는 그조차도 대속죄일 하루를 빼고는 아무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욘키푸르, 티쉬레이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소에 염소피를 뿌리기 위함이었다.

히브리서 저자는 8절에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바로는 성소가 그대로 있었을 때까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것은 성소휘장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공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4:16) 수 없었다는 뜻이다.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법궤 덮개 속죄소를 말한다. 또 저자는 9절에서 성막을 “현재까지의 비유다”고 말한다. 여기서 “비유”는 이동성막이 하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성막제도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10절에서는 유대교의 음식법, 그릇씻기법, 손씻기법 등에서 보듯이, 성막제도도 그 같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라고 하였다.

더 훌륭하고 완전한 장막

히브리서 저자가 성막제도를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다.”고 한 것은 그것이 이미 더 좋은 새 언약의 복음 곧 참되고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바꿨다는 것을 말하고자한 것이다. 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가 찢겨지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사람들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 속죄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가로막는 성소휘장을 쪼갰 것과 같다고 말한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10:19)고 힘주어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제인하임 제단화: 십자가 처형벽분(1515년, 마티아스 그뤼네발트)
우측에 침례 요한이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좌측에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가 간절히 기도
하고 있다. 절은 제자 요한이 성모 마리아의 허리를 떠받쳐 주고 있다.

못 박히심으로
써 민족의 벽,
성별의 벽, 신
분의 벽, 계급
의 벽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
한다. 남녀노
소 빈부귀천
민족색깔에 상
관없이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렸다고
말한다. 그러
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11-12

절에서 예수님이 이처럼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막,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신 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뿌림으로써 인류에게 속죄 받을 길을 마련해주신 분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성막과 대제사장이 지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13-14절에서 모세의 율법과 규례대로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재를 더러워진(treyf)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kosher) 그들이 거룩하게(kadosh) 되는데,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 죽음의 행실에서 벗어나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

게 하겠는가라고 말한다. 이로써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옛 언약인 율법과 규례에 의한 것보다 더 좋은 대제사장,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속죄의 길, 새 언약인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 언약의 증보자

옛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규례들이지만, 그 언약의 핵심은 가나안땅이다. 증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백성이 그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쌍방계약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땅을 기업으로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였다. 아브라함 이후 지금까지 대략 4천 년간 이스라엘이 가나안땅의 주권을 지켜낸 기간이 1천년을 넘지 못했고, 히브리서 기록 때까지 2천 년간 주권을 지켜낸 기간은 그 절반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15절에서 사람들이 무한하고 흔들림 없는 참 안식의 땅을 희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늘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계 4-5장)

성소와 지성소가 취장으로 나뉘지 않으므로, 성소 바닥이 수정처럼 맑고 깨끗하다. 대신에 삼라만상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바친다. 중앙에 벽옥과 홍옥 같은 야훼께서 보좌(법궤)에 좌정하시고, 그 둘레에 비취옥 같은 목지개 아우라가 펼쳐있으며, 여섯 날개와 수많은 눈을 가진 네 생물(케루빔)이 밤낮으로 삼성칭을 부른다.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을 밝힌 메노라가 있고, 보좌 둘레에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장로(신구약시대 하나님의 종들의 대표)가 금관을 벗어 바치며 엎드려 야훼께 경배와 찬양을 바친다. 인류의 속조를 위해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어린양 예수님은 일곱 벌과 일곱 눈을 가지고 야훼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좌정하여 계신다.

써 그 자신의 보혈로 새 언약의 증보자가 되게 하셨으며,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이라고 말했다.

히브리서 저

자는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16-22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마치 유언이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효하고, 효력을 발휘하듯이, 하나님과의 언약도 죽음이라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다. 둘째는 모형적 사례가 시내산 언약식인데, 이때도 피로써 세워졌다는 것이다.

옛 언약식은 출애굽기 24장에 실려 있다. 이때 제물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는 의식이 있었다. 모세는 소들의 피를 받아 받은 양푼에 담고 받은 제단에 뿌린 다음에 기록한 언약서 곧 율법서를 백성에게 읽어주었고, 백성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양푼에 담은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과정을 히브리서 저자는 출애굽기 12장, 레위기 14장, 민수기 19장에 실린 예법에 준하여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19-21)고 설명하였다. 이로써 저자는 22절에서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로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변증하였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메시아)가 이스라엘나라(다윗왕국)를 완전히 회복시킬 때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20. 이동성막(미쉬칸)(3)(히 9:23-28)

새 언약

A Covenant is a Bond

- Often used synonymously with “oath”
- By a covenant people become committed to one another
- Often the commitment is accompanied by a symbolic action – a shared meal, a memorial, an animal sacrifice, etc.

Berith

ברית



예레미야는 정권의 탄압의 속에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지켜봤던 ‘눈물의 예언자’였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이 자주권 확보를 위해 이집트 군대에 맞서다

계약(berith)은 결속이다. 계약은 맹세이다. 계약은 헌신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이 체결된 후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시으로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공고히 하였다.

가 주전 609년 므깃도에서 전사하였고, 그로부터 23년만인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파괴되며 백성이 사로잡혀 바벨론에 유배되는 것을 목도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유다왕국의 패망에 따른 절망과 좌절을 극복할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새로운 종교를 내다본 것이었다.

예레미야는 예언서 31장 29-30절에서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고 선언하였는데, 이것은 표면적이고 전체적인 시내산 언약공동체에 던진 시한폭탄이었다. 표면적이고 전체적인 율법공동체에서 개인은 그 존재가치가 미미하였다. 개인은 공동체에 부속된 일개의 톱니바퀴에 불과하였다.

개인은 군단에 소속한 병사와 같고, 병사 개인의 책임은 군단 전체의 책임과 같았다. 따라서 유대인 개인의 행위에 대한 응보는 선한 일은 자손 천대까지 나쁜 일은 자손 삼대까지 간다고 했던 것이다. 이에 예레미야는 오는 시대는 새 언약에 따른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새로운 종교시대가 될 것을 선포하였다. 그 선포가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33절의 말씀이다.

[31]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제까지의 언약이란 외형적인 돌에 새긴 것이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사람들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이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체결된 옛 언약은 돌의 깨짐과 함께 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새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다.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롭게 드러났다.

야훼의 종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제사나 성전 또는 율법과 규례 등 외부적인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새 언약을 제창할 수 있었다. <옛 언약이 가나안땅에서 드리는 문자적 성전예배에 관한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성전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나그네(디아스포라)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예배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가 주창한 새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살아서 보지는 못하였다.

제2이사야는 그 유명한 이사야 53편을 노래하였다. 5절에서 그



십자가(김현숙, 1986년)



십자가(김현숙, 2002년)

예수님의 고난의 상흔들을 강조하면서도 손과 발은 날개를 펴고 하늘을 오르는 새의 이미지로 자유와 기원을, 머리의 가시관은 생명이 싹트고 피어나는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부활의 승리와 위로 및 생명과 평화와 희망을 담았다.

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고 노래하였다. 여기서 제2이사야는 찢림과 상함과 징계를 받아 채찍에 맞은 “야훼의 종” 곧 이스라엘로 인해서 허물과 죄악의 사함을 받고, 평화를 누리는 회복시대가 도래할 것을 노래하였다. 이뿐 아니라, 유배 생활을 끝내고 살아남은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 야훼의 종으로서 곧 개방될 구원시대에서 모든 육체가 야훼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라고 노래하였다.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던 시기에 활동한 하박국 예언자도 때가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2:14)고 노래하였다.

유대교인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시대와 제2이사야가 예언한 야훼의 영광을 보게 될 구원시대는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고 곧 오실 모쉬아크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신약성서 저자들은 구약시대 예언자들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그분의 십자가 수난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다고 믿는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와 같은 신약성서 저자들은 “야훼의 종” 또는 수난의 종을 이스라엘로 해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고 해석하였고, 그분의 피 뿌림으로써 새 언약이 체결되었다고 믿었다. 특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것들이 “더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저자가 말

는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

하는 “더 좋은 것”은 “구원에 속한 것”(6:9)으로써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더 좋은 희망”이다(7:19). 이 희망은 우리가 율법의 방법으로서는 가망이 없던 하나님께로 나아가 생명을 얻을 길이 새롭게 열렸기 때문이다.

둘째, “더 좋은 언약”이다(7:22). 모세가 중개한 옛 언약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힘든 율법이지만, 예수님이 중개한 새 언약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길이기 때문이다.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들(1)

셋째, “더 아름다운 직분”이다(8:6). 모세가 옛 언약식 때 중보자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새 언약식의 중보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것이 모세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이기 때문이다.

넷째, “더 좋은 제물”이다(9:23). 율법에 따른 제물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써 율법의 지시대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곧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더 좋은 부활”이다(11:35). 참 안식은 지상 가나안땅에서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하



Ap. 3/20 Resurrection 1990 H.S. Kim

부활(김호수, 1990년 석판화)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새싹이 움터나오기를 표현하였다.

늘 가나안땅에서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지상 가나안땅에 희망을 두지 않고, 부활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곳에서 안식하기를 희망하였다(11:40).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더 좋은 것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9장 24-28절에서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지, 왜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신지, 왜 지상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지 않으셨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었다. 지상 성소의 실체인 히늘 성소에 바로 들어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속죄소가 아닌 영화로 우신 하나님 바로 그분 앞에 서실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24절).

둘째, 지상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매년 대속죄일 때마다 희생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자기희생으로써 지상의 제사들을 완성시키셨다(25절).

셋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희생시킨 단 한 번의 제사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26절).

넷째,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승리, 곧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 이 최후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27-28).

21.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님(1)(히 10:1-18)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들(2)

세레 요한이 왜 “그분은 흥하여야하고 나는 쇠하여야한다”(요 3:30)고 말했는가?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을 지칭한 것으로써 예수님은 그리스도교를 세우신 분이다. 따라서 “그분은 흥하여야한다”는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교가 흥하여야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나는”은 세레 요한 자신을 지칭한 것으로써 신약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이다. 따라서 “나는 쇠하여야한다”는 세레 요한의 쇠함과 더불어 유대교가 쇠하여야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세레 요한의 이 유명한 말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겠지만,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다. 그리고 세레 요한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은 그대로 성취되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 관련된 것들을 나쁘다거나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가 즐겨 쓴 “더 좋은 것”이란 말은 ‘그냥 좋은 것’과 비교해서 ‘더욱 좋은 것’이란 뜻이다. 저자의 이 비교는 총체적으로 ‘더 좋다’가 아니라 최소한 ‘구원에 속한 것에서 더 좋다’는 뜻이다. 따라서 신약의 것들이 구원에 속한 것에서 한층 더 큰 보물로 새로 부각된 것이라면, 구약의 것들은 구원에 속한 것에서 이전시대에 일시적으로 좋은 것에 불과하였다. 여기서 구약의 것들이 좋은 것이었다는 뜻은 흠이 없거나 완전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것들에 비교해서 탁월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이전에 좋았던 것이라도 더 이상 이전 것을 고집하지 않게 되듯이 새 것으로 인해서 옛 것은 자연스럽게 폐기되고 만다. 이것은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 1889-1975)와 한국 최초의 신학자 최병헌(崔炳憲,

1858-1927) 목사가 지적한 것과도 일치된다.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 제4편 문명의 쇠퇴>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일시적인 자아를 이상화하는 가장 유명한 역사적 사례는 신약성경에 폭로된 유대인의 과오이다. 유대인의 역사에서 시리아 문명의 요람기에 시작하여 예언자 시대가 절정에 달한 시기에, 이스라엘과 유대의 백성은 일신교의 종교사상에 도달함으로써, 그 주위에 사는 시리아 사회의 다른 민족들보다 단연 뛰어나게 되었다. 그들이 자기들의 정신적 보물을 강하게 의식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은 당연하였으나, 그 정신적 성장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단계이기는 하였지만, 하나의 과도적인 단계에 불과한 것을 이상화하는 과오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확실히 무상(無上)의 정신적 통찰력을 타고난 민족이었지만,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진리를 발견한 후에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절반진리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들은 ‘유일한 참신’을 이스라엘이 발견한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신(神)의 선민임을 계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절반 진리는, 그들이 가까스로 도달한 일시적인 정신적 탁월성을 신이 자기들에게 영원한 성스런 약속으로써 부여한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과오에 빠지게 하였던 것이다. 그 천부의 재능을 어리석게도 땅에 숨겨둠으로써 그것을 활용할 줄 몰랐던 그들은 신(神)이 나사렛 예수의 강림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제공한 한층 더 큰 보물을 거절하였던 것이다.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들(3)

한국 그리스도교 초기 신학자였던 최병헌(崔炳憲, 1858-1927) 목사의 저술 가운데 “성산유람기”(聖山遊覽記)란 글이 있다. 이 글에는 명산인 성산(聖山) 영대(靈臺)에 유교의 선비인 진도(眞道)와 불교의 도승 원각(圓覺)과 도교의 선사 백운(白雲) 그리고 그리스도인 신천옹(信天翁) 등이 모여 사흘간 펼친 토론 내용을 이야기체로 기록하고 있다. 최병헌 목사는 신천옹(信天翁)이 유교에 내세론(來世論)이 없음을 지적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림자에 낚혀 실체를 놓아버린 개
 라 동텐(Jean de La Fontaine, 1621-1695 프랑스 시인 동화작가)
 리브레서는 그림자에 낚혀 실체를 놓아버리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이다.

여름 별네는
 겨울의 어름을
 말할 수 없고
 우물 안의 개
 고리는 하늘이
 적다 하나니
 이는 정(正)히
 선생을 가르쳐
 말한 것이다...
 공자가 비록
 하나님에 내신
 성인(聖人)이
 긴 하나 날도
 와 죽는 것(하
 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도리)을 아지 못하심이 변고가 아니어늘
 왜 신의 말을 믿지 않는가(〈신학월보〉 229-231쪽).

또 신천옹(信天翁)이 불교에 유신관(有神觀)이 없음을 지적하는
 글에서는 “천지만유(天地萬有)를 창조하신 주재외(主宰外)에 유아
 독존(唯我獨尊)이라 함은 실(實)로 불가사의로다”(〈만종일련(萬宗
 一巒)〉 39쪽. 하나의 진리 곧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여러 종교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음을 논한 책)고 하였고, 원각대사(圓覺大師)
 를 향해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대사는 이왕에 불교를 숭상하기로 천당지옥이 있음을 믿거니와
 능히 불교의 허무함을 버리고 예수교의 진실함을 좇치리까... 소식
 채죽(蔬食菜粥, 거친 음식과 풀죽)과 고향옥식(膏糧玉食, 기름지고
 맛난 음식)이 다같이 음식이로되 귀천(貴賤)과 미악(美惡)이 있나
 니 옥식(玉食)을 만나지 못하여서는 초식(草食)을 먹으려니와 옥식
 (玉食)을 보고도 의심하며 먹지 아니하면 실로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 없는 일이라(〈신학월보〉 230쪽 이하).

유대교의 역사적 사명과 의미가 없지 아니하나 그리스도교가 전

래된 후에는 그 위치가 마치 밤의 달과 낮의 해처럼 바뀌게 되었다. 밤에는 달이 빛 구실을 하지만, 해가 나타난 낮에는 달이 빛을 잃듯이, 곡식이 있을 때에는 초식을 하지 않듯이, 신형에 밀려 구형이 사라지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님으로 믿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주장이다.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들(4)

히브리서 10장 1-18절은 7장 1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에 관한 세 번째 선포에 해당된다. 저자는 10장 1-4절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니다. 해마다 대속죄일에 반복되는 희생제사로써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5-9절에서는 시편 40편 6-8절(칠십인역)을 인용하여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은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세상에 내려오셨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10-18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제사장들이 드리는 반복된 제사는 죄를 없앨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희생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고 말한다. 이어서 예레미야서 31장 33-34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므로 죄를 사

21.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님(1)(히 10:1-18) /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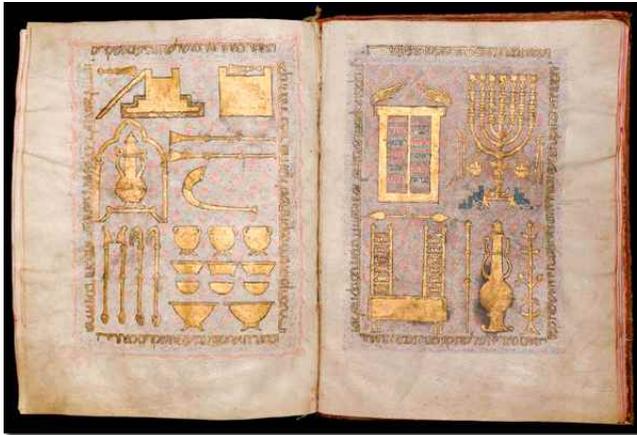
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옛 언약은 그림자요, 새 언약은 실체라고 주장한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표로 작성될 수 있다.

구분	옛 언약	새 언약
약속(기업)	지상 가나안땅	하늘 가나안땅
메시아(중보자)	모세(신 같은 존재)	예수(독생자 하나님)
언약의 구속력	공동체 전체에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언약의 피 뿌림	황소와 염소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의 내용	토라를 준수함으로 지상 가나안땅(기업) 유업	믿음으로 값없이 하늘 가나안땅(기업) 유업
하나님의 임재	구름기둥과 불기둥 (약속한 기업으로 인도)	성령(약속한 기업을 보증하시고 인치시며 선취하게 함)
나라	문자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자	모세	예수
나라의 건축자	여호수아	사도들
나라의 왕	다윗(이스라엘 왕들의 왕)	그리스도(만왕들의 왕)
종교	유대교(소수 유대민족 종교)	그리스도교(전체 인류의 종교)
성전	지상 예루살렘 성전	하늘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	아론 서열	멜기세덱 서열
제사	매일 반복된 제사	십자가 수난으로 단번에 끝냄
제단	제사장의 뜰	골고다 언덕
제물	짐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지상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의 법궤 덮개(속죄소)	하늘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의 법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	대제사장이 연중 대속죄일(티쉬레이 10일) 하루만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법궤 앞으로 나아감	그리스도께서 모든 담(희장)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 하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 감.
구약과 신약	구약성서(Tanakh)는 토라(Torah)와 토라에 관한 성찰 곧 회개와 회복에 관한 글들인 예언서(Nebim) 및 성문서(Ketuvbim)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성서는	신약성서는 구원에 속한 복음과 그 복음에 관한 해석과 성찰의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표출된 오랜 갈등은 구약성서 이해와 해석의

	<p>유대민족의 생사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그것을 100퍼센트 문자적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신약성서 저자들은 구약성서의 예언들을 의도적으로 예표적 영적 모형적으로 해석하였다.</p>	<p>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구약성서를 신약성서가 이해하고 해석한 방식대로 이해하지 않는 이들은 유대교인 또는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나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p>
--	--	--

22.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님(2)(히 10:19-25)

성소에 들어갈 담력



히브리어 성서, 카탈로니아(catalonia, 스페인 바르셀로나), 14세기 초반, 템페라(Tempera) 화법으로 금과 잉크로 양피지에 그린 성막 기구들

10장 19-39 절은 히브리서의 세 번째 교훈으로써 그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제치고 “새롭고 산길”을 열어놓으셨으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내용이다.

히브리서 10장은 율법의 결점을 지적하는 말로써 시작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한다(1절). 구약의 율법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고도 죄를 다시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며(2-3절), 짐승의 피 흘림이 사람의 죄를 능히 대신할 수 없고, 영구히 없애지 못하는(4절) 결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장차 더 좋은 것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로 잠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장차 이뤄질 더 좋은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군을 뽑아 이스라엘 민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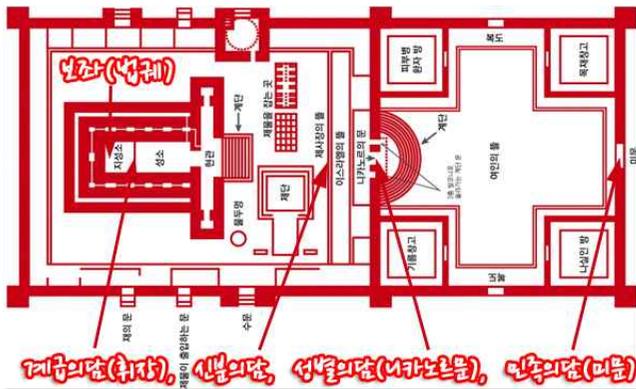
을 섬기게 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봉사자로 세워 열방선교의 그릇으로 쓰시려 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 하나님을 그들 자신의 하나님만으로, 그들 조상의 하나님만으로, 그들 민족의 하나님만으로 독점해버렸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오해하여 안식일법과 정결법과 같은 터무니없이 많은 율타리법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였으며, 선교의 대상인 이방인들과는 접촉이나 식탁교제를 차단시켜버렸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한 노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오류를 범하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다.”고 하셨으며,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열방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보내셨던 것이고, 9절의 말씀처럼,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셨다. 첫 번째 방법인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써는 사람의 죄를 능히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게 함으로써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공평하게 차별 없이 그분의 피 뿌림을 받아 거룩함을 얻도록 하셨다(10절).

새로운 살 길

제사장들은 매일의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지만, 이들 제사들이 사람의 죄를 없애지를 못했다(11절).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로써 이전의 제사들을 단번에 완성시켜 버리셨고, 부활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최후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12-13절). 이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써 영원하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이다(14절).

2600여 년 전 유다왕국이 바벨론제국에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회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



제사의 길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가 찢기신 것을 휘장이 갈라져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통합된 것에 비교하였다. 성전은 우주의 축소판이고 성소 휘장은 지상의 모든 담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성소 휘장이 갈라진 것은 지상의 담들 곧 이방인을 차별하는 민족의 담, 여성을 차별하는 성별의 담, 신분의 담 및 계급의 담이 허물어졌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분이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가 찢기신 것을 휘장이 갈라져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통합된 것에 비교하였다. 성전은 우주의 축소판이고 성소 휘장은 지상의 모든 담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성소 휘장이 갈라진 것은 지상의 담들 곧 이방인을 차별하는 민족의 담, 여성을 차별하는 성별의 담, 신분의 담 및 계급의 담이 허물어졌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분이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루실 온 인류를 위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구약예언의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자기 민족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이제는 죄와 불법이 용서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8절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법궤덮개를 지칭하는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19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소휘장을 찢고 열어 놓으신 새로운 생명의 길(new and living way)이요, 그 휘장은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신 예수님의 몸의 모형이다(20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혈혈단신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당신의 온몸이 찢기고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 싸우셨고, 결국에는 인류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여셨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24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

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 주고, 그들의 생각에다가 새겨 줄 것이며,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16-17절, 램 31:33-34). 이 약속은 하

나님께서 당신

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하였고, 에베소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밝혀진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선포하였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큰 대제사장이 살아 계시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한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침례의 물로써 죄를 씻어 구원을 약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22절). 또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굳게 믿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잡아야 한다(23절).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24절), 모임을 싫어하거나 폐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여야 한다고 말한다(25절).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25절까지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 “하자”라는 격려를 다섯 차례나 반복하고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22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동쪽의 벽)
이 커다란 돌단이 광장 아래로 17단, 광장 위로 7단 더 있다.
여기에 이보다 더 작은 돌들로 주후 600년에 4단, 더욱 작은 돌들로 1866년에 13단, 더더욱 작은 돌들로 1967년에 3단이 덧쌓아졌다.

잡자’(23절), ‘서로 돌아보자’(24절), ‘함께 모이기를 폐하지 말자’(25절), ‘서로 권하자’(25절)라고 말한

다. 따라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교우들을 향해서 서로의 격려와 위로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히브리서는 60-90년 사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나서도 유대교와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또 동족의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유대교에로 복귀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우왕좌왕하는 자들에게 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살길”(20절)인지, 바울의 표현처럼,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지, 왜 그리스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월한 존재이신지, 그리고 왜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우월한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려고 하였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7:25)고 하였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10:22)고 하였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12:2)고 하였다.

히브리서는 논문으로 시작해서 설교로 발전하고 있고, 편지로 마치고 있는 매우 독특한 글이다. 특히 히브리서는 선포와 교훈이 네 차례 반복되고 있는 매우 훌륭한 문체로 쓰인 글이다.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자. 예수님은 우리를 등 뒤에 두고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 우리들 뒤에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앞서가는 그분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믿음(I)(히 10:26-39)

믿음과 인내



금양모피를 찾아 먼 길을 떠난 이아손(Jason)의 용기와 믿음. 금양모피(조상)를 지키는 용(조)과 싸우다가 용에게 먹히는 이아손. 위기에 봉착한 이아손을 구해주고 있는 지혜와 용기의 여신 아테나(우). 히브리서 저자는 영원한 하늘 안식처 가나안을 향해 고난의 행군을 나선 그리스도의 이아손들에게 큰 상을 얻기까지 새로운 산 길을 여신 믿음(희망)의 실상과 증거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할 것과 믿음과 인내의 끈을 놓지 말 것과 담대함을 잃지 말 것을 권면하였다. 믿음과 인내의 끈을 놓지 말 것과 담대함을 잃지 말 것을 권면하였다. 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순종을 반복하다가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에게는 상과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다. 이 점에 대한 대표적인 글이 히브리서와 계시록이다. 히브리서 10장 26-39절의 말씀은 대충 이런 내용이다.

성서는 믿음과 인내에 관한 글이다. 성서는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과 인내로써 이미 받은 구원의 약속을 쟁취하려고 권면한다. 이집트세대의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고서도 광야에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하나님과 모세를

첫째, 진리의 지식을 얻은 뒤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그 때에는 속죄 제사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26절).

둘째, 진실한 믿음과 인내를 보이지 못하고 배신했을 때, 남은 것은 무서운 심판과 그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이라고 말한다(26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이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될지를 생각하라는 것이다(29절). 여기서 “생각하라”는 이집트세대의 히브리인들이 가나안땅을 기점으로 약속하시고 이집트노예에서 해방시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광야에서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순종을 반복하다가 그들을 삼킨 맹렬한 불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죽은 것과 끝내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셋째, 하나님을 처음 믿고, 구원의 빛을 받은 뒤에 그 듯한 고난의 싸움을 견디고 이긴 첫 사랑의 때를 회고해 보라는 것이다(32절). 그 시절에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고, 동일한 처지에 놓인 교우들의 동반자가 되며,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재산몰수를 당하고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쁨으로 당하던 시절을 생각하라는 것이다(33-34절).

믿음의 종류

고생 실컷 하고, 머지않아 수고의 대가를 받아 영생복락을 누릴 텐데, 왜 이제 와서 쪽박을 차려고 하는가,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는가라고 경고하는 말씀이다.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면서도 안식을 얻기까지 잠시 겪는 시련을 견디지 못하여 젓과 꿀을 먹지 못한 조상들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넷째,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고 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에 떠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



조선시대에 가톨릭신자 수만 명이 매를 맞고 다양한 형태의 고문을 당하였으며 1만여 명이 순교하였다. 사진 1번은 곤장을 맞는 모습, 2번은 칼을 두집어쓴 모습, 4번은 주리를 틀리는 모습, 3번은 얼굴을 한지로 덮은 채 돌로 백림으로서 숨이 막혀 죽게 하는 '도모지' 모습이다.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는 뜻의 '도무지'가 이 '도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다. 믿음의 행동은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용기 있게 전진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큰 상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약속하신 상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35-36절).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다섯째, 수고를 마치고 인내의 결실을 수확할 때가 멀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이다. 그분은 결코 지체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인내와 신실한 믿음을 보이고 영생을 얻을 사람들이다(37-39절).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흥해를 건넌 히브리인들의 행군은, 비록 그것이 고난의 연속이었을 지라도, 점점 가나안땅에 다가서는 것이었다. 가나안땅이 멀리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는 행위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세대의 히브리인 대부분이 하나님을 배신한 대가로 멸망당하고 말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지 말자는 것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이다. 신실한 믿음과 인내로써 최후승리자가 되자는 것이 히브리서의 권면이다.

믿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

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마음에 믿는 것을 말한다(롬 10:9). 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의 꽃을 피우지만, 이 꽃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신실한 믿음과 인내이다. 신실한 믿음과 인내는 믿음으로 피운 구원의 꽃을 열매 맺게 한다.

믿음의 연단

악한 세상의 상징인 이집트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곧바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막에서 40년간 단련을 받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채 여전히 사막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는 것의 모형이자 그림자이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나 역경은 재앙이나 저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재앙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장차 겪게 될 무서운 심판과 저주이지만, 환난과 역경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훈련이자 연단이기 때문이다. 서정주 시인의 노래처럼, 봄의 소쩍새 울음과 여름의 천둥과 늦가을의 서리가 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연단의 과정인 것처럼, 신앙인의 시련과 역경은 보다 큰 축복을 얻기 위한 연단에 불과하다.



맹수에게 찢기고 상하는 그리스도인 순교자(모자이크)

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신실한 믿음과 인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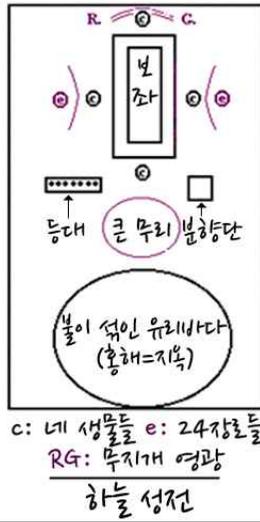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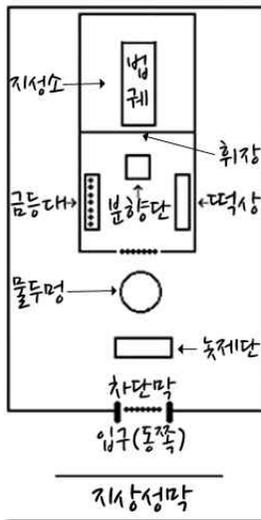
신약성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신실한 믿음과 인내의 모범자로서 각각 예수님과 바울을 설정하고 있다.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이 예수님께서 믿음과 인내로써 걸었던 순례자의 길이었고, 바울이 걸었던 길이었으며,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이지, 저주와 죽음의 길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그 길을 걷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재앙과 환난의 차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글이 히브리서와 계시록이다. 계시록 14장 1-7절을 보면, 힘들고 고달픈 길이지만, 생명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나온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다. 고문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이다.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신앙생활로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계시록 1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해변에 서서 새 노래,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들은 계시록 7장 16-17절을 보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더위에 쓰러지지 않고, 햇빛에 화상을 입지 않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고, 모든 눈물을 씻기고, 구원의 흰옷을 입으며, 빛나는 승리의 월계관을 쓸 자들이다.

24.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믿음(2)(히 11:1-2)

히브리서의 구조주의 모형론



히브리서 저자는 1-10장까지에서 구조주의적으로 옛 언약의 약점(병든 상태)을 들춰냄으로써 새 언약의 장점(건강한 상태)을 강조하였다.

첫째, 대제사장의 차이가

크다. 옛 언약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새 언약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7:28). 따라서 레위 대제사장은 언약에 휩싸여 있으므로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5:2-3; 7:27).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보다 높이 되셨으므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7:26-28; 4:15).

둘째, 성막의 차이가 크다. 지상의 성막은 참 것의 그림자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지만, 하늘의 성전은 참 것 그 자체로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다(9:24).

셋째, 죄를 씻는 피의 차이가 크다. 옛 언약의 피는 황소와 염소의 것이지만, 새 언약의 피는 그리스도의 것이다(9:12-13). 지상 성막에서는 매일 또는 해마다 제사를 드리지만(9:25; 10:11),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씻지 못하고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다(10:3-4, 11). 따라서 지상 성막의 제사로써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7:11, 19; 9:9; 10:1). 반면에 하늘 성전에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흠 없는 자기를 단 한 번 하나님께 드린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7:27; 9:12-14, 25-26; 10:2, 10-14)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5:9; 7:25; 10:14; 12:2).

넷째, 옛 언약인 율법은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지는 것으로써 새 언약인 복음으로 개혁되고 바뀐다(7:12; 8:13; 9:10). 반면에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므로 그분의 대제사장 직분과 복음은 바뀌지 않는다(7:24).

다섯째, 옛 언약 백성인 이집트 탈출세대 히브리인들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약속의 기업을 얻는데 실패하였다(9:18; 8:7-13). 반면에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약속의 기업을 능히 받게 하신다(9:15).

바라는 것들의 실상

히브리서 11장은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선포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소에 이르게 하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10:20). 그러므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유대인들은 문자적 이스라엘 곧 다윗왕국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가 나타나 행할 표적을 바랐고, 헬라인들은 보이지 않는 이데아 세계로 인도하여 들일 영지(gnosis)를 찾게 해줄 지혜를 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다윗왕국과 헬라인들이 찾아 헤매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실상도 아니고 증



욥바뿔 근처의 다윗 망대와 예루살렘의 서쪽 성벽

거도 아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던 왕국의 실상과 헬라인들이 찾던 세계의 증거는 저 영원한 안

식처, 빛의 세계, 하늘 성소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번지수를 잘못 알고 헛수고를 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전 세대들에게 닫혀 있고 신비에 쌓여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하늘 성소로 인도해줄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그토록 바라던 왕국을 기업으로 받고 보이지 않는 빛의 세계에 이르는 새롭고 살아있는 생명의 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증거는 하늘의 별만큼이나 사막의 모래만큼이나 많다. 예수님 때문에 올바른 길에 들어선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깨달았고, 생명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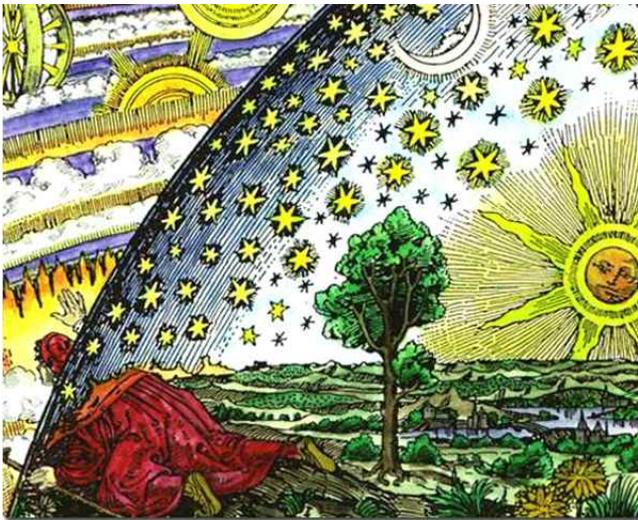
히브리서 11장 1-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말씀에서 ‘바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하티크바’(Ha-Tikvah) 곧 ‘희망’을 말하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올람하바’(Olam Ha-Ba) 곧 ‘장차올 좋은 세상’을 말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연고로 얻지 못했고, 결국은 대다수가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이 대신 받게 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한다.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에서 ‘실상’은 ‘실체,’ ‘확신,’ ‘보장,’ ‘기초’를 뜻한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라는 것’을 이루는 보장이 되고, 실체가 되고, 실상이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

은 당신의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장차올 것을 보장하는 보증금으로써”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것들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의 신분이 비록 천할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으셨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것을 이루는 보장이 되고 실상이 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장차올 좋은 세상,’ ‘약속의 땅’을 전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진입한 것, ‘알리야’(aliyah)라 부르는 ‘오름’을 시행한 것을 말한다. 창세기를 보면, 유대인의 대표자로서 아브라함이 대가족을 이끌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오른 것을 볼 수 있고, 출애굽기를



영지주의 세계관(목각)

우측은 어둠의 세계이고, 좌측은 빛의 세계이다. 해 달 별은 빛의 세계로부터 찬빛이 지상으로 방출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좌측에 빛의 사자들을 통해 영지를 깨달은 한 사람이 어둠을 뚫고 빛의 세계로 탈출하고 있다. 이를 신적 불꽃이 본향을 찾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그들이 기어코 가나안땅을 차지했다 혹은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결과를 얻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이 ‘오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순례자의 길’이다. 신약성서는 이 ‘오름’이 ‘장차올 더 좋은 것’을 향한 십자가의 길, 그러나 끝내 이기고 예수님의 영광스런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의 길임을 말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 것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눈에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오름의 행진을 펼친 후에 끝내는 이기고 그 약속의 증거로 바라고 소원했던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비록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르는 무모한 것일지라도, 끝내 이기고 더 좋은 약속의 증거를 손에 넣게 할 것이고, 바라던 것을 이루게 할 능력이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할 지혜이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고 또 신실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원했던 것을 얻었듯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좋은 것들을 증거물로 얻는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대 선언이다. 그리고 나머지 3-40절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약속의 실체와 실상을 증거로 확보한 명예로운 증인들의 이름들을 열거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영광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영화로운 부활승리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호명할 때마다 천사들이 부는 나팔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것이다(새찬송가 180장).

25.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믿음(3)(히 11:3-32)

믿음 명예의 전당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비록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르는 무모한 것일지라도, 끝내 이기고 약속의 증거를 손에 넣게 하고, 바라던 것을 이루게 할 능력이며,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할 지혜이다. 심지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3절). 따라서 신실한 믿음과 인내로 신앙인들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얻었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대 선언이다. 그리고 나머지 11장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인내로 나아간 후, 그 약속의 실체와 실상을 확보한 증인들의 이름들을 열거한 곳이다. 여기에 열거된 이름들은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전당에 헌액(獻額)된, 곧 우수한 업적을 인정받아 명예로운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의로운 자’란 증거를 얻은 것을 보아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린 것이었다(4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은 것을 보아 에녹은 믿음으로 산 채로 승천한 것이었다(5절). 이로써 우리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복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을 보아 노아는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생명을 살린 것이었다(7절). 히브리민족의 나라를 세울 땅을 찾아 나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을 보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훼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었다(8절). 하나님이 히브리민족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을 보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체류한 것이었다(9-10절).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을 보아 사라는 믿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미쁘심을 안 것이었다(11절). 이로써 믿음은 그 능력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나이가 많아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단지 믿음 하나로 큰 민족을 이루었다(12절). 그러나 이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 당대에 약속의 땅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떠돌이와 외국인 신분으로 그 땅에서 살다가 죽었고, 그 땅에 자기 민족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희망하였다(13절). 다른 한편, 그들은 죽고 나서 더 좋은 본향이 있는 것을 알고 사모한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 안식처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다(13-16절).

믿음의 영웅들(1)

이삭은 아브라함의 희망을 성취시킬 유일한 약속의 아들이지만, 그 이삭마저 바치라는 큰 시험을 받을 때, 모든 약속과 희망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을 알면서도 순종함으로 이삭을 바친 것을 보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것이다(17-19절).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특출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활의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최초로 가나안땅에 자기의 후손인 히브리민족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는 희망을 품은 인물이다. 그런데 그 때는 이미 늙고 아직 아들도 없던 때였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믿음으로 외아들 이삭은 부친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믿음으로 손자 야곱은 조부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믿음으로 증손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증조부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히브리민족의 희망의 끈은 짧게는 430년, 길게는 645년의 길고 긴 세월을 거쳐 믿음으로 이어졌고, 그 희망의 끈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에게까지 이어졌다(20-23절).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왕궁의 호화로운 삶을 버렸고, 보이지 아니하는 야훼를 보는 것 같이 믿었으며, 야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히브리민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내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믿음으로 히브리민족을 이끌었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율법과 조직을 정비하였다. 조상들의 하나님, 가나안땅에 히브리민족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기로 약속하신 야훼를 섬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믿음으로 히브리민족을 이끌어 요단강을 건넜고, 믿음으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러고를 정복하였다. 이밖에도 조상 아브라함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믿음의 영웅들은 기생 라합을 비롯하여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수없이 많다(24-32절).

그러나 그들이 바랐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약속의 땅은 역사의 회오리에 요동치고 부침이 심해 참 안식이 없는 이 지상 가나안땅이 아니고, 저 안전하고 복된 안식처인 하늘 가나안땅이었다. 따라

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름의 행진과 그 방향을 바르게 재설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하늘 가나안땅 예루살렘 시온에 오르는 “새로운 살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말하였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고 힘겹게 쟁취한 가나안땅은 제국들의 말발굽에 짓밟혀 주권을 빼앗긴지 반천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희망하는 ‘올람하바’ 곧 ‘장차올 세상’은 유대교인들이 희망하는 것처럼 이 지상이 아니라 저 하늘이란 점을 분명히 밝혔다.

믿음의 영웅들(2)

믿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마음에 믿는 것을 말한다(롬 10:9). 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의 꽃을 피우지만, 이 꽃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름은 신실한 믿음, 순종의 믿음, 인내의 믿음이다. 한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믿음, 순종의 믿음, 인내의 믿음이 화려하게 핀 구원의 꽃을 풍성한 열매로 결실을 맺게 하는 거름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영웅들의 믿음은 구원의 꽃을 피운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한 신실한 믿음, 순종의 믿음, 인내의 믿음이었다. ‘구원의 꽃을 피운 믿음’이 칭의(의롭다 하심)의 믿음이라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한 순종과 인내의 믿음은 성화(영화롭게 하심)의 믿음이다(롬 8:30).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군대를 물리쳤다. 믿음의 여걸들도 믿음으로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만났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또 믿음의 영웅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고, 결박을 당하고, 감방에 갇혔지만,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겼다. 또 그들은 돌로 맞고 톱으로 켜이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다. 박해 중에 이들은 숨을 곳을 찾아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맸다.

천성을 향한 행진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들의 행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꺼려했고, 헬라인들은 어리석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오름의 행진은 위대한 행진이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행진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보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본향에 오르는 길이 그들이 오르는 길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하늘 시온성에 오르는 길이고, 그들이 가는 길은 지상 시온성에 오르는 길이다. 지상 시온성이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문자적으로 세우기를 바라는 시온성일 뿐 아니라, 세속주의자들이 하나님 없이도 세울 수 있다고 믿는 과학기술문명사회 또는 인본주의에 근거한 메시아주의를 말한다. 그러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천성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시 84:5).

26.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믿음(4)(히 11:33-40)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영성(I)



조선시대 서소문(소의문)의 모습
 항사영을 비롯한 조선 가톨릭 성인 44인과 수많은 신자들이 이 서소문
 밖에서 순교하였다. 서소문은 일제 강점기인 1914년에 철거되었다.

믿음의 영웅
 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
 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
 속된 것을 받
 고, 사자의 입
 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
 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
 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군대를 물리쳤다. 믿음의 여걸들도 믿음으로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만났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또 믿음의 영웅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고, 결박을 당하고, 감방에 갇혔지만,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겼다. 또 그들은 돌로 맞고 톱으로 켜이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떠돌았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곳이 못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맸다. 그런데도 유대교인들이었던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계획 속에 포함시키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제쳐놓고 유대교인들만 약속된 것을 받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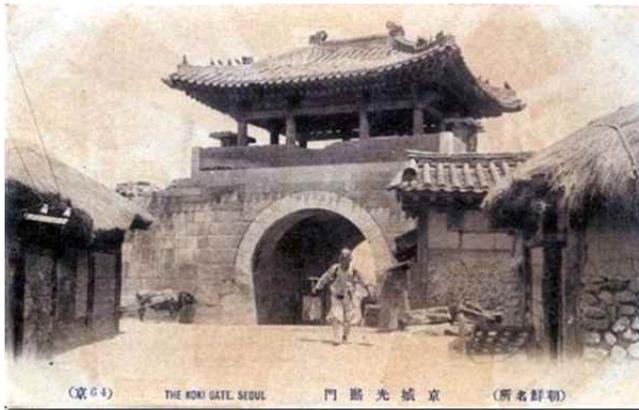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물리적 총칼의 박해와 이단의 거짓진리에 맞서야 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는 물리적 박해와 거짓진리로 인해서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권면하는 내용과, 바른 신앙을 변호하는 내용이 많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예배와 교육, 조직과 치리를 위한 내용도 많다. 특히 신약성경은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대부분이 기록되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가 유대당국과 로마당국으로부터 가혹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자들의 도전을 강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이다. 이 땅의 교회들도 총칼의 박해와 거짓진리에 맞서야 했다. 따라서 가혹한 탄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역사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영적 문화적 세속적 탄압을 받고 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국 기독교의 순교역사는 크게 두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다산 정약용의 매형 이승훈이 1784년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때로부터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1886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03년에 이르는 이 기간에 가톨릭 신자 1만 여명이 순교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영성(2)

둘째는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이후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까지 40년간 받았던 일제의 탄압과 해방이후 공산군의 남침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에 개신교에 속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였다. 특히 3·1독립만세운동이 있었던 1919년과 신사참배가 본격적으로 강요되던 1938년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참혹한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되었다.

6·25때, 공산군의 만행으로 인한 그리스도교의 피해는 초기 가톨릭



동남쪽에 있었던 조선시대 광희문의 모습
 신유박해(1801)부터 기묘박해(1879) 때까지 처형된 가톨릭 신자 794인의 시신이 광희문 밖에 버려지거나 묻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릭교회가 당한 박해와 성격이 같은 것이었다. 조선당국이 가톨릭교회 자체를 이단시하여 박멸하려고 했던 것인 만큼,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종교를 마약으로 간주했던

공산군들이 유물론 사상에 입각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사살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민족의 그리스도교 순교 역사를 보면, 로마제국으로부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박해에 못잖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경이 그 시대의 고난당하는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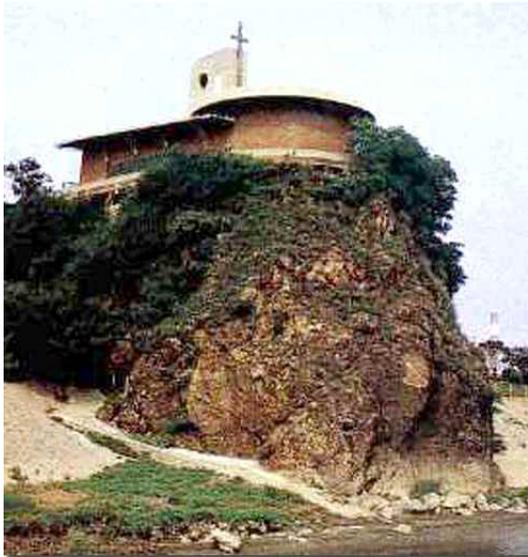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에 자랑할 만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조선 땅에 가톨릭 복음을 들여오고 교회를 세운 것이 선교사가 아닌 조선선비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이다. 조선 땅에 그리스도교 복음을 들여오고 교회를 세운 것이 선교사가 아닌 선비출신의 조선인 보따리장수들이었다. 둘째는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이 흘린 선혈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점이다. 셋째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래가 드문 빠른 성장을 하였다라는 점이다. 넷째는 조선 기독교인들의 신앙영성이 매우 뛰어났다는 점이다. 그들의 뛰어난 신앙영성 몇 가지만 소개하겠다.

첫째, 조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들어 모시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살았다. 경북 상주시 청리면 삼괴2리에 있는 재실 마을에 1890년 중반에 가톨릭 신자인 김삼록이 세운 조선인 모습의 신앙고백비가 있다. 얼굴 부분은 십자가 모양으

로 만들었고, 그 위에 갓을 씌웠다. 김삼록은 얼굴 부분인 십자가 중앙에 ‘천주’(天主)라고 크게 쓰고, 몸통 부분 상단에 ‘천주 성교회 성호 십자가’라 쓰고, 그 아래에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들어 모시고, 둘째부터 넷째까지는 성직자들을 직위별로 차례로 위하고, 마지막 다섯째는 교우를 위한다고 적었다. 오직 하나님과 교회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위대한 신앙고백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영성(3)

둘째, 조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 교인들은 서로를 교우라고 부르며 양반이니 상놈이니 하는 신분을 따지지 않았다. 황일광이란 백정출신의 가톨릭 신자가 있었다. 그는 청소년 시절을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보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교우들은 그를 친형제처럼 대우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농담조로 “사람들이 너무 점잖게 대해 주기 때문에 내게는 이 세상에 하나, 또 후세에 하나, 이렇게 천당



두 개가 있다.”고 하였다. 또 윤권명이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종들을 모두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기도 했다.

셋째, 조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조선에서는 유일하게 팔, 다리, 머리를 잘라 전국 각지에 보내는 육시형을 1801년에

절두산(양화진 잠두봉) 가톨릭 성지
 영인박해(1866)부터 기묘박해(1879)까지 이곳 잠두봉
 정상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침수하여 목이 한강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곳에서만 일만여 명의 신자들이 처형당하였다.

당한 전주지방의 순교자 유항검의 처 신희는 배교하고 목숨을 건지라는 관리에게 “그리스도교는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 남편이 그로 인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있으면서 섬기는 도리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빨리 죽기를 원할 뿐이다.”고 했고, 유항검의 동생 유관검의 처 이육희는 “국법이 비록 엄하지만 그리스도교도 소중하다. 살기를 피하여 배교하기보다 순교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유항검의 조카 유중성 역시 “죽기를 원할 뿐이다. 다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고 대답하였다. 유항검의 아들 유중철과 이순이 부부도 유항검과 함께 체포되어 참수형을 당했다. 이순이는 유중철과 결혼하였으나 4년간을 부부생활 없이 정결하게 지내다가 참수형을 받았다. 그녀는 망나니 앞에서 매우 침착한 자세로 옷웃을 벗었고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머리를 도끼 밑에 놓았다고 한다.

1866년 보령 갈매못에서 참수를 당했던 프랑스 신부 다블뤼 주교는 젓먹이가 딸린 여인들이며 노인과 처녀들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손에 들고 자신이 머문 충남 합덕에서 가까운 신리공소로 3일, 6일 또는 8일씩 걸어서 찾아왔고, 잡히면 처형될 것을 잘 알면서도 그 먼 산길을 발이 붓고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는 것과 혹심한 추위를 무릅쓰고 찾아왔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는 밤이 맞도록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은 결코 그만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전하였다. 그들은 엄중한 국가법을 알면서도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멀고 험한 산길을 남몰래 숨어서 걸었던 것이고, 그들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27.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히 12:1-13)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인내로써 완주하자



비잔틴제국시대의 주화(주후 10-11세기 사이)
 전면 예수님의 흉안에 십자가 후광을 가슴에 복음서를 새겼고,
 뒷면에 "IHVSU X RISTVS BASILEVS BASILEVS"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왕)이라고 새겼다.



비잔틴제국시대의 주화(주후 969-1081년)
 전면 예수님의 흉안에 십자가 후광을 가슴에 복음서를 새겼고,
 뒷면에 "IC XC NIKA"(예수 그리스도, 승리자)라고 새겼다.

히브리서 12장은 네 번째 교훈에 담긴 내용이다. 1-5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모델로 한 경주에 관한 권면의 글이다. 1절의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영웅들이다. 그들은 수동적 구경꾼으로서가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로서 진리를 고백하고 확증하였으며, 일부

는 목숨까지 바친 순교자들이다. 비록 그들은 약속의 실체를 받지 못했지만 삶 속에서 약속의 실체를 기다리며 증언한 자들이다. 여기서 “약속의 실체를 받지 못했지만”이란 뜻은 믿음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곳 지상 가나안 땅은 그림자일 뿐이

고, 장차올 더 좋은 실체 곧 하늘 가나안 땅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믿음의 영웅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의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동참할 때까지, 곧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그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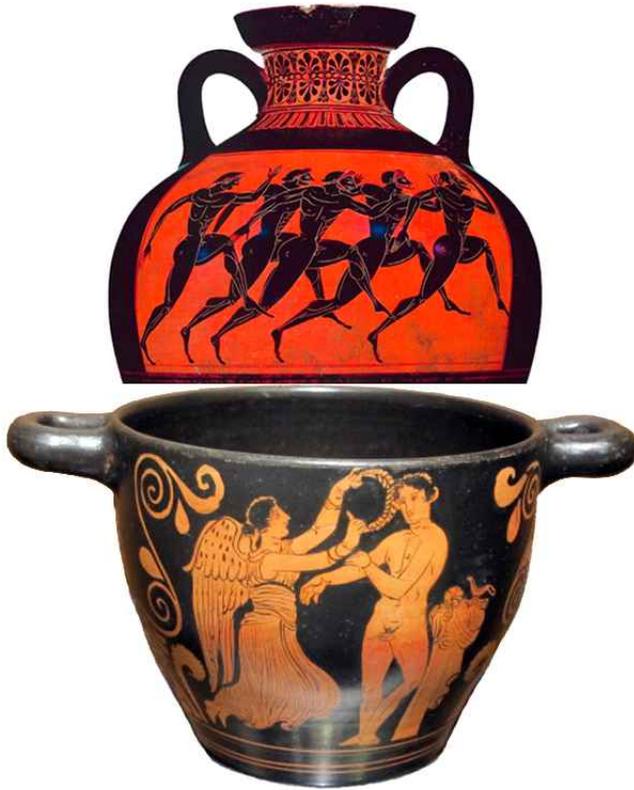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시합에 나가 달리는 자가 경주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이나 거추장스런 것들을 말한다. 고대 헬라인들이 시합 중에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 경기를 했던 관습에서 나온 말이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거추장스런 죄를 벗어버리자는 것이다. 또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는 마라토너처럼 우리가 마땅히 달려야 할 길을 인내로써 완주하자는 뜻이다.

2-3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는 믿음을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승리의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부끄러움도 상관치 않고 적대자들의 박해와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 영광을 차지하셨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한다면, 좌절하거나 주저앉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인내로써 경주하게 된다는 뜻이다.

주님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약속하셨다(계 3:21). 바울도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롬 8:17)고 하였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저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이 말씀은 안도현의 시,



저장 항아리(Amphora)에 그려진 달리기 시합과 술잔(Kylix)에 그려진 여신 승리(Nike)와 우승자. 시합에서 이긴 우승자가 월계관을 받아쓰고 있다.

“너에게 묻는다...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가 생각한다. 5절에서 저자는 잠언 3장 11절을 인용하여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나의 아들이,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고 하였

다. 부모는 아마도 안도현의 시어처럼 제 자식이 언젠가는 자기를 끝닿는 데까지 밀어붙여 활활 타오르기를 바랄 것이다. 한 장의 연탄처럼 제 자식이 뜨거운 밀불위에 올라앉았을 때 낙심하지 않고 밀불의 바통을 이어받아 서서히 별장게 달아오르며 찬란한 끝장을 보는 것일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다. 부모가 자녀들을 훈련시키듯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시킨다. 그때 그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듣더라도 낙심하지 말며, 그 훈련을 잘 참아 내라는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예수님에 비교되는 인물이 헤라클레스이다.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은 ‘알케이데스’가 자신에게 운명으로 부과된 극

한의 시련과 역경을 다 이긴 후에 얻게 된 이름으로써 ‘헤라의 영광’이란 뜻이다. 그는 자신에게 부과된 가엾은 운명과 싸울 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했고, 지혜의 신 아테나의 도움을 받았으며, 최후까지 신 앞에서 겸손하였다. 그런 그를 두고 독일의 시인 실러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용감한 헤라클레스는 끝없이 싸우며 괴로운 가시밭길을 걸었다.... 헤라의 증오는 지상의 모든 고뇌를, 지상의 모든 수고를 그에게 지웠으나, 운명의 생일로부터 저 장렬한 최후의 날까지 그는 이 수고를 훌륭하게 참아내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바른 길을 달려가라

히브리서 12장 6-13절까지는 훈련과 인내에 관한 권면의 글이다.



부모가 자녀를 훈련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가 어떻게 사랑받는 자녀이겠는가?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생아지, 참 자녀가 아니라고 말한다. 훈련시키는 육신의 부모도 공경해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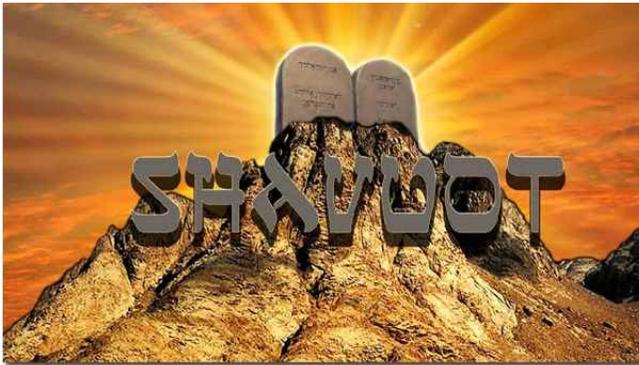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달리는 필리피데스(Philippides, 주전 490년)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무찌른 직후 아테네 군사였던 필리피데스가 목장한 채로 아테네까지 40km를 달려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승전보를 전하였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정복자요!” “ΧΑΙΡΕΤΕ ΝΙΚΩΜΕΝ”(카이레테 니코멘).
 ‘복음’이란 뜻의 ‘유앙게리온’(euangelion)은 이 승전보(‘카이레테 니코멘’) 또는 이 승전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버지게 순종하며 훈련을 잘 참고이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고 말한다.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의 훈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훈련이 다 그랬듯이, 받을 당시에는 괴롭지만, 받고나면 고생한 보람이 있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므로 훈련받지 못해 시들부들한 사람처럼,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의 사람이 되지 말고, 훈련을 잘 마쳐서 꼳꼳하고 똑바로 걷는 씩씩한 용사가 되라고 말씀한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격언이 있듯이, 훈련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하였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련과 연단을 받도록 허락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시지 않고, 그들이 당하는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실 뿐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의 시험과 시련이 자기 자신의 문제나 주변 환경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시련을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지 않고,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다. 목표를 정해서 가는 길에 산이 나타나면 산을 넘어야 하고, 강이 나타나면 강을 건너야 한다. 바다가 나타난다면, 바다도 건너야 한다. 하늘이 가로막는다면, 하늘을 날아야 한다. 그래야 목표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듯이, 산과 강과 바다와 하늘이라는 장애물들은 인간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자동차를 만들게 하며, 비행기를 만들게 하였다. 시련이 인간에게 기술과학문명을 가져다준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요 16:33)고 하셨다. 성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을 최후 승리자가 되어 월계관을 쓰는 것이라고 말한다.

28.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히 12:14-29)

주님을 뵈는 길



유대교인들은 이집트 시대 조상들이 첫 유월절 다음날 고센 땅을 출발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시나이산에서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오순절(Shavuot) 명절을 지킨다.

히브리서 12장 14-17절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뵈는 길에 대해서 말한다.

14절은 주님을 뵈는 길 이 ‘모든 사람 과 더불어 화

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단절된 관계와 원수된 관계를 화목된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 친히 화평의 제물로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화평의 선물로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은 인간끼리의 정의로운 화평이 없이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하심을 얻지 못하고서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 시온산의 주님을 뵈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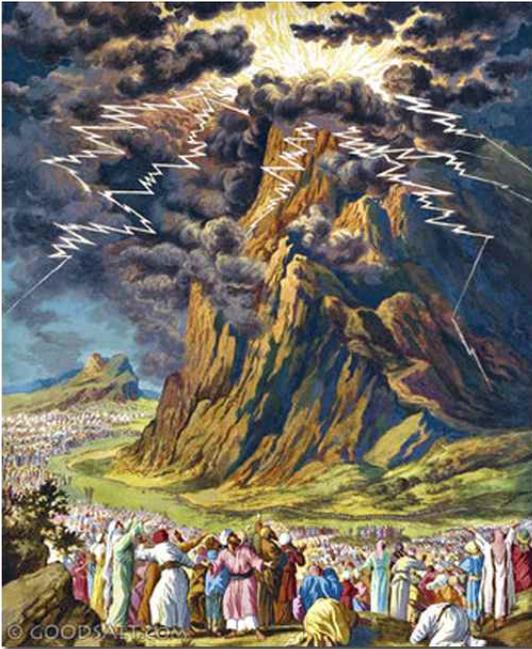
15절은 주님을 뵈는 길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

람'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란 그리스도교 신앙을 버리는 배교행위자를 말한다.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가족과 동족의 탄압을 이기지 못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신명기 29장 18절을 근거로 “쓴 뿌리가 돌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라”고 권면한다. 여기서 ‘쓴 뿌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의 강팍하고 악한 마음을 말한다. 강팍하고 악한 독초의 뿌리 같은 의심과 배교의 행위는 전염성이 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16-17절은 주님을 밍는 길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경박하고 속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16절에서 “음란한 자”란 하나님께 고백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한 자를 말한다. 그런 자들은 경박하고 속된 자들이어서, 마치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버스 떠난 후에 손을 흔드는 사람처럼, 또 에서가 뒤늦게 깨닫고 이삭의 축복을 상속받고자 하여 눈물까지 흘리며 간구하였지만 거절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으므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욕신의 쾌락과 안락을 미덕으로 삼고, 신앙과 고난이 주는 영적인 축복과 소중한 가치를 에서처럼 빵조각을 위해서 팔아먹어 버리는 행위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가 그것을 짓밟는 행위와 같다는 것이다.

하늘 시온산의 우월성

18-24절은 옛 언약이 주어진 시내산과 중재자 모세와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고, 하늘 시온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한 말씀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상속자들인데, 에서처럼 장자의 권한을 가진 자들인데, 그것이 당장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해서 팔죽 한 그릇에 팔아 치워버



오순절 언약식 날에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자 우리와 번개와 백백백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자욱한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이에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출 19:16-18).

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반성하자는 것이다. 야곱이 에서와 달랐던 점은 당장의 배고픔보다 장자권을 더 높게 평가했다는 점이다.

18-24절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하늘나라임을 말해준다. 저자는 여기서 두 장소와 두 인물을 비교한다. 시내산과 모세는 일시적이고 유한한 땅의 것의 상징이고, 하늘 시온산과 예수님은 영원하고 무한한 하늘의 것의 상징이다. 시내산과 모세는 장차올 좋은 하늘 시온산과 예수님의 모형이자 그림자이고, 장차올 좋은 시온산과 예수님은 이미 나타난 시내산과 모세의 실체란 점을 밝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도달한 곳은, 유한한 땅의 것이 아니고, ‘시온산,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한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한 곳은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려고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나와서 도열한 곳이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곳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좌하는 네 케루빔과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과 24장로들과 천군천사들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계 7:9)가 도열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을(계 9:12) 씬 없이 돌려보내는 곳이다.

또 그곳은 괴로운 가시밭길을 걸었던 헤라클레스가 장렬한 최후의 날까지 모든 수고를 훌륭하게 참아낸 후에 천상에 올랐을 때, 올림포스의 신들이 그를 맞으러 제우스의 대전으로 모였다는 그리스신화를 연상케 한다. 따라서 18-24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하늘 시온산에 오르는 날,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군천사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최후의 승리자로서 월계관을 받아쓰게 될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25-29절은 ‘흔들리는 것들’과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구별하고 있다. ‘흔들리는 것들’은 유한하고 일시적인 피조물을 말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무한하고 영원한 천상의 것들을 말한다. 최후 심판 때에 대격변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게 되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에 속하여 남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흔들리는 것들’에 속하여 소멸의 불이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한다.

25절에서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고 한 것은 이집트 탈출 세대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과 모세의 경고를 듣고도 거역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오순절에 수확하는 이스라엘 농산물과 사마리아인들이 매년 그리스산에서 펼치는 오순절 축제

서 죽었던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또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 일까 보냐?”

고 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전한 옛 언약을 파기했던 히브리인들이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운 새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은 더욱 더 안식의 땅 하늘 시온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 말씀이다.

26절에서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히브리민족과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 인해서 땅이 흔들렸던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또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는 말씀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땅의 흔들림보다 훨씬 강력한 대지진이 최후심판 때에 있게 될 것을 경고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한 말씀이다.

히브리서 12장 14-29절의 경고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과 문제들에 던지는 경고의 말씀이다. 우리 모두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상속자들이다. 이 영원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기자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의 권면이다. 그러므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구원에 이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인내와 확신과 감사와 경건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29. 영원히 한결같은신 예수님(히 13:1-14)

영원히 한결같은신 예수님



하나님이 기울이시는 최대관심은 인간이다. 인간들을 관계단절에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원상회복과 화평을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깨진 관계복원을 위해서 인간들에게 먼저 취해야 할 어떤 행동이나 제물을 바치도록 요구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이 먼저 솔선해서 화목제

물이 되어 희생당하시고 그 사랑의 힘과 신뢰를 바탕으로 깨진 관계가 복원되도록 하셨다. 이 사랑을 성서는 ‘아가페’라고 말한다. ‘아가페’는 ‘just love’를 말하는 것으로써 ‘의로운 사랑’이란 뜻이다. 이 사랑은 자기희생과 자기 포기를 통해서 의로움을 세우는 희생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죄인을 벌춤으로써 세워지지 않고, 죄인을 대신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세워졌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박고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웃사랑

의 가치를 뺀고 잎사귀를 내어 공동체발전이란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라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1-8절의 내용이다.

인간의 하나님 사랑이나 관심은 이웃사랑에서 증명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한다.

나그네와 감옥에 갇힌 자들을 꼭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 우리 주변에 정신적 영적 물적으로 나그네 된 자들과 갇힌 자들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정신적 영적 갇힘의 현상을 ‘코쿤현상’이라고 말한다. ‘코쿤현상’이란 애벌레가 고치를 짓고 그 속에 자신을 가두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코쿤현상’은 병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한테서도 발견된다. 매사를 자기중심에서 남을 생각하고, 자기우상에 빠져서 남을 이단시하는 것도 ‘코쿤현상’이다. 자기중심에 갇힌 사람, 자기 우상에 갇힌 사람,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남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지 않을 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이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며 헌신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가둔 고치를 뚫고 나온 나비가 세상을 향해 날갯짓하며 꽃가루를 옮겨 열매를 맺게 하듯이 정신적 영적 부활의 정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살림의 일이 풍성하다.

사람을 깨끗케 하시는 예수님

가정경제의 어려움만큼 우리를 낙심시키고 팔다리에 기운을 빼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언제나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 일시적인 것에 착념치 말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얻고자 힘쓰며, 말씀으로 신앙을 지도하는 목회자들을 기억하고 본받자고 말한다. 또한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신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을 신



헤라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헤라클레스가 자신에게 운명처럼 부과된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 곧 인생의 가시밭 길을 영웅적으로 마친 후 신들이 머무는 대전에 올라 헤라로부터 월계관을 받아쓰는 모습.
(Martin Desjardins, 1671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되하며, 그분을 기억하고, 눈과 마음과 생각을 그분에게 고정시켜, 그분에 대한 믿음과 인내를 경주하여 최후의 승자가 되자고 권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군과 천사와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성도들이 운집한 큰 집회에서 영광스런

월계관을 받아 쓸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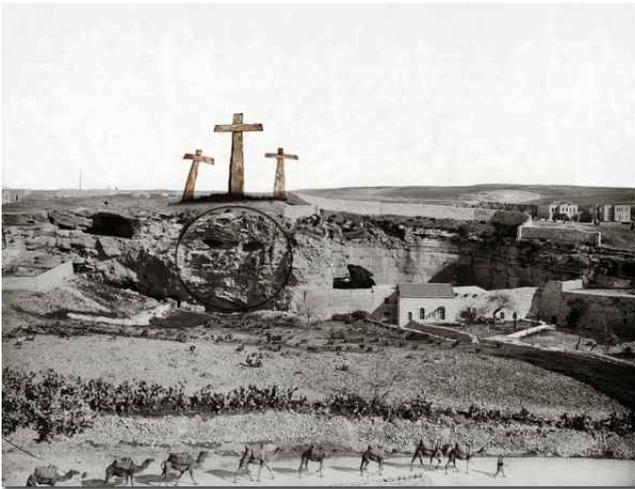
유대인의 식탁은 제단에 가깝다. 특히 저녁식사는 매우 종교적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식사가 너무 종교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방인들과의 식탁교제를 막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유대교인들은 그들의 종교법에 따른 '코쉬' 곧 정한 음식만 먹을 뿐 아니라, 고기제품을 우유제품과 함께 먹을 수 없고, 고기제품에 접촉된 그릇들은 우유제품에 쓸 수 없고, 반대로 우유제품에 접촉된 그릇들은 고기에 쓰일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사실상 차단시키고 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성결하다 해도, 사람을 깨끗케 하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깨끗케 하는 것은 마음의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지, 특정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셨다. 죽음의 근원인 죄악을 마음에서 제거

하지 않은 채,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해서 결코 성결해질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주의 만찬은, 안디옥교회를 섬긴 이그나티오스 교부가 에베소 서신에서 밝힌 것처럼, “불사(不死)의 약(藥)이요, 죽음의 해독제”이다. 그리스도께서 당한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에 불사(不死)의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역설(paradox)이 먼 옛날 유대인들에게는 수용하기 힘든 뜨거운 감자였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 역설이 믿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試金石)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불사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이다.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

이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고 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에서 ‘우리



옛 예루살렘의 북쪽 성벽에서 바라본 해골(원안)의 언덕(1901년)
 옛 성전 근처 성문인 ‘양의 문’(The Sheep Gate) 밖에 위치한다.
 1880년 찰스 고든(Charles Gordon)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가 바로 이 성문 밖 언덕이었을 것이라고 새롭게 주장하였다.

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제단’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 상을 말한다. 그리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들에 참여할 분깃이 없다는 뜻이다. 그 이유를 11절,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제사의 경우에 제사장들은 제물의 일정부분을 자기 몫으로 취하게 되지만,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초막절 5일전에 드리는 대속죄제의 경우, 제물을 모두 진영 밖에서 태워버렸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몫이 없었던 점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 또 12절에서 “그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한 것은 연중 한번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희생제물이 진영 밖에서 모두 태워졌듯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하신 사실을 말한 것이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이루신 대속사역의 축복들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는 이 대속의 은혜를 값없이 은혜로 입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옛 언약법이나 음식 규정에 매이지 말고,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고 권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진영 밖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의 수난을 다 참고 견디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도달한 곳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이 땅의 시온성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시란 점을 14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자”는 것이다.

30.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히 13:15-25)

찬송과 봉사의 제사(1)



24시간 금식하는 대속죄일(보통 추석 5일전)이 시작되는 해질 무렵에 유대인들이 회개 기도와 함께 새해(보통 추석 15일전) 유대인들의 새해)에도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인봉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저녁 기도. 유대인들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이 '시두르'(Siddur)라 불리는 기도서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에는 형식과 의식을 갖춘 제의예배도 있고, 몸과 시간을 바쳐 섬기는 헌신예배도 있다. 15절은 찬송의 제사 곧 제의예배를, 16절은 봉사의 제사 곧 헌신예배를 설명한다.

15절의 “찬송의 제사”는 찬양제물 곧 찬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말한다. 히브리어 저자는 “찬송의 제사”를 “예수로 말미암아”하자라고 했다.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고, 16장 23절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하셨다. 여기서 “내 이름”은 “예수” 혹은 ‘예슈아’라는 이름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멸망이후 오늘날까지 기도할 때마다 ‘야훼’(YHWH)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셈이시여!’(Ha-Shem) 곧 ‘그 이름이시여!’라고 불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기도서(시드ურ), 54주 파라샤 (토시모경)와 하트타라(구약예언서) 등의 앱이 담긴 스마트폰

렸다. 반면에 초창기부터 그리스도교에서는 야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였다. 그 동기와 이유를 밝혀준 곳이 요한 복음 16장 23-24절이다. 2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하였고,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 하리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셈’에게 바치던 기도습관을 고쳐 자신의 이름으로 야훼 하나님께 구

히브리서 저자는 “찬송의 제사”를 항상 혹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자고 권하면서 이는 “그 이름(Ha-Shem)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였다. “입술의 열매”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찬양 또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베라카’라 불리는 기도, 곧 “복 받으시옵소서. 하셈 이시여!”로 시작하는 기도를 많게는 하루에 100개 정도를 한다. 이들 기도 가운데 하루 세 번 회당에 모여 서서 바치는 ‘아미다’(Amidah) 혹은 ‘쉐모네 에스레이’(Shemoneh Esrei)라 불리는

18(19)개 기도문을 보통 음송(吟誦)하거나 단조로운 가락으로 노래(chanting)한다. 이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성전예배와 회당기도회 때는 물론이고 일상에서 겪는 희로애락을 표현하고자 할 때 시편을 낭송해왔다.

찬송과 봉사의 제사(2)

특히 시편 120-134편은 ‘성전에 오르는 노래’로써 미문 안쪽 성전영내의 여성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로 오르는 15계단을 오를 때 혹은 그 계단에 도열한 찬양대가 부른 노래였다. 유대인들은 아침기도회(Shacharit) 때 부르는 ‘페수케이 드지므라’(Pesukei d’Zimra, ‘노래 구절들’)를 비롯하여 예배의 특성에 따라 많은 시편들을 낭송한다.

가톨릭과 성공회를 비롯한 전통교회들에서 기도서가 사용되듯이, 유대인들도 ‘싯두르’(siddur, ‘순서’)라 불리는 기도서를 사용한다. 이 ‘싯두르’에 매일 낭송해야하는 기도문들이 실려 있는데, 시편 전체나 선별된 구절들이 담겨있다.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은 초기 그리스도교 예배 때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불렀음을 보여준다. 에베소서 5장 19절은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하였고,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다. 특히 에베소서 5장 19절에 담긴 “서로 화답하며”는 초기 그리스도교 예배 때 시편이 낭송되거나 교독되었음을 보여준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란 구절은 유대인들이 회당기도회 때 읽었던 성구와 찬양했던 시편에 관련이 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54개로 쪼개 읽었던 ‘토라’(Torah)와 ‘하프트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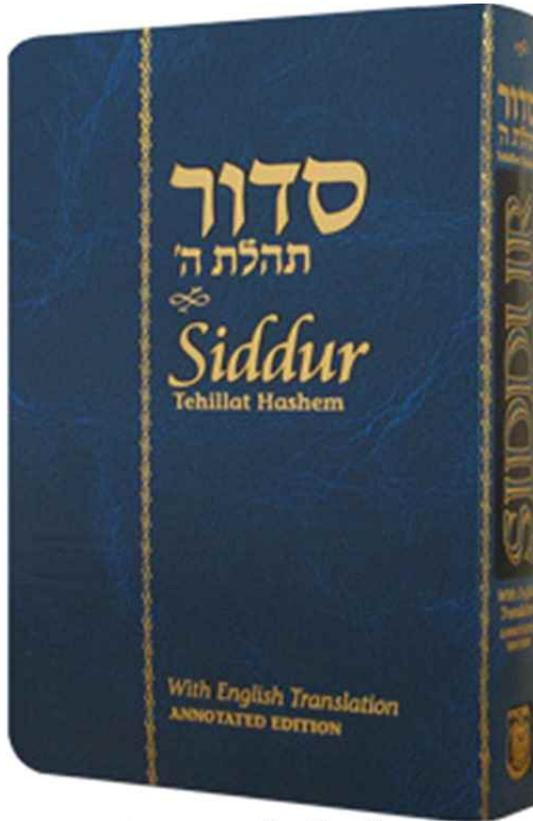
라'(Haftarah)를 말한다. '토라'는 모세오경을, '하프타라'에는 역대 기서가 제외된 역사서들과 예언서들이 포함된다. 주 3회 곧 안식일, 월요일, 목요일 아침기도회 때 읽히는 토라는 54개로 쪼개져 일 년에 한 차례 완독되지만, 하프타라는 해당 주 요일에 읽히는 토라와 관련이 있는 선별된 구절들만 읽힌다. 예수님께서 토라와 하프타라와 함께 시편까지 언급하셨던 것은 유대인들이 성전예배와 회당기도회 때 시편을 낭송했기 때문이다. 또 누가복음에 시편까지 언급된 것은 초기 그리스도교 예배 때 시편이 불렀던 정황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

17-25절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또 작은 목자들인 목회자들에게 순종할 것과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과 저자가 기원하는 축복에 관한 글이다. 저자는 목회자들의 말을 곧이듣고, 복종하라고 권면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목회자들을 괴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빌고 있다. 22-25절은 축복과 작별 인사이다.

이상으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다. 히브리서 13장의 핵심메시지는 '영원히 한결같은 예수님,'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 양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양들을 장차 올 영원한 세계에 인도할 위대한 목자이시다. 그러므로 큰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장차 올 세계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보고, 혼인을 귀



하게 여기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에 착념하지 않으며,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눈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그분에게 고정시켜, 인내로 경주하며, 최후의 승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군과 천사와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성도들이 운집한 큰 집회에서 영광스런 월계관을 받아 써야한다. 또 그리스도께서 당한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에 불사(不死)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유대교의 기도서 '시두르'(Siddur). 'Tchillat Hashem'는 문자적으로 '그 이름(Hashem)께 바치는 기도들'(Tefillat)이란 뜻으로써 '기도서'를 의미한다. 주의 만찬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그 같은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와 선행과 봉사의 예배로 기쁘시게 해야 한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듯이,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쉬지 말아야한다. 그럴 때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3.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히 10:26-39)

히브리서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려하는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신성(神性)을 부인하는 자들이지만, 히브리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왜 그분이 천사나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신지, 왜 그분이 아론계열의 대제사장들보다 우월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유대교인들의 희망의 실상이요 증거이시며,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는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분, 장래 좋은 것을 가져오실 분,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신 큰 목자로 소개하였다.

히브리서의 예수님 소개 방법과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과 바벨론유배 전후에 예언된 메시아(제2의 모세, Moshiach)와 신정국가(올람 하바, Olam Ha-Ba) 도래에 대한 오래 묵은 유대교인들의 희망 때문이고, 둘째는 장차 나타날 구원자 제2의 모세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이었다. 유대교인들은 메시아가 단지 인간일 뿐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적(神的) 혹은 반신적 존재나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인들의 이러한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실체와 그림자,’ 혹은 ‘원형과 모형’으로 명확하게 구분지어 설명한다. 유대교인들이 바라는 ‘그 희망’(Ha-Tikvah)의 내용들은 땅의 것이고, 유한한 것이며, 일시적인 것이고,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한 것이며, 기독교인들의 희망은 하늘의 것이고, 무한한 것이며, 영원한 것이고, 장차올 좋은 것들의 실

체와 원형임을 밝힌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땅에 속한 아론계열의 대제사장이나 다윗혈통의 제2모세가 아니라, 천사와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아론계열의 그 어떤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난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육신에 속하여 연약하고 무익하며 폐지된 율법을 따르지 않고, 불멸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맹세로 된 대제사장으로서는, 그 직분이 영원히 보장되어 인류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 대제사장이심을 밝힌다.

히브리서 설명의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구약성서내용을 신약성서내용의 모형과 그림자로, 신약성서내용을 구약성서내용의 실체와 원형으로 설명하는 모형론(또는 유형론, typology)이다. 모형론에서는 먼저 있는 것이 나중 있을 더 좋은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이며, 나중 있을 것은 먼저 있는 것의 원형이자 실체로 본다. 따라서 ‘구약의 예법과 성막’(9:1)은 신약의 가르침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그림자요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은 구약의 예법과 성막의 원형이요 실체가 된다는 설명이다.

히브리서는 성도들이 나아가 도달한 곳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밝힌다. 성도들의 오름의 행진과 방향은 저 팔레스타인 땅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곳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그곳에 오르는 날,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군천사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승리자로서 월계관을 받아쓰게 될 곳이고, 진정한 의미의 안식과 쉼을 얻을 곳이다.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름의 행진과 그 방향’에 관한 히브리서의 설명이다. 본향을 떠난 삶을 유배생활로 인식하는 유대인들이 동쪽 끝자락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에 눈을 향하고 이주하는 것을 일컬어 ‘시온에 오름’이라 부른다. 이사야 35장 5-10절을 보면, 시온에 이르는 대로(highway)가 언급되어 있다. 이사야 35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메시아시대에 관한 예언이자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문자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언젠가는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이뤄질 ‘장차올 세상’이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시온에 이르는 대로(highway)가 하늘나라 시온성에 오르는 길로 이해되어지고 있고, 신실한 믿음과 인내가 요구되는 길로 소개되고 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란 표현을 써가며 ‘장차올 더 좋은 세상’이 하늘나라인 것을 밝히고 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에 관한 히브리서의 설명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오름의 행진을 성공리에 펼치고 믿음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 받은 것을 문자적으로는 받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히브리서의 해석에 따르면, 그들은 약속받은 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을 뿐이지, 이 땅에서는 그것들을 손에 넣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이 이 땅에서는 남의 나라에 얹혀사는 외국인이요, 유배지를 떠도는 나그네인 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말한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본향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에 걸쳐 그래왔던 것처럼, 그들도 본향을 향해 눈을 고정시키고, 돌아갈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조상들이 그토록 바랐던 ‘그 희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나라’ 곧 하늘나라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한 영원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그들이 진정으로 바랐던 희망은 이 땅이나 이 땅의 것들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관한 것들이었다는 것이다.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을 받았으며,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에베소서 3장 5-6절의 말씀대로,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함께 나누는 자

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신비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 속에 있었던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감춰뒀던 비밀이었다고 말한다. 이 복음의 신비로 말미암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한 몸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나눌 자격자가 된 것이다.

셋째, ‘장차 올 좋은 것’(what is to come)에 대한 히브리서와 신약성서의 설명이다.

(1) ‘장차 올 좋은 것’은 참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받아야 할 거룩하고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말한다. 히브리서는 ‘장차 올 좋은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6장 9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말씀으로 포문을 연 후에 ‘좋은 소망’(7:19), ‘더 좋은 언약’(7:22), ‘더 좋은 약속’(8:6), ‘장차 올 좋은 일’(9:11), ‘장차 나타날 좋은 것’(10:1)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사모’하였는데, 그것이 ‘히늘나라였다’고 밝힌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으시고, 미리 세워둔 ‘더 좋은 계획’에 따라(40절) 그들을 위한 ‘한 도시’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마련해 주셨다(16절)고 밝힌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다’(35절)는 것이다. 바울서신들도 ‘장차 올 좋은 일’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 있다. 우리 말 성경에는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지만, 영어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장차 올 것을 보장하는 보증금으로써”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번역되었다. 여기서 성령님은 ‘장차 올 좋은 것’에 대한 ‘약속’의 ‘보증금’과 ‘인감’으로써 설명되었다. 그리고 바울서신들에서 ‘장차 올 좋은 것’은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부활’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보장하는 보증금과 인감으로써”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한다.

(2) ‘장차올 좋은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 나라에서 받을 상속을 ‘기업’과 ‘후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디모데전서 4장 8절, 히브리서 2장 5절은 ‘앞으로 올 세상’을 언급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13장 14절에서는 “장차올 도시” 곧 천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바울은 ‘장차올 나라’에서 받을 상속을 ‘기업’이란 말로 설명하였다.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사용된 “장차올 것을 보장하는 보증금”이란 말 대신에 ‘기업에 대한 보증’이란 말을 쓰고 있어서 우리가 장차 받을 기업, 상속의 내용은 ‘장차올 좋은 세상’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다.

(3) ‘장차올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는 신실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다(12절). 11장을 보면,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다.

‘장차올 좋은 일’은 구약성서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그것을 일컬어 신학에서는 ‘묵시문학사상’이라 부르고 있고, 유대교적 배경에서 보면, ‘올람 하바’에 대한 ‘하티크바’ 곧 ‘다가올 세상’에 대한 ‘희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유대교적 배경은 고대 페르시아제국시절에 활동했던 역대기 역사가들의 가나안신정국가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유대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테마가 안식이다. 유대인들은 오랜 유배생활에 지쳐있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안식은 절대적이고, 신성하며, 지복의 상징이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의 원형(prototype)은 가나안 땅이다.

떠돌이 히브리인들의 후예인 유대인들은 너무 오랜 세월을 노예로서, 유배당한자로서 혹은 피억압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다. 그들은 그들의 눈을 가나안 땅 예루살렘 시온으로 향하고 산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안식개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신약성서의 시각이고, 그 잘못을 바르게 잡고 있는 것이 신약성서이다. 유대인들의 안식개념은 지나치게 민족적이고, 배타적이며, 영토 중심적이다. 그것은 또 지나치게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다. 이런 잘못된 안식개념을 우주적이고 탈 민족주의적인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이 신약성서이다. 유대인들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안식개념을 내세적이고 영적인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이 신약성서이다.

기독교인들은 이천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삼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장차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로 확신하였고, 그분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참되고 영원한 안식처로, ‘장차올 좋은 일’로, ‘장차올 세상’으로 인식하였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문자적 의미의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 개개인들에게 임하신 후에 이뤄질 영적 의미의 이스라엘 나라이며, 민족과 신분과 남녀노소의 차별 없이, 공평하고 값없이 은혜로 열려있는 현재의 영적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궁극적으로 이뤄질 부활과 영원한 세계를 성령님을 통해서 약속하고 보장하고 인증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문자적인 세계이고, 아직 이뤄진 적이 없는 미래세계이다. 그러나 신약성서는 ‘장차올 좋은 것’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우리 안에 상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서 이뤄졌고, 장래에 이뤄질 거룩하고 영화로운 몸의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안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그 약속을 보장하는 보증금과 인감으로써”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장차올 좋은 것들’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후계자들’이고, 이런 일을 미리 계획하고 실천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넷째, 히브리서는 열일곱 차례나 ‘하자’라는 말을 쓰고 있다. 4장에서 다섯 번 쓰고 있는데,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자(1,11절). 신앙을 굳게 지키자(14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16절).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자(16절)고 했고, 6장에서 한번 초보단계에서 벗어나자(1절)고 권했다. 10장에서 네 번에 걸쳐 하나님께 나아가자(22절). 신앙을 굳게 잡자(23절). 서로 격려하자(24절). 모이기를 힘쓰자(25절)고 했으며, 12장에서도 네 번에 걸쳐 인내로써 경주하자(1절). 예수님을 바라보자(2절). 감사드리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28절)고 권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에서 세 번 예수님이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자(13절).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입술의 열매를 드리자(15절)고 권했다.

다섯째, 히브리서는 믿음과 인내에 관한 글이다. 히브리서 10장 26-39절은 기록목적에 부합한 글이다. 내용은 이렇다. 진리의 지식을 얻은 뒤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그 때에는 속죄 제사가 남아 있지 않다. 믿음과 인내를 보이지 못하고 배신했을 때, 남은 것은 무서운 심판과 그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이다. 하나님을 처음 믿고, 구원의 빛을 받은 뒤에 그 듯한 고난의 싸움을 견디고 이긴 첫 사랑의 때를 회고해 보라. 그 시절에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고, 동일한 처지에 놓인 교우들의 동반자가 되며,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재산몰수를 당하고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쁨으로 당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라.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에 떠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믿음이 있는 행동은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용기 있게 전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약속하신 큰 상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수고를 마치고 인내의 결실을 맺을 때가 멀지 않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다. 그분은 결코 지체치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10:35-37). 우리 성도들이 붙들고 놓지 아니한 그 희망과 믿음의 끈이 결국에는 우리를 인생의 미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게 될 것이다.